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성장소설의 인물 성격유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민 채

2015년 2월

성장소설의 인물 성격유형 연구

지도교수 안 성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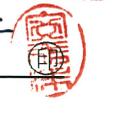
강 민 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강민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문 성 숙 
위 원 김 동 윤 
위 원 안 성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2월

〈국문 초록〉

성장소설의 인물 성격유형 연구

강민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안성수

성장소설은 청소년기의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입문하게 되는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구조화한 서사양식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탐색하고 자아정체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로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성장소설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논자는 201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예정인 국어와 문학 교과서 속 성장소설 6편을 텍스트로 삼아, 주요 작중인물 19명의 행동 특성을 탐구하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퍼스널리티 이론을 도구로 하여 작중인물들의 행동 특성 발현 양상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성격 요소 중 지배적인 성향을 추출하여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본능에 충실하여 쾌락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이드적 유형'이 5명, 현실을 인식하고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는 '에고적 유형'이 3명,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슈퍼에고적 유형'이 3명,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려는 속성과 그것을 현실의 올바른 판단과 연결시켜 역동적 단계를 밟아가는 '이드+에고적 유형'이 5명,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가 균형을 이룬 '이드+에고+슈퍼에고적 유형'이 3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 텍스트의 인물들이 주로 '이드'와 '에고' 유형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분석 대상 인물 19명 중에 13명, 즉 68%의 인물이 이드와 에고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 속의 성장소설들이 다양한 성격을 지닌 인물들의 삶을 조화롭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점은 성장소설의 수록 빈도 양상에서도 드러나는데, 전체 33권의 교과서 중에서 7권의 교과서에만 성장소설이 실려 있고, 나머지 26권에는 한 편도 실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성장소설을 수록하는 과정에서 문학교육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뜻한다. 그것은 곧 고등학교 학습독자들에게 그들과 비슷한 연령의 작중인물들의 다양한 성격과 삶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거울과 등불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록작품 선정 시에는 대상 작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 문학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인간상을 내포한 작품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차례 >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	6
II. 성장소설과 문학교육	8
1. 성장소설의 유형적 의미	8
2. 성장소설의 문학교육적 함의	13
III. 인물의 성격 형성과 행동	17
1. 인물의 성격 형성 구조	17
1) 성격의 의미와 구조	18
2) 성격의 발달과 방어기제	22
2. 인물의 행동과 성격 분석	28
1) 「봄·봄」	29
2) 「중국인 거리」	37
3) 「우상의 눈물」	45
4) 「장마」	55
5) 『외딴방』	63
6) 『19세』	78
IV. 성격유형의 탐색과 제안	88
1. 성격유형 분류	88
1) 이드적 유형	88
2) 에고적 유형	89
3) 슈퍼에고적 유형	90
4) 이드+에고적 유형	91
5) 이드+에고+슈퍼에고적 유형	92
2. 문학교육적 제안	95
V. 결론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02

<표 차례>

<표 1> 분석 대상 성장소설 및 주요 작중인물	29
<표 2> 『외판방』의 최소사건과 시퀀스	66
<표 3> 작중인물의 성격유형과 행동 특성	94
<표 4> 작중인물의 성격유형 분석 결과	95

<그림 차례>

<그림 1> ‘나’의 성격	34
<그림 2> ‘점순’의 성격	35
<그림 3> ‘장인’의 성격	37
<그림 4> ‘나’의 성격	42
<그림 5> ‘치옥’의 성격	43
<그림 6> ‘할머니’의 성격	45
<그림 7> ‘나’의 성격	49
<그림 8> ‘최기표’의 성격	51
<그림 9> ‘임형우’의 성격	53
<그림 10> ‘담임선생’의 성격	54
<그림 11> ‘나’의 성격	58
<그림 12> ‘친할머니’의 성격	60
<그림 13> ‘외할머니’의 성격	62
<그림 14> ‘나’의 성격	73
<그림 15> ‘큰오빠’의 성격	75
<그림 16> ‘희재 언니’의 성격	78
<그림 17> ‘나’의 성격	83
<그림 18> ‘아버지’의 성격	85
<그림 19> ‘승태’의 성격	87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을 분석적으로 탐구하여 작중인물의 성격유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성장소설'은 한 인물이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을 다룬 이야기 문학이다. 이러한 성장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독일의 교양소설(bildungsroman)을 비롯한 교육소설(erziehungsroman), 발전소설(entwicklungsroman)과 프랑스의 형성소설(novel of fomation), 미국의 입사소설(initiation novel), 영국의 보존소설(perservation novel)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윤식이 1970년 『사상계』에 '교양소설'이라는 용어로 처음 소개한 이후, 1990년대부터는 '성장소설'로 용어를 거의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의 개념들이 모두 독일, 영국, 미국 등 자국의 문화적, 미학적 전통 속에서 사용된 개념들을 한국어로 직역한 용어인 데다가 '성장'이라는 개념이 교양소설의 '교양(bildung)'과 형성소설의 '형성(fomation)', 입사소설의 '입사(initiation)'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성장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성장소설은 주인공의 변화 양상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의 특성을 가진다.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입문하게 되는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구조화한 서사양식이 바로 성장소설이기 때문이다.

소설의 핵심적인 가치는 갈등구조를 통하여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소설의 중요한 가치는 주로 인물을 통하여 형상화되는데, 인물의 특성은 그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인물의 행동은 또한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문학작품의 주제와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은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언어의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의 시점이나 분위기, 어조, 문체 등도 인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한 기법이라는 점에서 인물을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인물은 행동과 사건의 주체로서, 주제를 구체화하여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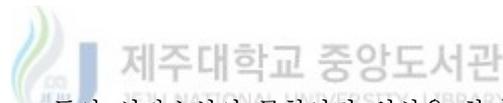
특히 성장소설에서 인물의 성격 창조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탐색하고 자아정체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로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청소년 독자와 성장발달 단계가 비슷한 인물로 설정되어 쉽게 독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작중인물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동참하면서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거나 삶의 한 모습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성장소설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독자는 성장소설을 읽으며 작중인물의 행동과 성격 그리고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 교육의 목적에도 호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소설의 인물 성격과 유형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특히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작중인물의 행동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적 특성을 유형화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논의가 성장소설의 개념과 성격, 서사 구조적 특성 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 연구이거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탐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이 단순히 교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 독자의 심미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¹⁾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을 대상으로 작중인물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그 성격유형을 탐구하고자 한다. 논자는 201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예정인²⁾ 국어 I·II와 문학 교과서를 포함한 총 46권 중에서 6편의 성장소설을 찾을 수 있었다. 이 6편을 텍스트로 삼아, 작중인물의 행동 변이와 행동 특성을 탐구하여 지배적인 성향을 추출하고 그것을 성격유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인물 성격의 유형과 양상을 청소년기 학생들의 발달과정과 연계시켜 살펴보고, 그 문제점까지 진단해보려고 한다.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될 성장소설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일조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성장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성장소설의 문학사적 위상을 찾기 위한 연구와 교육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두 갈래로 수행되어 왔다. 전자는 성장소설의 개념과 성격, 서사 구조적 특성 등을 밝혀 성장소설의 기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소설론적인 성격의 연구라 할 수 있다. 후자는 성장소설 속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로,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을 전제로 한 교육론적 성격의 연구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장소설은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현주³⁾는 그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성장소설에 대한 용어와 개념의 혼란, 둘째, 성장소설 전범의 부재⁴⁾, 셋째,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그것에 대한 체험의 특수성, 넷째, 성장소설을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비평의 대상으로 방치한 점이 그것이다.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대부분 6·25에 대한 유년기 체험과 우리만의 특수한 근대화 체험을 바탕으로 한 1970년대 이후의 작품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

1) 2012년 7월 9일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인정 심사는 2013년 8월 30일에 완료되었고, 같은 해 9월과 10월 사이 각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을 마쳤다. 고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되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2013년 8월 현재 국어 I·II 각 11종, 화법과 작문 4종, 독서와 문법 6종, 문학 11종, 고전 3종이 검정을 통과하였다.

3)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pp.17~20.

4) 독일 교양소설의 전범인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혹은 영국 형성소설의 초기작인 찰스 디킨즈의 『데이비드 카퍼필드』와 같은 작품을 우리 소설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의 견해이다. - 최현주, 앞의 책, p.17.

불어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평가하려 했다는 점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사실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개인성에 대한 추구가 강하여 사소설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문학적 측면에서도 상황이나 체험의 요소에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소설에 대한 연구는 김윤식⁵⁾이 강용홀의 『초당』과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bildungsroman을 ‘교양소설’이라는 용어로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⁶⁾ 그는 교양소설의 개념과 성격을 독일의 교양소설의 전통 위에서 탐색하고 규명함으로써 독일 교양소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는 김윤식 이후 대부분의 연구 성과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김병익⁷⁾은 우리 소설사에서 개인의 각성은 밖에서 주어진 충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각성은 문화적, 내면화된 형태가 아니라 사건적이고 외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는 한국 성장소설을 사회,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했다는 점에 의미를 줄 수 있으나, 그 기준이 너무 서구 편향적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한국의 성장소설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⁸⁾

이후 이재선⁹⁾에 의해 본격적인 성장소설 작품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는 통과제의의 문학으로 황순원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어린이나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세계 현실에 대한 변화와 성숙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 형태를 ‘이니시에이션 소설’로 정의하였다. 이 이니시에이션 소설이 특별한 성장 이념에 근거하여 내적 결정의 자기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성장소설과 연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는 형성소설의 개념으로 한국 성장소설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는 공헌했지만 그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성장소설과 관련된 입사소설, 발전소설, 형성소설, 교양소설 등을 변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개념의 혼돈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김열규¹⁰⁾는 성장소설을 탐색담의 범주로 분류하여 현대의 탐색담들이 외형적인 탐색에서 내향적인 탐색으로, 결과 있는 탐색에서 결과 없는 탐색으로 그리고 확정성 있는 탐색에서 불확정의 탐색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면서 탐색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그는 입사식담과 탐색담의

5) 김윤식, 「유년시절을 그린 두 개의 소설」, 『사상계』, 1970, p.156.

김윤식, 「교양소설의 본질」, 『한국현대소설 비판』, 일지사, 1981.

6) 김윤식은 『사상계』에서 강용홀의 소설 『초당』과 이미륵의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를 비교하면서 “전자는 미국적인 모험소설의 계보에 가까운 에그조틱한 점이 있다면, 후자는 흔히 고독한 방향이라는 내성적 교양소설-독문학의 어떤 관계된 것”이라고 평함으로써 한국 문단에 ‘교양소설’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하였다.

7) 김병익, 「성장소설의 문화적 의미」, 『세계의 문학』, 1981, 여름호.

이 글은 성장소설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① 우리에게 개인적,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유도 또는 의식케 할 문화적 요소가 희박하다.

② 것처럼 개인적 성장을 가로막은 것은 국가적 비극과 명분주의 유교체계였다.

③ 따라서 개인의 각성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충격으로 이루어진다.

④ 그러므로 자아의 각성은 문화적, 내면적 형태로서가 아니라 사건적, 외형적 형태로서 이루어진다.

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문화의 전통·정통과의 단절을 뜻한다.

8) 최은영, 「성장소설의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4.

9) 이재선, 「황순원과 통과제의의 소설」,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2.

10) 김열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뿌리를 민담에서 찾음으로써 한국 성장소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성장소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성장소설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보다 체계적인 시도는 남미영¹¹⁾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성장소설의 모티프를 '성에 눈뜸, 죽음의 인식, 환멸과의 만남, 악의 체험, 아버지 찾기, 길의 발견' 등으로 분류하고 한국 성장소설의 특성을 요약 제시한 바 있다. 한국 성장소설은 빌둥스로만으로부터 내용을,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로부터 구조와 형식을, 탐색담으로부터 구조의 일부를 빌려왔으며 청소년의 성장에 교육적 효과가 큰 소설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보영¹²⁾은 성장소설의 개념과 문학사적 위치 및 대표적인 작품들을 검토하여 성장소설의 중요한 개념을 정립하려 했다. 괴테의 『빌헬름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류의 '시민적 성장소설'과 헤세의 『유리알 유희』 류의 '낭만적 성장소설'로 나누고 그 성격을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그는 외적인 정치·사회적 원인 -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 과 내적인 자기 고백문학·근대 시민 의식의 결여 등의 이유로 우리 문단에는 상당한 수준의 성장소설이 나타나지 못했다면서 한국작가와 비평가들의 성장의지를 촉구했다.

최현주¹³⁾는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개념과 갈래적 특성을 통해 서사 모형을 추출하고, 서사구조를 모티프별로 분류해 기호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심층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심층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심층구조로 설명하고, 성장소설의 담론 특성을 통해 성장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서사 시학의 구조와 문학적 본질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현대 성장소설 중 1930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20편을 제시해 주제와 구조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자아의 정체성 문제를 심도 있게 탐색한 소설 유형으로서 의의를 가지지만 근대적 자아의 모습이 서구 편향적이라는 점과 온정적 가족주의에의 함몰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1990년대까지는 성장소설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2000년대 이후는 성장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문학적 자원으로 발견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고성혜¹⁴⁾는 성장소설의 교육적 측면에 주목하여 교육적 요소를 추출하고,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성장소설을 통한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김유정의 「동백꽃」, 황순원의 「소나기」를 텍스트로 선정한 후, 문학교육과 소설교육의 특성을 근거로 성장소설의 교육적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최초로 성장소설에 대해 교육적으로 접근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하나의 작품을 모델로 성장소설의 교육적 요소와 가치에 접근하는 유기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구현해내지는 못하였다.

김영선¹⁵⁾은 고성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학을 외면하는 학습자에게 문학 교육적 측면에서 그들의 정서에 맞는 성장소설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서에 실을 만한 성장소설을 탐색하는 부분은 연구자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평가나 반응을 중심으

11)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12) 이보영 외,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13)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시학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14) 고성혜, 「문학교육으로서의 성장소설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15) 김영선, 「성장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법」, 『동국어문학 제12집』, 2002.

로 작품을 선별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제시했는데, 그 동안의 연구와는 달리 학습자의 반응과 검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모색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많아 현장에 적용하기 다소 힘든 면이 있고, 체계적인 수업 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성장소설의 고유한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다.

조항미¹⁶⁾는 청소년과 성장소설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동안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물렀던 성장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그 교육적 가치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 속 성장소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이 작품 분석과 그 교육적 의의를 도출해내는 데 머물렀던 것에 비해, 구체적으로 성장소설의 교과서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성장소설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고 있다는 점, 그 결과 부분적인 문제점을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다루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비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습활동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논자의 연구와 직접 관련된 성장소설 속 인물의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임연수¹⁷⁾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동화 속의 등장인물을 융(Jung)의 분석심리학 용어인 외적 인격의 페르조나(persona)와 내적 인격의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 본연의 '나'인 자기(self) 등의 개념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화 속 인물 분석을 위해 제시한 이론과 논리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서중수¹⁸⁾는 소설 교육에서 작중인물의 이해는 학습자를 문학적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여, 제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의 작중 인물들을 서사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그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물 분석에 따른 교육적 함의는 수용자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주제 이해의 측면, 사회적·

16) 조항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재 성장소설 연구」, 흥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①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보충 심화 편에 실린 성장소설을 고려하지 않아서 세 편(「소나기」, 「흰 종이수염」, 「기억 속의 들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충 심화 편에 실린 성장소설까지 고려한다면 「소나기」, 「요람기」, 「흰 종이수염」, 「나비」, 「기억 속의 들꽃」, 「동백꽃」, 「비누 인형」, 「아홉 살 인생」, 「봄바람」 등 9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항미가 분석의 모델로 삼은 세 편의 소설은 그간 다양한 교수·학습적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소설로서 가지는 교육적 요소의 도출이 참신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② 범위를 좁게 잡았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러한 연구 대상을 통하여 도출한 '교과서 속 성장소설의 문제점'에는 부분적인 문제점을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다루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조항미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성장소설은 그 배경이 모두 1950년대로 편중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보충 심화 편까지 고려한다면 1930년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있다. 따라서 시대 배경이 편중되어 있기보다는 제한적이다.
 ③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점검하여 교과서 속 성장소설의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은 참신하지만, 비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습활동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17) 임연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화의 인물 분석」,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8) 서중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현대소설 인물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역사적 배경 이해의 측면, 개인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내면화 측면, 소설 읽기의 재미와 즐거움 측면, 우리말에 대한 애정과 이해의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으나, 인물 분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 외에 조미연¹⁹⁾은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의 인물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인물 유형을 인간상과 연결시키는 데에는 미흡함을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소설에 대한 선행 연구는 성장소설의 개념과 같은 기초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고, 그에 따른 성격과 구조적인 특성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많은 논의들 중에서 성장소설의 인물 성격유형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을 대상으로 작중인물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그 성격유형을 탐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교 ‘국어’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2013년 8월 현재 국어 I·II 각 11종, 화법과 작문 4종, 독서와 문법 6종, 문학 11종, 고전 3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상태이다. 논자는 검정을 통과한 총 46권의 교과서를 검토하여 여기에 수록된 성장소설 6편을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된다. II장에서는 성장소설의 개념과 장르적 특성, 그리고 성장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설은 인생을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장르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종종 작중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그 인물들을 통하여 간접체험을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작중인물의 삶의 모습이 그들 학습자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기에 소설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학습자들이 접하는 국어 교과서 속의 소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속 작중인물의 성격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소설 교육을 위해 일조할 것으로 본다.

III장과 IV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인물의 성격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이트(S. Freud)의 성격발달이론을 바탕으로 구조주의의 분석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절충하여 기본적인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총체적 퍼스널리티(personality)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세 부분이 바람직하게 통합되고 조화롭게 작동된다. 이 영역이 인간의 심리 속에서 균형 있게 작동됨으로써 자아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퍼스널리티의 역동에서 보면, 퍼스널리티의 전 영역에서 에너지는 언제나 유동성을 지닌다. 따라서 한 인간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정신구조 속에 에너지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하는 역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²⁰⁾ 작중인물이 작품 속 중요 사건에 반응하는 행동 특성과 대화 등을 동물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이드(id)적 성격, 사회와 개인의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욕망을 선택하는 에고(ego)적 성

19) 조미연, 「초등학교 동화 교재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20) 칼빈 S. 홀,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p.90.

격 그리고 양심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는 슈퍼에고(super-ego)적 성격으로 나누어 보고,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 원인과 지배적인 행동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²¹⁾

이를 위해 먼저 III장에서 텍스트를 최소사건²²⁾으로 나눈 뒤, 그것을 다시 시퀀스(sequence)²³⁾로 묶어 내용 전개와 흐름을 요약할 것이다. 작중인물이 연루되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행동과 사건을 추출하여 그 속에서 퍼스널리티 요인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차례로 작중인물의 행동 변이와 행동 특성을 정신분석 방법과 구조주의 방법을 원용하여 성격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동물적 욕망과 충동적 행동은 이드적 속성으로, 사회 제도와 규범 속에서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행동을 보이는 작중인물은 에고적 속성으로, 이타적이고 사회적 선(善)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양심과 도덕을 중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작중인물은 슈퍼에고적 속성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중인물별 퍼스널리티 발현 양상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표상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성격 요소 중 지배적인 성향을 추출하여 성격유형으로 정리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IV장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인물의 성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격 발달 과정과 연계시켜 살펴봄으로써 교과서 텍스트 선정 시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소설 속 인물의 성격유형을 표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림 표상 형식과 설명의 방식을 절충하려 한다. 이 방법은 각 인물이 의미 있는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동 특성을 이야기의 전개과정에 따라 추적하면서 그 변화 추이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배적인 성향으로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²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작중인물의 성격유형과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이 국어 교육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21) 이드(id), 에고(ego), 슈퍼에고(super-ego)에 대한 심리학계의 번역은 아직도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용어상의 명료한 구분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2) 텍스트의 분절과 요약에 위한 최소의미 단위는 '최소사건'의 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최소사건'이란 텍스트에서 주제나 내용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최소행동이나 사건이다. 한 개의 문장이나 작은 단락일 수도 있고, 몇 개의 단락의 집합일 수도 있다. 심리소설에서는 이미지나 심리적 반응이 최소사건의 개념일 수도 있다.

23) '시퀀스(sequence)'는 영화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독립적인 구성단위'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몇 개의 최소사건을 보다 큰 의미집단으로 묶어 명명한 것이다.

24) 안성수, 「현대소설의 교수방법과 표상형식 - <그림지도법>을 중심으로-」, 『백록논총』 제1집, 제주대학교, 1999, p.22.

II. 성장소설과 문학교육

이 장에서는 교양소설, 교육소설, 발전소설, 예술가소설, 형성소설, 이니시에이션 스토리 등 '성장'이라는 공통의 화소를 지닌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성장소설이 지니는 장르적 특성과 그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장소설의 유형적 의미

성장소설에는 10여 가지의 유사 용어들이 존재한다. 교양소설, 교육소설, 발전소설, 예술가소설, 보존소설, 형성소설, 이니시에이션 소설, 입사소설, 신참소설, 성년식소설, 성인식소설, 통과제의소설, 탐색담 소설, 시련소설, 수련소설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기 독일, 영국, 미국, 서구 유럽 등을 배경으로 자국의 사회적, 문화적 양상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사학회,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유형이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로 분류되는 작품들은 '성장의 이야기'라는 공통의 화소를 내포하고 있다. '성장의 이야기'란 미성숙한 주인공이 어떤 경험을 통하여 성숙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을 말한다. 이런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어린 주인공이 시련과 고통의 문턱을 넘어 자기정체성(identity)과 역할을 깨달아 가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²⁵⁾ 우리나라에서도 어린 주인공이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다룬 일군(一群)의 소설들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용어의 개념이나 장르상의 정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장소설의 개념 정립을 위해 먼저 교양소설과 교육소설, 형성소설, 이니시에이션 스토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교양소설(bildungsroman)은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젊은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다룬 소설로서 자서전적인 양상을 띠는 소설을 말한다. 이러한 소설 유형은 견습소설(apprenticeship novel)과 유사하며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로부터 헤세의 『데미안』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딜타이에 의하면 '교양(bildung)'이란 인간이 지향해야 할 목표인 '완성된 인성'인 동시에 이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 교양소설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분명히 알고자하는, 그리고 현실과 최초의 체험을 쌓으려는 젊은이를 다룬다. 한 인물이 겪는 상이한 현실 분야와의 대결을 주제로 하며, 주체와 세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강조한다. 교양소설은 사회적 현실 묘사는 하되 비판보다는 주인공 개체의 발전과 성숙이라는 내향적 경향을 띤다. 이는 18~19세기 독일 사회가 시민계급의 사회정치적 참여와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황 속에서 교양소설이 발전해왔음을 의미한다.²⁶⁾

그리고 교양소설은 주인공의 교양과정을 보편적이고 조화로운 완성의 단계까지 서술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과정을 서술하는 발전소설(entwicklungsroman)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발전소설은 교양소설의 전통으로부터 다소 유연한 소설 유형으로 19세기 독일 교

25) 남미영, 앞의 논문, p1.

26) 고성혜, 앞의 논문, p.15.

양소설이 추구하였던 이상주의, 개인주의, 내향적인 특질이 줄어들어가는 경향을 보이면서 프랑스나 영국의 형성소설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좌절이 반영되기도 한다. 발전소설은 한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는 교양소설과 공통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한 교양의 목적과 성숙 및 완성이나 나와 세계, 신의 전체적 조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여준다.

교양소설에 속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형이 예술가소설(kunstlehrroman)인데, 이것은 한 예술가가 현실과 자신의 예술적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예술가로서의 자아인식에 도달하는 성장과정을 그린 작품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성장소설 구조에 성장의 주체를 예술가로 둔 소설 유형으로,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교육소설(erziehungsroman, education novel)은 교양소설과 대등한 개념으로 인정된다. 젊은이를 바람직한 시민으로, 그리고 도덕적, 지적으로 자기를 믿는 개인으로 교육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 양식이다.²⁷⁾ 대표적으로 루소의 『에밀』이 있는데, 일정한 목적을 향한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교육적 측면에서 서술한 소설 유형이다. 이 유형 또한 인간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의미와 목적에서 전개하는 소설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교양소설의 범주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²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소설, 교육소설, 발전소설, 예술가소설이 독일식 장르 개념이라면 보존소설(preservation novel), 형성소설(novel of formation)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형성소설은 마리안 허쉬가 사용한 용어로 한 중심인물에 초점을 두는 소설이다. 그것은 규정된 사회 질서의 맥락 속에서 한 대표적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다루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의 관심은 전기적이며 사회적이지만 사회소설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 소설의 플롯은 탐색 이야기의 변형이다. 사건은 삶 전체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사건들이다. 독일의 교양소설과는 다르게 개인의 내면화보다 사회로부터의 영향에 초점을 둔다. 성장 주체의 능동적 의지보다는 사회 환경의 영향에 의한 성장 주체의 수동적 양상이 표면화되는 소설 유형이 바로 형성소설이다. 디킨즈의 『데이빗 카퍼필드』, 스타달의 『적과 흑』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니시에이션 스토리(initiation story)²⁹⁾는 브룩스와 워렌이 『소설의 이해』에서 「살인자들」, 「나는 이유를 알고 싶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니시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설의 주제에 따른 유형 분류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니시에이션'이란 말은 원래 인류학의 개념으로 '시작하다'의 뜻이다. 엘리야데는 그의 『샤머니즘』에서 이를 주로 무당의 입무(入巫) 과정으로 해명하지만, 생의 성장단계에서 통과제의(通過祭儀)의 문턱에 비로소 들어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니시에이션 소설' 또는 '신참소설'이란 어린 주인공이 미숙, 무지 및 순진의 유년

27) 이명섭 편,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을유문화사, 1989, p.46.

28) 오한진, 『독일교양소설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9, pp.11~15. 참조.

29) 'Initiation story'란 용어의 우리말 번역은 학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르다. 남미영, 앞의 논문, p.11.

① 김열규 : 입사소설, 입사식담(『민담학개론』, 일조각, 1982)

② 이재선 : 이니시에이션 스토리, 신참소설, 신입참 소설(『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통과제의 소설(『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③ 최상규 : 성인식 소설(『단편소설의 이론』, 정음사, 1983)

상태로부터 악의 발견, 생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 자아 발견과 사회적인 조정의 성숙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치르는 통과제의 소설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확장된 것이 이른바 발전(entwicklungsroman), 또는 교양소설(bildungsroman)이다.³⁰⁾

마르쿠스는 '이니시에이션 스토리'에서의 '이니시에이션'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주인공에게 미친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효과에 따라 시험적 이니시에이션, 미완적 이니시에이션, 결정적 이니시에이션으로 유형화시켰다.³¹⁾ '시험적(tentative) 이니시에이션'이란 주인공을 성숙과 각성의 문턱에까지만 이끌어갈 뿐, 결정적으로 성숙의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소설은 경험의 충격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그런 경우의 주인공은 유난히 나이가 어리다. '미완적(uncompleted) 이니시에이션'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성숙과 각성의 문턱을 넘어서게는 하지만, 어떤 확신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상태로 그를 놓아두고 만다. 이 경우에는 그대로 자아발견의 상황까지 보여준다. '결정적(decisive) 이니시에이션'이란 주인공을 완전한 성숙과 각성에 다다르게 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주인공이 성숙에 이르는 결정적인 진로를 정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는 사춘기 소년,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성장과정을 그리는 이야기이며, 인류학적인 제의적 요소를 꼭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 세계로의 이입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단에서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는 이니시에이션 소설, 입사소설(initiation novel), 통과제의 소설, 통과례 소설, 신입참 소설, 신입소설, 신참소설, 성년식 소설, 성인식 소설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니시에이션 소설은 자아의 각성과 인간의 성장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사소설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성년식을 외부 세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중대한 인식으로의 통과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둘째는 이것을 중대한 자기 발견과 거기에서 기인한 인생이나 사회와의 타협으로 기술한 것이다.

탐색담은 특히 신화, 전설, 민담 등과 관련이 깊다. 주인공의 탐색 행위가 '자아의 정체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주나 구슬 등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찾음의 이야기'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탐색의 과정이 여행의 노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은 여행소설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행소설의 유형은 모험소설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모험소설은 주인공의 모험적 체험을 통해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와 인식을 제시하는 허구적인 자전소설의 형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

시련소설(시험소설), 수련소설은 바흐친이 「소설 속의 담론」에서 사용한 용어로 주인공이 자신의 자질을 시험 당하고 능력을 입증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시련을 서술한다. 바흐친은 근대소설의 범위 내에서는 성장의 주체와 시험의 주체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이 심오하고 유기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등의 유럽 소설들에 성장의 개념이 시험의 개념과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인공에 부과되는 시

30)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p.372.

31) 모르데카이 마르쿠스, 「이니시에이션 소설이란 무엇인가」(찰스 E. 메이 엮음, 최상규 옮김, 『단편소설의 이론』, 정음사, 1983, p.297)

힘이 그들을 더욱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인물에 가깝게 성장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³²⁾

성장소설은 변별적으로 인식되는 다른 소설 유형들과 서로 공유하는 성격을 담아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나름의 고유한 서사적 유형을 간직하고 있다. 성장소설만의 서사적 유형이란 주인공의 변화 양상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적 특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변화하게 되는 계기와 과정, 그 결과 구조화된 유형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 서사양식이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장소설의 개념에 대한 통찰은 근대의 개념에 대한 성찰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성장소설이 서구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근대적 주체와 욕망으로부터 비롯하는 소설 유형이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개념 정의에는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한국 근대성에 대한 특수한 이해가 동시에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구에서 수입되어 온 개념인 교양소설, 형성소설, 입사소설 등과는 변별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교양, 형성, 입사소설이라는 개념들보다는 우리 나름 역사적 전통에 기반을 둔 '성장소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의 신화, 전설, 고소설 등의 이야기 구조에서도 이러한 성장의 모티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개념들이 모두 독일, 영국, 미국 등 자국의 문화적, 미학적 전통 속에서 사용된 개념들이며, 한국어로 직역된 용어들로 한국소설사에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수입된 용어라는 느낌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교양소설의 '교양(bildung)'과 형성소설의 '형성(formation)', 입사소설의 '입사'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한국문학사 전반에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도 보편성을 지닌다. '성장'이란 인간의 성품, 능력, 신념, 태도 등이 자연적·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성숙하여 내적으로 통합하고 성취하면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성장'이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자란다'라는 개념이나 '통합'의 개념은 소설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소년(소녀)이 성숙하고 완전한 성인의 세계로 들어서기까지 겪는 정서적 아픔과 정신적 성장, 현실 인식 과정을 주로 함유한다. 따라서 성장소설은 죽음과 성(性) 또는 선과 악의 도덕적 갈등, 미와 추 및 자아의 발견과 같은 일련의 충격적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와 더불어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효과를 어떻게 수용하면서 성숙되는가를 다른 소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소설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의 장르적인 특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장소설은 내부적 형태와 외부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즉 다른 장르와는 다른 차별화된 내용과 그에 따른 독특한 구조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³³⁾ 이제, 성장소설의 갈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⁴⁾

첫째, 성장소설은 개인의 전기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장소설은 인물의 성장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구성된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유년시절을 막 통과하고 있는

32)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pp.221~222.

33) “장르는 이론적으로 볼 때 외적인 형식(특수한 운율 혹은 구조)과 또한 내적인 형식(태도, 어조, 목적, 더욱 노골적으로 주제와 독자)에 입각한 문학작품들의 분류로서 생각돼야 한다.” - R. 윌렉 · A. 워렌,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95, p.344.

34) 최은영, 앞의 논문.

개인이 된다. 인생 과정의 모든 사건이 중시되기보다는 정체감을 획득하게 되는 각성의 사건이 서술의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성장소설은 인간의 사회적 삶보다 개인적 삶을 중시하는 소설로서 자아의 발전과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적 성장이 중심을 이루는 문학이다.

둘째, 성장소설은 이항 대립의 구조를 가진 탐색담과 통과의를 바탕으로 한 입사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장소설은 처음과 끝이 이분법적 대립의 양상을 보여준다. 선과 악, 미와 추, 어둠과 빛의 이항 대립일 수도 있고, 안과 밖, 성숙 이전과 성숙 이후의 두 세계를 대립시키기도 한다. 대체로 성장소설은 처음의 결핍·불완전·미숙에서 충족·완전·성숙으로 결말을 맺는다. 처음과 끝의 이항대립 구조가 주인공의 능동적인 탐색에 의해 완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성장소설은 미숙한 주인공이 성숙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는 통과의례의 과정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대체로 분리(separation) → 전이(translation) → 결합(incorporation)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성사회로의 입사 양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장소설이다.

셋째, 성장소설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아의 내면에 대한 탐색과 세계의 외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를 통해 성장소설은 주인공 혹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편입을 유도한다. 그 계기는 바로 죽음과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혹은 사회나 인간의 구조적인 악에 대한 환멸, 사회의 여러 가치들로부터의 일탈과 그로 인한 혼돈 체험 등이다.

넷째, 성장소설의 서술자는 유년 서술자나 대개 1인칭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성장소설의 궁극적인 의미는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유년의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성장한 성인으로서 자신이 겪어온 유년 시절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고백적인 서사적 시각을 많이 취한다. 이는 순진성을 보유한 서술자에 의해 세계와 자신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독자들은 문학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품에 표현된 문화적 맥락에 접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 비판이나 공감을 획득하게 된다. 그로 인해 성장소설은 단일한 서술자의 단일한 의식으로 인해 내포독자가 쉽게 의사소통에 이르게 된다.

다섯째, 성장소설은 기성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부정의 반담론³⁵⁾과 함께 기성사회를 수용하고 내면화하게 하는 상징권력³⁶⁾의 담론이 반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35) 반담론(counter-discourse)은 언어 공동체의 지배적인 의미 제도를 위반하여, 다른 언술들과의 동일성을 파괴한 담론을 말한다. 이는 외부 대상을 지시하는 대신 사회제도를 유지하는 의미의 장을 파괴함으로써 언술체계를 교란, 방해한다. 지배 담론이 자신만의 획일적이고 독백적인 의미화 방식을 통해 모든 담론을 동일화하고자 할 때, 반담론은 오히려 타자성의 권력을 내세워 그 지배 담론이 은폐하고자 하는 허구성과 폭력성을 드러낸다. 이는 일종의 메타적 언술로, 어떤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담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의미화함으로써 지배적 문맥의 획일적인 의미에 새로움을 개방하는 것이다. - 최인자, 「한국 현대소설 담론 생산 방법 연구 - 반담론과 문학교육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pp.10~11.

36) 부르디외의 상징권력이란 개념은 특정 발화자가 특정 상황에서 그 나름의 스타일과 레토릭(rhetoric),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체성을 가지고 발화할 때, 특정한 맥락과 관련된 합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담론에 수행성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그 개념은 노골적인 폭력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구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합의와, 그 합의가 생산해낸 구조화된 여러 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박훈하, 「1950년대 소설 담론의 주체 형식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34~35

처음에는 지배적인 이념이나 기성사회에 대해 반항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다가 작품의 결말에서 기존의 사회에 대해 순응과 화해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성사회로의 순조로운 진입을 보이는데, 이러한 화해와 순응은 성숙에 비례하는 가치이다.³⁷⁾ 성장소설은 기존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물의 편입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진 상징권력으로 작용하면서 더불어 기존의 가치체계 혹은 문화 양식에 대한 비판적 효과를 견지하는 반담론의 성격 또한 공유하고 있다.

여섯째, 성장소설은 열린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작중인물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다. 성장의 시기란 유년기의 무지하고도 어리숙한 세계에서 인식의 세계, 성숙한 성인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장소설은 일대기나 전기적 구성을 취하기보다는 '미숙'에서 '성숙'으로 이어지는 각성의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성숙으로의 입문을 중시하므로 결말 유형을 중시하는 장르가 된다. 결국 한 단계의 성장과정을 거치고 난 그 자리는 또 다른 성장의 가능성을 내포한 출발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소설의 열린 결말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져 학습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능성을 찾게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성장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자아정체성 찾기'이다. 자아는 세계와 이항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며, 개인의 단순한 전기나 일대기적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세계를 연관시켜 비판하거나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작품 속 주인공의 성장을 따라가는 독서과정 속에서 학습독자가 이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성장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술자를 유소년의 1인칭 화자로 설정하는 것은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현실 인식을 이루기까지의 내면적 변화를 탐구하기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자아정체성의 확립은 인물이 열린 결말 구조 속에서 보여주는 성장소설의 핵심적 가치와 요소가 된다.

2. 성장소설의 문학교육적 함의

문학은 단순한 언어의 표상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문화 유산으로서 인간의 미적 정서를 자극하는 예술품이다. 인간 상상력의 소산이자 인생을 표현한 창조물이다. 이처럼 문학이란 언어를 통하여 인생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표현하는 창조의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학작품을 교육 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문학 교육이다.³⁸⁾

문학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다. 그것은 개인의 문학적 체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리성과 심미성을 안겨 줌으로써 성장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확보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대부분의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청소년이나 청년으로서 중등 문학교육의 대상자들과 거의 비슷한 나이를 보여준다.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나 '주변인'과 같은 용어로 불린다. 청소년기는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주변적 위치에서 미숙하기만 했던 어린이 시절과 결별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게 된다. 이

37) 최은영, 앞의 논문, p.19.

38)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공저, 『국어과 교수학습론』, 교학사, 2005, p.326.

시기에 주로 자신과 세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 성찰을 통하여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성인들의 세계를 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한 와중에 방황과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방황과 실패를 극복하여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때 사회 속에서 건전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탐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아정체성’은 에릭슨(Erikso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개인의 에고가 이드와 슈퍼에고에서 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의 통합방식이 개인적인 존재적 의미와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 데 유효하다는 것 또한 자각하는 것을 뜻한다.³⁹⁾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자신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심리적 정체감을 재규정한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직업적, 교육적, 성 역할에 대해 시험을 하고자 한다. 그 속에서 자신이 지닌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자기다움’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식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련의 과정은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과 같다. 따라서 ‘성장소설’의 이야기는 작가의 허구적 상상물이면서 동시에 바로 청소년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장소설’은 청소년들에게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소설 읽기를 통하여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난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 등 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함으로써 감동을 받고 삶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성장소설 또한 인간의 성장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소설의 주 탐구 대상인 인생을 해석하고 탐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청소년은 물질만능주의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외부적 불안정 요인에 노출되어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심적 방황을 겪기도 한다. 성장소설은 이러한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이나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도움을 준다.⁴⁰⁾

첫째, 성장소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주인공과 성장 과정을 공유하게 된다. 현재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더라도 책을 읽음으로써 그러한 생각들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평범한 유년기의 청소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청소년 독자들은 또래 주인공의 성장 과정에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는 학습 독자가 주인공과의 심미적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설 독서의 흥미를 이끌어내며, 이는 다른 소설 독서로의 전이력을 생산해 낸다.

39) 서봉연,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 『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40) 유지민, 「성장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사회학습이론의 창시자 반두라(Bandura)는 개인이 직접 경험하고 강화를 받은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도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⁴¹⁾ 이렇게 타인의 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거나 강화를 받는 것을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 또는 모델링(model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들은 성장소설의 주인공을 통하여 관찰학습을 하게 된다. 주인공이 소설 속에서 일련의 성장 과정을 통해 아픔과 고통을 받을 때 학습자들 역시 그러한 감정들을 체험하게 된다. 즉 성장소설은 학습자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며 세계에 대한 현실 인식을 확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장소설에 등장하는 성숙의 매개체나 각성의 계기는 작품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청소년 독자들에게까지 교육적으로 작용한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들이 작중인물과 역동적으로 문학적 의사소통을 시도한다는 뜻이다. 즉 주인공이 매개자적 인물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인식에 도달하는 경험을 한다면 소설을 읽는 독자 역시 같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타인과의 관계 맺음, 타인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면 독자는 소설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과의 감정이입을 통하여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주인공의 성장 과정에 동참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성장소설에서 주인공들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닮고 싶은 누군가를 고정화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그들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정립해 나간다. 다시 말해 성장소설은 학습독자들의 내면화를 이끌어 자아의 형성과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준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철학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장소설이다.

셋째, 성장소설의 독자는 소설을 통해 정서적 경험을 다양하게 확대하게 되고,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는 독특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학습독자들은 발달 단계상 정서적 불안기에 해당된다. 세계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정서는 성장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정서적 아픔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성장소설을 읽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나아가 타인이 겪는 아픔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서적 경험은 결과적으로 심미적 체험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지나친 입시경쟁 속에서 등한시되기 쉬운 정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성장소설은 인물들이 주어진 사회·역사적 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성장소설을 읽는 청소년들이 작품이 담아내고 있는 당대 사회와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역사에 눈을 넓혀 다양한 삶의 조성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장소설을 읽음으로써 청소년들은 당대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아를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41) 윤가현 외, 『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09, p.275.

다섯째, 성장소설의 열린 결말 구조는 그 자체로서 교육적 기능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성장소설을 읽는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문학적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문학적 상상력'이란 문학의 질서 속에서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으로서 세계 구성의 능력이다. 공감적 체험과 상상력의 고양은 문학 교육의 본질적 목표라는 점에서, 텍스트의 상상력은 더 넓고 깊은 세계를 인식하고 상상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성장소설은 그 자체로 많은 교육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내면적 성장을 이끄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성장의 이야기'라는 공통의 화소를 지닌 소설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교양소설, 교육소설, 발전소설, 예술가소설, 보존소설, 형성소설, 이니시에이션 스토리의 개념과 대표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장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자아정체성 찾기'로 정하고, 그러한 성장소설이 어떠한 문학교육적 가치를 함유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성장소설은 학습 독자들이 하여금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게 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에 도움을 준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의 정서 발달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소설 독서로의 전이력을 파생한다. 다음 장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형성 구조와 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Ⅲ. 인물의 성격 형성과 행동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달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체계화시킨 학자는 프로이트이다.⁴²⁾ 그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 대한 이론과 인간의 정신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그가 주장한 성격의 형성 구조와 역동성, 그리고 성격 발달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 이론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성장소설 속 인물의 행동과 특성을 분석하여 그 성격유형을 추출하여 보려고 한다.

1. 인물의 성격 형성 구조

인간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우 수줍어하며 부자연스러워 한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의 양식이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인차는 개인의 독특한 성격 특질을 구성하며,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격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격(personality)이란 용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persona(가면, 외관, 역할, 개인적 성질의 총체, 개인의 존엄성)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원래 'per(through:통하여)'와 'sonare(speck:말하다)'의 합성어로 배우들이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이나 탈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 후 'personare'가 '가면'이라는 뜻에서 점차 변화되어 '주위에 대한 개인의 전체적인 인상'의 뜻으로 변용되었다. 로마 시대에는 '고귀한 성질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인상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성격에 관한 사전적 정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또는 '각 개인을 특징짓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행동 양식'이다. 또한 성격에 관해서 학자들마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올포트(Allport)⁴³⁾의 진술을 들 수 있다. 그는 '성격은 각 개인의 정신·신체적 체계 안에서 그의 특징적 사고와 행동을 결정해주는 역동적 조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성격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는 '인격'과 '기질'이 있다. '인격(character)'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 성격이다. 따라서 성격은 인격의 중핵적인 요소이며 성격을 포함해서 조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경향의 총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기질(temperament)'은 개인의 정서적인 특징을 말한다. 이 특징 속에는 자극에 대한 흥분성, 반응의 강도와 속도, 기분의 질과 동요와 강도의 특이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이란 '비교적

42) 김제한, 「Freud의 성격형성론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6집, 서울교육대학교, 1983, p.257.

43) 노안영·강영신 공저, 『성격 심리학』, 학지사, 2004, p.242.

일관되고 안정적이면서도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각 개인의 독특한 성질로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⁴⁾

1) 성격의 의미와 구조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들의 관계를 빙산에 비유하여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을 의식(conscious)이라 하고,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을 무의식(unconscious), 그리고 파도에 의하여 물 표면에 나타났다 잠겼다 하는 부분을 전의식(preconscious)으로 보았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의식하고 있는 내용은 극히 작은 부분이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무의식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⁵⁾

'의식'이란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포함하며,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곧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생활의 부분이다. 이 경험은 단지 잠시 동안 의식될 뿐 우리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바꾸면 재빠르게 '전의식'이나 '무의식'으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무의식'은 성격의 아주 크고 넓은 부분을 나타내며, '의식'은 성격의 아주 작고 제한된 부분만을 나타낸다. '전의식'이란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의식되지 않는 그러나 조금만 자극을 받거나 노력하면 곧 의식될 수 있는 경험을 말한다. 이것은 흔히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 불린다. '무의식'이란 정신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으로, 프로이트는 인간행동 이해에 있어서 무의식을 강조하였다. 이 '무의식'은 의식 밖에 있기 때문에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연중에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영역이다.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추진력, 정열, 억압된 관념 및 감정 등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무의식은 주로 이드와 슈퍼에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와 신경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⁴⁶⁾

프로이트는 성격이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세 가지 성격 구조들은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즉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성격이란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세 가지 기능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동의 패턴이다. 이들 세 가지 기능은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행동에 있어서 어느 기능이 주된 역할을 하는지를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드는 태어날 때부터 있으며 에고는 현실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발달하게 된다. 또한 슈퍼에고는 사회적 표상으로 출현한다. 세 측면 모두가 발달하게 되면 이드에게만 있던 정신에너지가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나누어지며, 이들 사이를 흘러 다니게 된다. 에고는 이드의 욕구, 현실 욕구, 슈퍼에고가 강요하는 제약 간의 중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에고는 본능적 욕구가 현실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승인될 방식으로 만족될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성격의 세 측면은 모두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다. 내적 갈등(intrapsychic conflict)은 성격의 한 측면의 목표가 다른 측면의 목표와 충돌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내적 갈등

44) 이재창 외, 『성격심리학』, 태영출판사, 2009, p.18.

45) 위의 책, p.58.

46) 위의 책, p.59.

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충동을 제거하거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욕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내적 갈등은 욕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격 구조 간의 타협이다. 정상적인 성격 기능에서도 내적 갈등은 있는데 갈등의 해결은 자아가 수행하는 방어과정이며, 이 과정에는 정신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자아가 내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경감시킬수록 자아는 고도의 정신적 기능, 즉 문제 해결과 창조적 추구에 에너지가 더 많이 배당된다.

이제 프로이트가 제의한 세 가지 성격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드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한다. 즉 생득적으로 갖추어진 모든 생리·심리적인 에너지, 즉 원시적인 충동·본능·욕구의 총체적인 힘의 원천이다. 이드에 자리 잡은 본능적 욕구들은 '쾌락의 원리(pleasure principle)'에 따라 작동한다. 본능적 욕구를 즉각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만족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적 긴장(psychic tension)의 감소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현실과 환상의 구별이 없고, 비언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체계가 없는 사고를 하며, 본능적 자극에 대한 1차적 과정의 사고를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어떤 현실이건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이드의 본래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건강한 사람은 꿈을 통해서, 정신병 환자는 환각(hallucination)의 힘을 빌려 해결을 시도한다.⁴⁷⁾

이드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어떤 가치 관념이나 윤리 의식 또는 도덕성 따위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생각, 즉 쾌락 원칙에 따른 본능의 충족을 위해 쫓기고 있는 것이다. 이 이드의 작용 과정에는 다만 두 가지 결말만이 가능하다. 이드가 행동이나 원망 충족을 통해 배설되는 길 또는 에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에너지를 배설하는 대신 에고의 영향력에 굴복하는 경우이다.⁴⁸⁾ 어린이는 성장함에 따라 부모나 현실적 상황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욕구 충족이 억제된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은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고, 이 욕구들은 숨겨진 채로 사람들의 의식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에고란 이드의 욕구를 현실에 적응시키고 성격을 집행하는 부분으로 성격의 의식에 해당되는 의식기능의 주체이다. 외계의 현실적 요청과 슈퍼에고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드의 요구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에고는 현실세계와 접촉하는 성격의 한 부분으로, 이드에 자리 잡은 본능적 욕구들과 외적인 현실 세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실의 원리'에 따라 욕구의 충족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하게 한다. 현실 원리의 목적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적당한 대상이나 환경조건이 성숙될 수 있을 때까지 본능적 만족을 지연시켜 개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실의 원리에 따라 행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현실감별(reality testing)이다. 현실감별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만족할 만한 대상이나 방법이 발견될 때까지 욕구의 충족을 연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간접적이며 지연된 방법으로 에고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언어적·논리적이며 객관성을 갖는 성숙된 사고, 즉 2차적 과정의 사고(secondary process thinking)를 사용하게 된다.⁴⁹⁾

47) 위의 책, p.61.

48) 칼빈 S. 홀, 앞의 책, p.49.

슈퍼에고란 개체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관여하는 성격의 도덕적 부분을 말한다. 초기에는 부모의 도덕적 권위에 동화함으로써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점차로 다양하게 학습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해서 때로는 이드와 대립하고 때로는 에고와도 대결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형성되고 발달한다. 특히 슈퍼에고는 에고보다 무의식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강력한 제동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안정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⁹⁾

슈퍼에고는 성장하면서 부모나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은 정통적인 가치관과 사회적인 규칙들 그리고 도덕과 양심이 자리 잡은 곳이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슈퍼에고의 임무다. 슈퍼에고는 도덕적 원리를 추구하여, 도덕이나 가치에 위배되는 이드의 충동들을 견제하고, 에고의 현실적 목표들을 도덕적이며 이상적인 목표로 유도하려 한다. 이러한 슈퍼에고는 두 가지 측면, 즉 양심(conscience)과 자아이상(ego-ideal)이 있다. 양심은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나 비난을 받은 경험에서 가치체계가 내면화된 것이다. 즉 부모나 그 밖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언행에 대한 가치평가나 벌이 기초가 되어 형성되며, 어른이 금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언행과 사고를 할 때 느끼는 죄책감에 의해서 발달한다. 즉, 어른들에 의해서 강화되고 제시되는 도덕적 기준이 내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이상은 잘한 행위에 대하여 칭찬이나 보상을 받은 경험을 기초로 이상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어 이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아동이 부모나 그 밖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일들이 기초가 되어 형성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도덕적 자아에 대한 자아상이다. 슈퍼에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착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신은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므로 내면에서는 항상 우울하고 기쁨을 못 느끼게 된다.⁵⁰⁾

이러한 세 가지 성격구조들은 서로 담고 있는 내용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슈퍼에고가 발달하면 에고는 힘든 길을 가야 한다. 에고는 이드의 욕망들과 슈퍼에고의 도덕적 명령 그리고 현실의 제약을 동시에 다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연히 이들 간에는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드는 본능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려 하고 에고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저지하려 한다. 슈퍼에고는 이드와 에고가 이상과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지 항상 감시한다. 이러한 갈등이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 된다. 즉 에고와 이드, 그리고 슈퍼에고 간에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심리적 증상형성의 출발점이 되며, 건강한 성격의 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에고가 이드와 슈퍼에고, 외계의 압력이나 요구의 조화를 이루면서 적당하게 슈퍼에고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건전한 성격의 형성과 적응을 위해서 필요하다. 즉 건강한 성격은 에고와 이드, 슈퍼에고 간에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특히 에고가 성격 구조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형성될 수 있다.⁵¹⁾

이제 성격의 역동을 일으키는 정신에너지와 추진력, 억제력, 불안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의 정

49) 이재창 외, 앞의 책, p.62.

50) 위의 책, p.62.

51) 위의 책, p.63.

52) 위의 책, p.63.

신 구조 속에 있는 세 영역인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정신에너지'라 한다.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사고하는 모든 심리적인 작용을 정신에너지가 수행한다. 정신에너지는 신체에너지로, 신체에너지는 정신에너지로 자유롭게 전환이 일어나며 각 영역으로 분배가 일어나지만 그 양에는 변함이 없다. 프로이트는 정신에너지의 양은 곧 본능이며 성격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이드가 장악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정신에너지는 이드에 있으며 에고와 슈퍼에고는 자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시(identification)를 통해서 이드가 가지는 에너지가 에고와 슈퍼에고로 유입되는데 이때 분배가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에너지가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분배되어 활용되고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변환을 '성격의 역동'이라고 부른다. 정신에너지의 양은 변함이 없지만 이드에 주로 사용되느냐, 에고나 슈퍼에고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드의 에너지는 반사행동이나 원망 충족을 통해서 본능적 만족을 얻는 데 쓰인다. 이드는 주변의 사물이나 대상을 구분 짓지 않고 마치 모두 같은 것인 양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왜곡된 사고를 '술어적 사고'라고 한다.⁵³⁾ 본능 에너지의 흐름이 에고나 슈퍼에고 때문에 차단될 경우, 그것은 저항을 뚫고 나가 환상이나 행동을 통해 배설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에고의 합리적 심리 과정이 장애를 받게 되어 대화, 지각, 기억의 재생 등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충동적 원망 등이 합리적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심하게 감소하는 것이다.⁵⁴⁾

동일시를 통해 에고는 현실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2차적 심리 작용), 이것은 이드가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극히 환각적인 원망충족(1차적 심리 작용)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드에서 에고를 향해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과정으로부터 퍼스낼러티의 발달이라는 중요한 정신 역학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맹목적인 이드와는 달리 합리성을 가진 에고는 본능적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드의 에너지 저장소에서 계속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에고가 정신에너지를 대부분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 에고는 이드로부터 가져온 이 에너지를 본능의 충족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각 집중, 학습, 기억 재생, 판단, 분별, 이성, 상상 등의 심리 작용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에고의 에너지 중 일부는 본능적 충동이 운동계로 연결되어 그대로 행동에 옮겨지는 일을 막는 데 쓰인다. 즉 에고는 본능적 충동을 즉시 배설하는 대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때까지 연기하게 된다. 그리고 에고의 에너지는 세 영역을 통합하는 데에도 쓰인다. 에고가 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이드, 에고, 슈퍼에고는 잘 통합되고 조직화된다.

에고가 현실적인 것에 동일시하는 것과 비교해서 슈퍼에고는 이상화되고 전지전능한 부모에 대해 동일시한다. 그 결과 슈퍼에고 역시 처벌을 하거나 보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에고는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드와 동맹하고, 반대로 슈퍼에고는 비도덕적이고 쾌락 추구적인 본능과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억압 작용을 한다.

한 인간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정신구조 속에 정신에너지가 어

53) 칼빈 S. 홀, 앞의 책, p.74.

54) 위의 책, p.76.

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하는 역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추진력(cathexes)'은 본능적 충동이 곧장 배설 또는 행동화하는 것을 말하며, '억제력(anticathexes)'은 이것을 저지하는 예고의 작용을 가리킨다. 이드는 단지 추진력만 가지고 있는 반면, 예고와 슈퍼에고는 억제력도 지니고 있다.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추진력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억제력의 갈등은 성격 발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신체의 내부 기관에 생기는 흥분 때문에 오는 일종의 고통스런 감정적 경험을 '불안'이라 한다. 프로이트는 불안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현실적 불안(objective anxiety),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이라 하였다. 현실적 불안은 그 위협의 원천이 외계에 있고⁵⁵⁾, 신경증적 불안은 이드의 본능적 대상의 선택 속에 있다.⁵⁶⁾ 도덕적 불안⁵⁷⁾에서는 위협의 원천이 슈퍼에고의 양심에 있다 할 수 있다. 불안의 유일한 기능은 자아에 대해 어떤 위협 신호를 알려주는 것에 있는데, 의식계에 이런 신호가 도달했을 때 자아는 이 위협물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비록 불안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이 근절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안이 일어나야 위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계 신호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이 위협물을 피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만약 이 위협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면 불안은 점차 쌓이게 되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한다. 퍼스낼리티의 발달은 자아가 신경증적 및 도덕적 불안을 다루면서 형성된 적응력과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공포심과의 싸움은 심적 발달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때로는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의 성질을 특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성격의 발달과 방어기제

프로이트는 성격 발달의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정신적 결정론, 무의식의 중요성, 성적 에너지를 제시하였다.⁵⁸⁾ 그리고 인간의 발달 단계를 심리-성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 5 단계로 구분하였다.⁵⁹⁾ 1단계인 구강기(oral stage : 0~1세)는 성적인 에너지가 입 주변에 집중되는 시기로 손가락이나 젖꼭지를 빠는 행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한다.⁶⁰⁾ 2단계는 항문기

55) 현실적 불안(objective anxiety)은 화제가 나거나 거리의 불량배를 만날 때와 같은 현실적이며 외재적인 위협이 있을 때 생기는 불안을 말한다.

56)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은 이드와 예고의 갈등으로 발생한다. 이드는 충동을 발산하려고 하며, 예고는 충동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을 가하고자 한다.

57)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은 이드와 슈퍼에고의 갈등으로 일어난다. 이드의 충동이 사회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규준과 대립되므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며 발생하는 불안이다.

58)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이전의 행동이나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고,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과정보다는 무의식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가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된다고 간주하였다.

59) 임규혁·임웅, 『교육심리학』, 학지사, 2007, pp.60~61.

60) 젖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은 유아는 그만큼 애정체험으로 충분한 상태이므로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고, 각종 행동에 있어서도 유순함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인공수유나 이유 등으로 구순 욕구 충족이 좌절되거나 과도하게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구순 고착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후에 과식이나 과음, 과흡연 등과 같은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에 대한 의존 혹은 분노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구강기 성격의 예로는 수다스러운 성격, 이야기 중 항상 남의 아픈 부분을 꼬집어내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성격, 기분이 언짢

(anal stage : 2~3세)로 에너지가 구강에서 항문으로 이동하여 배설물의 보유나 방출을 통해 만족을 얻는 시기이다.⁶¹⁾ 3단계인 남근기(phallic stage : 3~5세)는 자신의 성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동성 부모와의 갈등을 겪게 되는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의 시기이다.⁶²⁾ 이 시기의 아동은 동성 부모의 도덕관을 내면화하게 되고 슈퍼에고가 형성된다.⁶³⁾ 4단계인 잠복기(6~12세)에는 잠깐 휴식 기간에 들어갔다⁶⁴⁾, 5단계인 생식기(13세 이후)에 다시 성적인 에너지가 활발해지는 과정을 겪는다.⁶⁵⁾ 이 시기에 이르면 이성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발달한 사람은 이타적이고 원숙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상적인 생식기적 성격발달을 위해서는 근면을 배워야 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켜야 하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진행되는 성적 성숙이나 신체적 발달로 지금까지의 아동기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흔들리게 됨으로써 새롭게 탄생하는 자기가 누구이며,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청년기에 풀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의 하나인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의 확립을 의미한다. 각 단계에서 지나친 만족이나 좌절은 그 단계에 고착 현상이나 이상 성격 형성의 원인이 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진력'과 '억제력'이 안정화되며, 이에 따라 퍼스낼리티는 보다 융통성 있고 질서 정연하며 시중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 좌절감과 불안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한 인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는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성숙과정, 외부적 부족 또는 기회 박탈로 인한 고통스러운 흥분과 긴장(외부적 좌절감), 내부적 갈등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긴장(cathexes와 anticathexes의 대결), 성격상의 부적격성, 불안이 그것이다. 성숙과정과 학습은 서로 협동작용에 의해 인격 발달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좌절감이란 기분 나쁜 긴장을 배설시키지 못했을 때 오는 현상이다.⁶⁶⁾

방어기제는 예고가 본능적 욕구인 이드와 슈퍼에고의 압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외계의

은 경우 무엇이든 먹고 싶어 하는 성격 등이다.

- 61) 대소변 훈련과 관련하여 너무 엄격하고 강압적인 경험을 하거나 너무 느슨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항문 고착 성격을 가지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검소하고 인색한 특성을 지니는 항문 강박적 성격으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는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으며 낭비벽이 있는 행동 특성을 지닌 항문 폭발적 성격으로 나타난다.
- 62) 여아의 경우에는 이성의 부모인 아버지에 대해 성적인 애착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라 부른다.
- 63) 남근기에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것은 성격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으로 해결되어야 정상적인 성인의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 병리를 야기한다. 아동의 도덕원리(양심)가 남근기에서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발달하기 때문이다. 남근기 고착은 남근기 성격으로 드러나는데, 이 남근기 성격은 무모하고 단호하고 자기 확신적이다. 지나친 자부심이나 지나친 자기만족 등 자기도취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거세 불안이 남아 있어서 친밀과 사랑을 두려워한다.
- 64)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거나 억제하여 사회의 규범에 맞추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버지의 권위상과 금지의 기제(양심)를 받아들여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을 버리고 현실 원칙(reality principle)을 따르게 됨으로써 사회적,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극복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경증이나 정신병질에 걸릴 수가 있으며 사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 65) 정서적 해방과 독립을 추구하는 심리적 이유(psychological weaning)의 시기와 겹친다.
- 66) 켈빈 S. 홀, 앞의 책, pp.133~135.

요구도 처리해야 할 때, 욕구 불만, 갈등, 정서 불안, 죄악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포, 불안, 분노 등의 긴장상태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성격 구조의 위기와 적응 행동의 파국으로부터 회피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본래의 목표를 다른 방법이나 목표로 치환시켜 이를 달성함으로써 에고의 심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적응기제라고 할 수 있다.⁶⁷⁾ 욕구불만의 해소라는 점에서는 일종의 적응기제이지만 비합리적 해결⁶⁸⁾, 비근본적 해결⁶⁹⁾, 현실 도피, 합리성이 결여된 부적응 행동을 만든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방어기제에는 억압, 투사, 반동 형성, 합리화 등이 있다.

억압(repression)은 모든 방어기제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방어기제라 할 수 있으며, 위협을 주는 충동이나 사상을 무의식적으로(자각을 넘어서) 대량 억제하는 것이다. 억압으로 인해 에고는 위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환상, 기억 등이 의식되는 것을 막아준다.⁷⁰⁾ '기억상실증'이 억압의 대표적인 예이다. 강간을 당했던 여성들 중에서 '기억상실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자신이 강간을 당했던 그 부분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이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억압한 결과이다. 그러나 외부로 표출되고자 하는 억압된 충동은 꿈이나 농담 또는 말의 실수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억압은 모든 신경증적 행동, 정신신체장애(예 : 위궤양), 성 장애(예 : 불감증)의 근본 원인이 된다.⁷¹⁾

투사(projection)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태도,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과정을 말한다.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귀인(歸因)시키는 것으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드의 충동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기제이다.⁷²⁾ 이러한 투사는 슈퍼에고가 열등감이나 증오의 감정 표출을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금지하기

67) 이재창 외, 앞의 책, p.65.

68)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 해결을 할 수 없다.

69) 해결이 심적 내면에서만 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가 없고, 현실로부터의 도피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이다.

70)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의 표현을 완전히 차단하여 개인에게 충동이 불쾌한 것으로 남아 있는 한 이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무서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억압 때문에 그 때의 경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다. 또한 아침에 지각한 학생은 자명종을 맞춰 놓고 잤는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재창 외, 앞의 책, p.65.

71) 억압이 심하게 되면 신체의 일부 기능마저 장애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화나는 일에 대해 표출을 하지 못하고 꼭 참고 있으면 이것이 자신의 관절 속으로 들어가 오래 반복되는 가운데 만성 관절염이 되거나, 억압된 생각이나 감정들이 호흡하는 계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식 증상을 일으킨다. 불안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숨이 얇고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 결과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잘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폐의 한 부분에 질식 현상이 생기고 호흡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현상이 오며 마침내는 천식 증상으로 나타난다. 공포심 때문에 소화가 오랫동안 안 되면 마침내 위궤양이 따라온다.

72)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욕구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의식하기에는 마음이 괴로우므로, 주관을 객관화하여 자기 감정을 남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는 기제이다. 이러한 투사는 자기의 결점을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은 시험문제가 분명하지 못하다거나, 다른 학생들이 컨닝을 했다거나, 교수가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기 실패의 원인을 전가한다. 또는 계모가 전실 자식에 대한 증오감을 투사하여 그들이 자기를 증오하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증오감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투사에 해당한다. 강한 성적 충동을 가진 여성이 오히려 “남자는 다 늑대다”라고 하며 두려워하거나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한다.” 혹은 “안되면 조상탓” 따위가 투사와 유사한 예이다. 내사(내사투사)의 경우는 “다 내 탓이야. 잘못된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데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의 전가가 지나칠 때는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⁷³⁾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은 무의식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생각, 욕구, 충동 등이 너무 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일 때 정반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기제이다.⁷⁴⁾ 이것은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받아들여질 수 없는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고, 그 충동과는 반대적 행동이 의식적 차원에서 표현되는 것이다.⁷⁵⁾

합리화(rationalization)는 자기 행동을 자아가 의식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럴 듯한 이유, 즉 가장 이치에 맞고 지적으로 합당하며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방어기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친구를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친구의 컨닝 행위를 교사에게 보고함으로써 자신은 친구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할 의무에 의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⁷⁶⁾ 사람들은 자존심이 손상 받을 위협에 처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려 한다. 합리화는 예고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이다.

동일시(identification)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상화하는 사람(부모, 친척, 유명인 따위)의 행동 태도, 속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⁷⁷⁾ 주로 외부적 대상이나 타인의 특징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섭입(攝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⁸⁾ 동일시의 동기가 되는 것은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좌절감, 부적절감 및 불안 등으로, 동일시의 목적은 이 좌절감, 부적절감 및 불안을 잘 조정하고 고통스러운 긴장을 배설하는 데 있다. 나르시시즘적 동일



것도 내 탓. 그 사람이 죽은 것도 내 탓”과 같은 예로 이런 생각은 ‘우울증’으로 변형될 우려가 있다. 반면 외사(외사투사)의 경우는 “다 네 탓이야. 다 저 사람 탓이야”와 같은 예로 이런 생각은 ‘편집증, 불안증’으로 그 증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재창 외, 앞의 책, p.66.

73) 이재창 외, 위의 책, p.66.

74) 예고는 때때로 반대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금지된 행동이 표출되는 것에서 자신을 조절하거나 방어하게 된다. 우리나라 속담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도 반동형성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기제의 전제는 사랑과 증오, 지배와 복종, 능동과 수동처럼 모든 본능이 서로 상반되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동 형성은 불안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반대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75) 이재창 외, 앞의 책, p.67.

76) 위의 책, p.66. 합리화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이솝우화의 ‘신포도와 여우의 이야기’이다. 포도가 먹고 싶은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갔는데 포도가 높은 곳에 달려 있어 따먹을 수 가 없었다. 다른 여우가 왜 따먹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포도가 너무 시어서 먹기 싫다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키가 작아서 따먹을 수 없다고 하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둘러댄 대답 이다. 그래서 합리화는 ‘신포도기제(sour grape mechanism)’라고도 불린다. “내가 누구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것은 순전히 그를 위해서다.” “일이 잘못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이때까지 내가 한 것은 최선의 것이었어.”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해.” 등도 합리화의 예로 볼 수 있다.

77) 동일시는 슈퍼예고가 형성되는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방어기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투사와 반대로 자신의 불안이나 부족감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바람직한 점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의존적이고 수동적일 성향이 많은 경우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자식의 출세에 성취감을 느끼는 부모의 경우, 남의 행동이나 모습 모방,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남들이 좋다는 것은 일단 해보는 것, 나를 이끌어주는 강한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 지는 것 등이 있고, 적대 동일시의 예로는 “욕하면서 배운다.”가 있다.

78) 켈빈 S. 홀, 앞의 책, p.136. 양심(conscience)의 발달에 있어서 유아기에서는 주로 꾸지람을 들으면 무섭기 때문이라고 하는 단순한 공포감이나 타산적인 동기에 의해서 부모의 언행을 모방함으로써 양심의 싹이 트이지만, 소년기가 되면 유아기에서 섭취된 것 외에도 양심의 가책이 수반한 윤리감에 의해서 더욱 뚜렷한 양심이 형성된다.

시는 자기와 꼭 닮은 대상을 발견하고 자기애적인 카텍시스(자기 사랑)가 뺏어나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타인에게 나르시시즘을 확인하는 형태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동일시는 본인이 바라는 목표에 이르고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를 본뜨는 것이다. 대상 상실의 동일시는 카텍시스된 대상을 상실했거나 가질 수 없는 경우 자신을 마치 자신이 원하는 카텍시스의 대상처럼 만들어 버림으로써 어떤 보상심리를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격자에의 동일시는 권위체가 금지한 것을 섭입하는 것이다.⁷⁹⁾

대치(displacement)는 어떤 대상의 전체가 부분에 의해서 표현되거나, 반대로 부분이 전체에 의해서 표현되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그것과 감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것으로 치환되는 것이다.⁸⁰⁾ 갈등을 풀기 위해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충동과 목적은 같지만 대상은 바뀐다. 원래 상황에서 느꼈던 분노나 슬픔,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등이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야 다른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올바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대상을 바꾸거나 다른 상황에서 표출되어, 적절치 못한 감정방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증상이 심할 경우에 강박증이나 공포증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⁸¹⁾

퇴행(regression)은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 해결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욕구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그 해결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의 성장 시기보다 어린 시절의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한다.⁸²⁾ 이 기제는 현실 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쾌락원리 하에서 행동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심리이다.

부정(denial)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 일어났던 위협적이거나 외상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다.⁸³⁾

행동화(acting out)는 행동으로 실행한 이후의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욕구나 소망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충족시키는 방어기제이다. 이때의 행동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충동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지나칠 경우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비행'의 가능성 있을 수 있다.

79) 위의 책, pp.136~144 참조.

80) 환치 또는 전치라고도 함. 부분이 전체를 상징적으로 치환한 경우의 예로는 한 여자가 곱슬머리를 가진 남자와 불유쾌한 경험을 하고 나서, 모든 곱슬머리의 남자에게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또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집의 개를 눌러 줌으로써 어떤 만족을 얻고 증오의 감정을 해소시키려는 기제도 대치에 해당된다. 이재창 외, 앞의 책, p.69.

81) 자식을 못 가진 사람이 애완동물에 집착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밖에서 화난 일을 집에 와서 그 화풀이를 하는 경우나 일이 안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 사랑하는 이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다른 이를 바로 사귀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

82) 대소변 가리기가 끝난 5살 된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자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바지를 적시거나 손가락을 빠는 행위 등은 항문이나 구강기로 퇴행한 경우이다. 이러한 퇴행은 성인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잘 적응하던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어린아이처럼 관심을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그 예이다. 이재창 외, 앞의 책, p.69.

83) 불치병에 걸려 3개월밖에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미래의 계획을 화려하게 세우는 환자에게서 부정의 방어기제를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계속 믿지 않으려 하는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나 잠시 외국에 갔다고 생각하거나 “내 자식은 그럴 리 없다.” “모르는 게 약이다.” 등도 부정의 예에 해당된다.

수동 공격적 행동(passive-agreessive behavior)은 공격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실수나 꾸물거리는 행동, 묵묵부답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어기제이다.⁸⁴⁾

해리(dissociation)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인격이나 자아 정체성이 일시적으로 극적인 의식의 변형을 일으키는 방어기제이다.⁸⁵⁾

신체화(somatization)는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되어 신체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갈등장면은 회피하면서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⁸⁶⁾

보상(compensation)은 자신의 실제 혹은 상상의 결점과 열등감을 실제나 상상의 우월감으로 채우려는 것이다.⁸⁷⁾

에너지가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전이(轉移)라고 한다. 인격의 발달은 대량의 에너지 전이 또는 대상 대치의 연속을 통해 진행된다. 에너지가 전이된다고 해도 본능의 원천과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본능의 목표는 긴장의 해소에 있다. 젓먹이들은 젓 빠는 것부터 시작해 손가락 빨기, 물어뜯기 등을 통해 입술의 자극을 원하는데 이러한 쾌락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능적 원천에서 에너지를 받고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들에 에너지가 합류하는 것을 '본능의 융합'이라고 한다. 어른들의 취미 활동은 여러 동기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복합 결정'이라고 한다. 본능의 융합과 복합 결정은 '응축'을 이룬다. 여러 가지 본능이 하나의 대상에 모여졌다는 것은 에너지 원(源)의 응축 현상이다. 가령 정원 가꾸기나 모형 비행기 만들기 등의 취미는 맑건 적건 간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긴장들을 동시에 해소해 준다.⁸⁸⁾

전이가 일어나는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첫째, 사회의 전통과 관습이다. 사회는 어떤 대상만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것은 금지함으로써 전이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요소는 원래의 대상과 대체된 대상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의 정도이다. 본래 대상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대상들이 서로 동일시되는 정도를 말한다. 만약 첫째 방법으로 긴장 해소를 금지 당하면 사람들은 그와 아주 유사한 방법을 찾으려 한다. 본래 대상에서 대체된 대상이 계속해서 옮겨갈 경우, 나중에는 애당초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대체된 대상은 본래의 선택에 비해 긴장 해소의 측면에서 불충분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예고는 최종 선택을 하기까지 이드와 슈퍼에고 및 외부 세계의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을 시도한다.⁸⁹⁾

전이가 일어났을 때 대체된 대상이 보다 높은 문화적 목적을 표방할 경우 이때의 전이를 승화

84) 그 예로 누가 일을 시키면 바쁘척한다거나 화가 날 때 똥하니 말을 안 하는 것, 누가 일을 재촉하면 더 꾸물거린다거나 화가 나면 상대방을 은근히 골탕먹이는 것,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일부러 일을 망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85) 힘든 일에 부딪치면 멍해지거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것, 복잡한 일이 생기면 정신이 혼란해져 엉뚱해지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86)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기분 안 좋을 때 체증을 앓는 다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몸부터 아픈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87) 키 작은 사람이 공격성을 가지는 경우(나폴레옹 콤플렉스)가 보상의 방어기제에 해당한다. 속담으로 "작은 고추가 맵다"를 예로 들 수 있다.

88) 칼빈 S. 홀, 앞의 책, pp.144~147 참조.

89) 위의 책, pp.147~150 참조.

(sublimation)라고 부른다. 방어기제 중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기제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성적, 공격적 본능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용하고도 승인될 수 있도록 변형을 이루어 만족시키는 일종의 전위(displacement)라고 할 수 있다. 전이가 그렇듯 승화도 본능의 에너지 원천과 목표는 같다. 다만 성적, 본능적 에너지를 지적, 인간적, 문화적, 예술적 에너지로 변형하여 추구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⁹⁰⁾ 훌륭한 예술품이 탄생하는 배경도 본능의 갈망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승화는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인류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간이 원시적 대상선택을 억압하고 승화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⁹¹⁾

성격 발달에 있어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에너지를 전이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에너지가 전이되지 않는다면 인성의 발달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드에서 에고, 에고에서 슈퍼에고로 에너지가 전이될 때 인성 발달과 함께 성격도 발달한다.

2. 인물의 행동과 성격 분석

이제 작중인물의 행동 특성을 정신분석 방법과 구조주의 방법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 드러난 성격 요소 중에서 지배적인 성향을 추출하고자 한다.

소설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인물이며 주인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 이유는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 변화에 따라 소설의 의미와 주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소설의 인물 성격 분석은 주인공 위주로 하되, 성격 특성이 두드러지거나 성격의 변화가 주제형상화에 기여하는 주변 인물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분석할 성장소설은 6편⁹²⁾이며, 주요 작중인물은 19명이다. 김유정의 「봄·봄」,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은 단편소설이고, 윤홍길의 「장마」는 중편소설이다. 신경숙의 『외딴방』과 이순원의 『19세』는 장편소설이다. 단편소설 3편을 먼저 분석한 뒤에, 중편과 장편을 분석하려고 한다. 총 6편의 성장소설의 등장인물 중 분석 대상 작중인물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90)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해치기보다는 군인이 되는 것, 아버지에 대한 의존심을 종교로 만족하는 것, 타인에 대한 공격 성향이 권투선수가 되어 훌륭한 시합을 하는 것, 향문기의 욕망에 탐닉하기 보다는 배관공이 되는 것이다. 성을 스포츠의 형식으로, 성적 욕구를 문학과 예술의 형식으로 변형시키는 비성화(desexualization)의 기제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재창 외, 앞의 책, pp.67~68.

91) 켈빈 S. 홀, 앞의 책, p.182.

92) 국어 I에는 총 11종 중 지학사(봄·봄), 창비(중국인 거리), 해냄에듀(19세, 봄.봄) 등 3종에서만 보이고, 국어 II에는 총 11종 중 비상교육(봄.봄), 두산동아(장마) 2종에서만 수록되었다. 그리고 문학에는 총 11종 중 좋은 책 신사고(우상의 눈물), 비상교육(외딴방) 2종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나 국어 I의 8개종과 국어 II의 9개종, 문학의 9개종 등과 화법과 작문 총 4개종과 독서와 문법 총 6개종, 고전 3개종 등에서는 단 한 편도 수록하지 않았다.

〈표 1〉 분석 대상 성장소설 및 주요 작중인물

도서명	출판사	작품	주요 작중인물
국어 I	지학사	김유정, 「봄·봄」	나, 장인, 점순
	해냄에듀		
국어 II	비상교육		
국어 I	창비	오정희, 「중국인 거리」	나, 치옥, 할머니,
국어 I	해냄에듀	이순원, 『19세』	나, 아버지, 승태, 형
국어 II	두산동아	윤흥길, 「장마」	나, 친할머니, 외할머니
문학	좋은 책 신사고	전상국, 「우상의 눈물」	임형우, 최기표, 나, 담임
문학	비상교육	신경숙, 『외딴방』	나, 큰오빠, 희재 언니

이 연구에서는 작중인물의 성격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텍스트를 최소사건으로 나누어 패러프레이즈한 뒤, 그것을 다시 시퀀스(sequence)로 묶어서 주요 행동의 흐름을 요약하는 과정을 따른다. 그런 연후에 최소사건별로 인물의 행동 변이를 추론하고 행동의 특성을 III장 1절에서 제시한 프로이트의 퍼스널리티 이론에 입각하여 소설의 전체 구조 속에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인물의 심리적 행동 특성은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의 흐름으로 포착되는데, 작품 속의 인물들은 복잡한 갈등 양상 안에서 그들의 성격에 따라 쾌락의 원리나 현실의 원리, 도덕의 원리 등을 다양하게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능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에 실제의 행동에서 어느 기능이 주된 역할을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격적 요인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소사건마다 작중인물의 정신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한 뒤에 작품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지배적 성격유형을 밝혀냄으로써, 성격의 지나친 일반화와 객관화가 물고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기서 지배적이라 함은 주제 형성이나 성격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서 서술 분량이 짧아도 주제나 성격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

1) 「봄·봄」

「봄·봄」⁹³⁾은 김유정이 1935년 『조광』 2호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제목인 '봄·봄'은 사건이 전개되는 계절적 배경이면서 주인공 '나'가 이성에 눈을 뜨게 되는 상징적 장치로 작용한다.

93) 조현설 외 30인, 고등학교 국어 I, 해냄에듀, 2014.

이삼형 외 6인, 고등학교 국어 I, 지학사, 2014.

한철우 외 10인, 고등학교 국어 II, 비상교육, 2014.

김유정, 「봄·봄」, 『20세기 한국소설 05』, 창비, 2013. (위의 교과서 속에는 작품의 일부분만 실려 있어 이 책을 텍스트로 삼음)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나'와 '장인'의 '갈등과 화해'라는 구조의 순환을 상징하기도 한다. 우직하고 순진한 '나'와 교활한 장인의 행동은 웃음을 짓게 만들지만 이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의식이 숨어 있다. 1930년대는 '지주-마름-소작인'의 지배 구조가 형성되었던 시기로 극심한 빈곤과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시달렸던 우리 농촌은 농민의 80%가 소작인이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친일 지주들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마름을 두어 소작인들을 혹독하게 수탈하였다. 따라서 마름인 '장인'은 강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나'에게 자신의 딸 '점순'과의 결혼을 빌미로 임금도 주지 않고 고된 일을 시킨다. '나'가 구장에게 아무리 중재를 요청해도 구장 역시 장인의 편이다. 소작인인 구장이 비록 마을의 어른이고 지식인이라 해도 마름인 장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농촌에서 마름이라는 강자가 머슴이라는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심각한 수탈의 상황을 '데릴사위'라는 소재를 통해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간의 갈등이 주제를 형성한다.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19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5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의 시퀀스〉

1. 성례시켜 달라는 나의 요구와 장인의 묵살 (나의 성례 요구)
2. 잘못된 계약에 대한 나의 인식과 불만 (나의 불만)
3. 점순이의 키를 자라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 (나의 노력)
4. 농사일에 대한 의욕 상실 (의욕 상실)
5. 나의 피병과 장인의 반응 (장인의 반응)
6. 마을에서 인심을 잃은 장인의 바르지 못한 행실 (장인의 못된 행실)
7. 농번기에 큰소리 칠 수 없는 장인의 입장 (장인의 입장)
8. 나의 반발과 장인의 변명 (장인의 변명)

〈점순이의 첫 번째 충동질 시퀀스〉

9. 자라지 않는 점순이의 키로 인한 나의 울화 (나의 울화)
10. 나의 아내가 되기에 딱 좋은 점순이의 외모 (점순이의 외모)
11. 점순이의 첫 번째 충동질 (충동질 1)
12. 장인의 부탁을 받고 나를 회유하는 구장 (구장의 회유)

〈점순이의 두 번째 충동질 시퀀스〉

13. 오늘 내가 장인과 싸운 이유 (장인과 싸운 이유)
14. 어젯밤에 들은 뭇태의 비난 (뭇태의 비난)
15. 아침상을 들고 들어온 점순이의 두 번째 충동질 (충동질 2)

〈화해의 시퀀스〉

16. 피병을 부림 (나의 피병)
17. 서로의 급소를 공격하며 싸우는 장인과 나 (나와 장인의 싸움)
18. 가을에 성례시켜준다는 장인의 말을 듣고 일터로 가는 나 (장인의 속임수)

〈대립과 갈등의 시퀀스〉

19. 장인 편을 드는 점순이의 태도에 당황한 나 (당황한 나)

역순행적 구성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야기를 사건의 발생 시간 순서로 재배열하면 장인이 '나'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두 사람이 화해하는 장면은 결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내용상 절정인 19번 최소사건을 뒤에 두고 결말인 18번 최소사건을 앞에 배치하여 역순으로 구성한 것은 절정 부분을 소설의 종결부분에 제시하여 긴장감과 해학성을 높이고 여운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적극적이고 야무진 점순이의 충동질에 의하여 장인과 '나'의 대립과 갈등은 반복되고, 결국 장인의 성례 약속으로 겉으로는 화해를 이루는 듯 보이지만 갈등의 궁극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내년 봄에도 유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것으로 암시된다.

이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행동 분석을 통하여 성격의 심리적 특성과 그 생성과정을 살펴볼 때 주요 인물은 '나', '장인', '점순' 등이다.

(1) '나'의 행동과 성격

최소사건1에서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 라는 장인의 목살에 3년 7개월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일한 '나'는 뒤통수를 긁는다. 이렇게 점순이가 더 자라야 한다는 장인의 말에 어리벉벉해지는 우직한 '나'의 모습은 장인의 말을 끝이곧대로 믿는 순박한 성격임을 보여준다. 인간의 정신에너지는 원래 이드에 있으나 에고에 의해 억제되고 조절될 수 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점순이와 하루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이드에서 에고로 흘러가 욕구 충족을 연기한다. 이드적 성격이 강하다면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일만 시키는 점순이네 집에서 밤낮 일만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최소사건2에 와서 계약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만 때가 되면 장인님이 알아서 성례를 시켜주겠거니 믿고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을 하는 '나'의 모습 역시 에고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드의 추진력과 에고의 억제력 사이의 갈등에서 억제력이 추진력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최소사건3,4에서도 '나'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에고에 머무른다.

최소사건5에 오면 결국 '나'는 배가 아프다고 쓰러진다. 이렇게 자기의 목표를 위하여 피병을 부리는 장면 역시 에고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행동은 '수동 공격적 행동'으로 공격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실수나 꾸물거리는 행동, 묵묵부답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어기제이다. 배가 아프다고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장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최소사건7에서 '나'는 장인을 때려눕히고 고향으로 도망가 버릴까도 생각해 보지만 장가를 들러 갔다가 쫓겨 온 못난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는 싫었다. 사나이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또 참고 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예고에 머무른다. 여기서 '나'는 '자기 합리화'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 합리화'란 자기 행동을 예고가 의식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 즉 가장 이치에 맞고 지적으로 합당하며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방어기제를 말한다.

최소사건 8에서 '나'는 밤낮 부러먹는 장인에게 집에 갈 테니 사경을 내라며 반항한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로 흘러간다. 최소사건 9에서 '나'는 자라지 않는 점순이의 키를 보고 화가 난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이드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10에서는 점순이에 대한 '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점순이가 풀밭에 떨어뜨린 흙투성이 밥을 으적으적 먹는 '나'의 모습에서는 자신이 밥을 안 먹으면 점순이가 무안해 할까 걱정하는 마음, 나아가서는 점순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 11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점순이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 쫓알거린다거나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는 부분에서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도 점순이가 성례할 만큼 자랐다고 느끼며 기뻐한다. 이 부분에서도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 머물러 있다. 결국 장인과 함께 구장을 찾아가지만 구장 역시 소작인 처지인지라 장인의 부탁을 받고 '나'를 회유한다. 남의 농사를 망치면 징역을 간다는 구장의 말과 올 가을엔 꼭 성례시켜준다는 장인의 약속을 듣고 또 별 소득 없이 돌아오고 만 것이다. 그러나 최소사건12에서는 '나'도 장인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이드적 모습을 보이고 만다.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옐 낳지유?(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귀때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꺽꺽 웃더니(그러나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훑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콕 떠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끈하고 싸리문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라웠다. (301~302쪽)

이렇게 구장의 회유로 참아왔던 '나'는 최소사건13, 14에서 몽태의 충동질에도 잘 참는다. 정신에너지가 이드에서 예고로 흘러들어와 추진력이 억제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소사건15에서 오늘 아침까지 잘 참아온 '나'에게 점순이는 다시 핀잔을 준다. 점순이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나'는 더없이 속이 상하고 만다. 점순이가 '나'를 병신으로 본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나'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이드로 유입되고

결국 마당에 드러눕는다.

사실 이때만큼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 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3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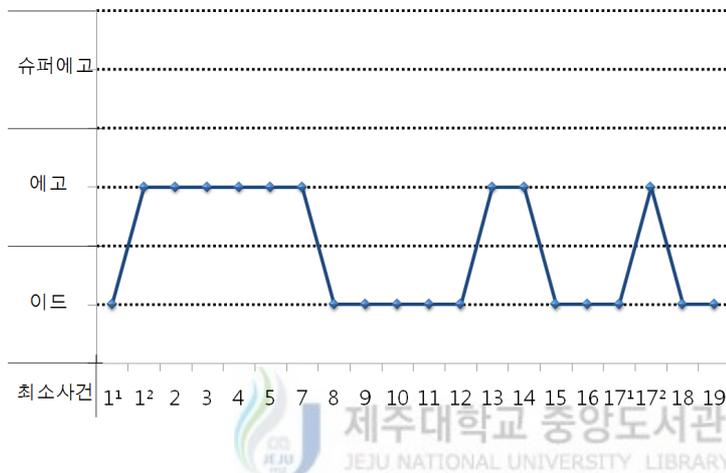
최소사건16에서 결국 '나'는 점순이의 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장인과 사투를 벌인다. 최소사건17에서 점순이가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엿보는 것을 의식한 '나'는 지게막대기로 허리를 짚어 넘기고 밭길로 옆구리를 차는가 하면 불기를 후려갈기는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다. 이 부분은 '나'의 이드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매 맞는 꼴을 보면 점순이가 자기를 바보로 알까봐 일부러 그러는 면도 있다. 점순이 앞에서만은 든든한 남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후에 아들 앞에서 바보라는 별명을 들을 바에는 일을 안 해서 징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는 '나'의 고백은 '나'가 자존심이 강한 예고적 성격임을 증명한다. 최소사건17에서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서 예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19에서 장인이 내일이라도 성례시켜 준다는 약속만 했더라면 장인과의 몸싸움을 그만 두려했던 '나'는 지게막대기로 어깨를 내리갈기는 장인 앞에서 맞고만 있을 수 없어 나름대로 정당방위를 한 것이었는데, 사태는 점점 커지고 급기야 점순이마저 장인이 부르는 소리에 달려 나와서는 '나'의 귀를 잡아당기며 장인 편을 드는 태도에 무척 당황한다. 점순이의 예상 밖 행동에 기운이 꺾이고 당황한 것이다. 점순이가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하지만 부모 앞에서 어떻게 '나'의 편을 들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만 생각하고 들은 모르는 너무나도 순진한 '나'의 생각을 보면 정신에너지가 예고에서 이드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최소사건18은 결말이지만 최소사건19보다 앞에 배치된다. 이 작품이 역순행적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친 상처를 손수 치료해주고 호주머니에 담배까지 넣어주며 “올 가을엔 성례를 시켜 줄 테니 얼른 가서 콩밭이나 갈라”며 등을 두드려주는 장인의 말에 감격하여 눈물까지 흘리는 '나'는 바보스럽다. '나'를 회유하기 위한 장인의 계책임을 모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세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겠지만 장인은 내쫓지 않아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아직도 '나'가 장인의 성격을 모른다는 뜻이다. 장인은 돈이 아까운 것이다. 올 가을에 성례시켜준다고 했으나 아마 어렵지 않을까? 가을이 되면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안 자랐다고 성례를 또 미룰 것이다. '나'를 회유하기 위한 장인의 계책에 넘어가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 순진하다. 순진함을 넘어서 어리석기까지 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부려먹으려는 장인의 의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오히려 고마워하며 감격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장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함은 이 부분에서 극에 달한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19에서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도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숨으로 손수 지져 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 어유." /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라사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308쪽)

〈그림 1〉 ‘나’의 성격



위의 그림⁹⁴⁾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정신에너지는 18개의 최소사건⁹⁵⁾ 중 10개의 최소사건에서 는 이드에 머물러 있고 8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에고로 유입된다. 따라서 ‘나’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2) ‘점순’의 행동과 성격

점순이는 활달한 소녀이다. 최소사건11에서 점순이는 나를 충동질한다. 밤낮 일만 하고 ‘장인’에게 늘 당하면서도 숙맥같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나’에게 당당하게 성례시켜달라고 말을 하라고 쏘아붙인다. 그녀는 당차고 야무지다. ‘나’보다 열 살이나 어리지만 정신적으로는 ‘나’보다 더 성숙하다. 그러나 그렇게 쏘아붙이고 나서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뛰어가 버리는 점순이는 소녀로서 이성애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다. 점순이의 정신에너지는 ‘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드에서 이성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에고로 흘러가고 있다.

최소사건15에 오면 점순이는 다시 ‘나’에게 편잔을 준다. ‘나’가 ‘장인’과 함께 구장을 찾아갔다

94) 인물의 정신에너지의 흐름을 내포한 핵심 사건을 추적하는 이러한 행동 특성 분석 방식은 이야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그래프 표상 형식은 안성수의 강의록에서 인용하였으며, 그의 앞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95) 여기서 1¹, 1², 17¹, 17²는 최소사건1, 17의 내부에서 ‘나’의 정신에너지의 역동적 이동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했다.

고 했을 때 점순이는 내심 이번에는 성례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온 '나'를 보고 실망한 점순이는 '나'가 야속하기도 하고 바보 같다고 느꼈을 것이다.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라며 아침상을 들고 온 점순이는 다시 '나'를 충동질한다.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라고 말하는 점순이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이드로 흘러간다. 그러나 다시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에서 점순이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예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17에서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장인'과 몸싸움 벌이는 '나'를 계속 엿보고 있던 점순이는 또 다시 기대를 한다. 그녀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이드로 흘러가지만 최소사건19에서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 나와 '나'의 귀를 잡아당기며 운다. 점순이는 '나'와의 혼인을 원하지만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나'와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함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점순이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예고로 흘러간다.

〈그림 2〉 '점순'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점순'의 정신에너지는 4개의 최소사건(96) 중 2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로 머물러 있고, 2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예고로 흘러간다. 따라서 '점순'이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예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3) '장인'의 행동과 성격

'장인'은 혼인을 미끼로 '나'를 부려먹는 교활한 인물이다. 첫째 딸이 열 살 때부터 열아홉 살까지 10년 동안 데릴사위를 14명 알아들였고, 둘째딸 점순이의 데릴사위로서도 '나'가 세 번째이다. 그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며 체면치레를 좋아하는 인물이다. 동네에서는 욕을 잘 해서 '욕필이'로 불린다.

최소사건1과 2에서 성례시켜달라는 '나'의 요구에 3년 7개월 동안 '나'를 부려먹고도 '장인'은

96) 여기서 11¹, 11², 15¹, 15²는 최소사건11과 15의 내부에서 '점순이'의 정신에너지의 역동적 이동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 라며 ‘나’의 말을 묵살한다. 이런 장면에서 ‘장인’이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장차 사위될 사람을 보고 ‘이 자식 저 자식’이란 표현을 쓰는 부분에서는 그의 정신에너지가 이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최소사건5에서 아프다는 ‘나’의 떡살을 잡고 뺨을 치며 욕설하는 ‘장인’의 모습은 매우 이기적이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장인’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 그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6은 마을에서 인심을 잃은 ‘장인’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손버릇이 못된 데다가 욕 잘하고, 욕심이 많아 뇌물을 좋아하는 모습은 그의 정신에너지가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최소사건7에서 ‘나’는 농번기라서 ‘장인’이 큰 소리 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과 달리 ‘장인’은 매우 교활한 인물이다. 작년 봄에도 ‘나’가 늦잠을 잔다고 밭목을 빼게 했다. ‘나’가 일을 안 하고 사나흘을 앓았더니 가을에 성례시켜 준다고 꼬드겨 부러 먹다가 가을이 되니 다시 점순이의 키를 핑계 삼아 또 미뤘다. 최소사건8에서도 ‘나’가 집에 가겠다고 세경을 내놓으라고 하자 너는 머슴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사위로 왔다고 변명한다. 이렇게 ‘장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매일 속인다. 이는 ‘장인’의 정신에너지가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드는 본능적 욕구를 즉각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만족시키려하고 쾌락원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최소사건12에서는 ‘장인’의 허세가 드러난다. ‘장인’은 돈 많은 마름으로, 체면을 중시하며 양반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허세가 많은 ‘장인’의 성품은 순진하고 우직한 ‘나’의 성격과 대조되어 ‘나’의 순수한 성품을 더욱 부각시킨다. ‘허세’라는 방어기제는 자신의 결점이나 무의식적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남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말한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행동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과시하고 특히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타인지향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장인’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서 흘러나와 예고에 머물러 있다가 데릴사위인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부분에서 다시 이드로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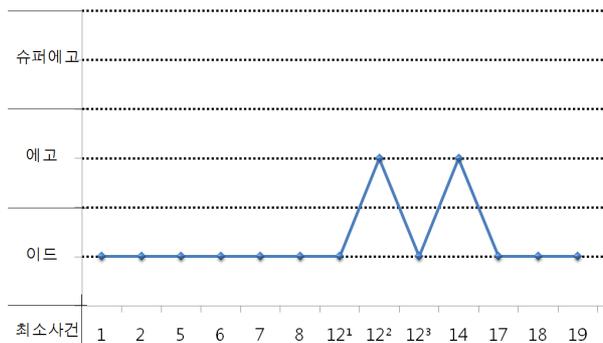
최소사건14에는 어젯밤에 몽태네 집에서 들은 이야기가 나온다. ‘장인’은 맏딸이 열 살 때부터 열아홉, 즉 10년 동안 데릴사위를 열 네 명이나 갈아치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둘째딸 점순이의 세 번째 데릴사위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장인’이 얼마나 인색하고 자린고비인지, 그리고 욕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다. ‘장인’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서 예고로 왔다 갔다 한다.

최소사건17에서 ‘장인’은 아프다는 ‘나’를 지게막대기로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하였다. 밭길로 옆구리를 차고 불기 짝을 후리고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나’와 몸싸움을 벌인다. ‘장인’은 ‘나’를 사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인의 행동은 ‘나’의 바보스러움과 순진함을 이용하여 품삯을 안들이고 농사를 지으려는 속셈이라는 점에서 그의 정신에너지가 이드에 머물러 있음을 증명한다.

최소사건19에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나’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어 장모님과 점순이를 불러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다시 때리는 장면에서도 ‘장인’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소사건18에서 '장인'은 '나'를 계속 부러먹기 위하여 터진 머리를 손수 지져주고, 담배도 주머니에 넣어준다.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준다고 순진한 '나'를 달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성이나 윤리의식, 도덕성이 없는 그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장인'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장인'의 정신에너지는 11개의 최소사건⁹⁷⁾ 중 9.6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장인'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2) 「중국인 거리」

「중국인 거리」⁹⁸⁾는 1979년 『문학과 지성』 봄 호에 발표된 오정희의 단편소설이다. 작품의 무대가 된 인천의 중국인 거리는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며, 전쟁의 참담한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작품은 화자 '나'의 시점을 통해 황폐한 중국인 거리의 삶과 그 속에서 성장해가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그렸다. 작가는 회상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10대 소녀의 감수성을 통해 중국인 거리에서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낸다.

'나의 가족은 피난지에서 아버지의 일자리를 따라 항구도시 인천 외곽에 있는 중국인 거리로 이주한다. 소설의 도입에는 '나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낯선 중국인 거리의 풍경이 해인초 냄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 중국인 거리에서 '나는 양갈보인 매기 언니를 보기 위해 매일 아침 치욕을 부르러 간다. '나는 그렇게 치욕과 함께 매기 언니의 방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한다. 그런 '나의 눈에 우연히 건너편 이층집 중국인 남자의 얼굴이 들어온다. 그를 통해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비애를 경험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나의 성장의 조짐이

97) 여기서 12¹, 12², 12³은 최소사건12의 내부에서 '장인'의 정신에너지의 역동적 이동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98) 문명진 외 8인, 고등학교 국어 I, 창비, 2014.

오정희, 「중국인 거리」, 『20세기 한국소설 33』, 창비, 2013.(위의 교과서 속에는 작품의 일부뿐만 실려 있어서 이 책을 텍스트로 삼음)

된다. 작가는 그러한 주인공의 성장의 과정에 고양이와 매기 언니, 할머니의 죽음을 배치한다.

어느 날 ‘나’는 미군 병사들이 칼을 던져 도둑고양이를 죽이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바로 그날 밤 매기 언니와 같이 살던 흑인이 술에 취해 매기 언니를 집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로 인해 매기 언니는 죽게 된다. 그리고 뒤이어 할머니가 쓰러지고,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러한 일련의 죽음을 경험한 ‘나’는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동강난 비취반지를 맥아더 장군 동상 근처에 묻고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이렇듯 통과제의를 거치며 어른이 되어가는 소녀의 모습은 소설의 말미에서 초경을 겪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12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3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일련의 죽음을 경험한 ‘나’가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냄새의 시퀀스〉

1. 중국인 거리에 사는 우리들은 화차에서 석탄을 훔쳐 간식과 바꿔 먹으며 지낸다.(훔침)
2. 3학년이 된 나는 치옥이와 함께하는 하룻길에서 노란 빛의 회오리 속에서 메스꺼움을 느낀다.(노란빛의 메스꺼움)
3. 아버지가 취직이 되고 지난 해 봄 우리 가족은 중국인 거리로 이사 온다.(이사)
4. 이사 오던 날, 해인초 냄새를 맡고 노란 빛의 혼미 속에 빠져 들며 중국인 젊은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본다. (중국인 젊은 남자)

〈호기심의 시퀀스〉

5. 중국인은 우리에게 상상과 호기심의 대상이다. (호기심)
6. 매기 언니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본 중국인 젊은 남자의 얼굴에서 나는 슬픔을 느낀다. (슬픔의 경험)
7. 그 젊은 남자의 시선은 여러 곳에서 나와 자주 마주친다. (젊은 남자)
8. 할머니는 제니를 짐승의 새끼라 한다. (제니)

〈죽음과 성장의 시퀀스〉

9. 미군 병사에 의해 죽은 고양이를 메고 갈 때도 젊은 남자의 시선을 본다. (고양이의 죽음)
10. 국제결혼을 해주기로 약속했던 검둥이는 매기를 죽인다. 제니는 고아원으로 보내진다. (매기의 죽음)
11. 할머니의 죽음으로 나는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할머니의 죽음)
12. 엄마는 죽음과도 같은 8번째 출산을 하고, 나는 초조를 경험한다. (엄마의 출산과 나의 초조)

‘중국인 거리’는 ‘나’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이주한 곳으로, 낯설고 새로운 공간이다. ‘나’는 이 공간에서 자라면서 매기 언니의 죽음과 할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출산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식을 확장해 가고 급기야는 초경을 경험함으로써 주인공인 '나'의 정신과 육체는 성숙의 길로 나아간다.

이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행동분석을 통하여 성격의 심리적 특성과 그 생성과정을 살펴보게 될 주요인물은 '나', '치옥', '할머니' 등이다.

(1) '나'의 행동과 성격

'나'는 이 소설의 화자로 아홉 살에서부터 열세 살까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새로 이주한 중국인 거리를 배경으로 성장의 아픔을 겪어간다. 최소사건1에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석탄을 훔쳐 간식으로 바꾸어 먹는다. 최소사건2에서 '나'는 해인초 냄새로 메스꺼움을 느낀다. 최소사건3에서는 지난해 봄 우리가 이 거리로 이사 오는 날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그 본고장인 이드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4에서 호기심과 기대로 바라본 도시는 시골에서 꿈꾸어오던 모습과는 달랐다. 거리는 초라하고 지저분했으며 어수선한 활기에 차 있었다. 지난밤 떠난 시골과는 모든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이사를 온 것일까, 낯선 곳에 온 것일까 등을 상상하며 이상한 혼란에 빠졌다. 아홉 살배기 버짐 투성이 계집애인 '나'는 동생을 업고 안절부절못하는 심사로 새로 이사 온 동네를 둘러본다. 최소사건5에서 '나'는 일곱 번째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해 아침마다 굴을 사러 간다. 부두로 가는 길에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중국인들의 문 앞을 달음박질한다. 이렇게 최소사건1~5에서 '나'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이드에 머물러 있다.

'나가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는 우연히 건너편 이층집 창문에서 중국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장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비애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때 '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둡고 슬픈 시선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의 창백한 표정에 담긴 욕망의 시선이 '나'의 내부에서 움트고 있던 욕망을 일깨워준다. 이것은 최소사건4에서부터이다. '나'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 이러한 역동적인 욕망의 움직임은 양공주 매기 언니와 할머니의 죽음을 거치면서 성장의 고뇌로 성숙하고 있다.99)

최소사건6에서 '나'는 치옥이네 이층에 세 들어 사는 양갈보 매기 언니에게 호기심을 가진다. 치옥이가 자기네 집에서 함께 숙제하자고 잡아끌 때 '나'는 맞은편의 우리 집을 흘깃거리며 망설였다. 이는 천하 망종인 양갈보네 집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과 매기에 대한 호기심 즉, 예고와 이드 사이의 갈등으로 보인다. 여기서 '나'는 이드를 따른다. 검둥이가 싫어한다며 학교 갈 때는 길에서 부르라는 치옥이의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아침 뼈격대는 층계를 밟고 올라가 매기 언니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치옥이를 부른다. 매기 언니의 방에서는 무엇이든 신기했고, 무엇이든 비밀이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이드에 머물러 있다.

손끝도 발끝도 저리듯 나른히 맥이 풀려 왔다. 눈꺼풀이 무겁고 숨이 차오는 건 방안이 너무

99) 박정윤, 「오정희 소설의 상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어둡기 때문일까, 숨을 내쉴 때마다 박하 냄새가 하얗게 뿜어져 나왔다. 나는 베란다로 통한 유리 문의 커튼을 열었다. 노오란 햇빛이 다글다글 끓으며 들어와 먼지를 떠올려 방안은 온실과도 같았다. 나는 문의 쇠 장식에 달아오른 뺨을 대며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중국인 거리의 이층집 열린 덧문과 이권을 보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자 알지 못할 슬픔이, 비애라고나 말해야 할 아픔이 가슴에서부터 파상(波狀)을 이루며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54~55쪽)

한편 최소사건7에서 '나'는 머리를 잘못 자른 이발사에게 "죽을 때까지 이발쟁이나 해요."라고 말할 정도로 당찬 구석이 있는 인물이다. 어리지만 자기가 할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릴 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러나 곧 달음질쳐 골방으로 숨어 들어간다. 골방은 폐쇄된 곳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은 현실의 충격과 공포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며, '나'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나'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나'의 정신에너지는 예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8에서 '나'는 양갈보가 되겠다는 치옥이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친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의붓자식이었기를, 그래서 맘대로 나가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기에 치옥이를 진심으로 부러워한다. 어머니를 계모라고 말하는 '나'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는 도덕도 논리적인 사고도 작용하지 않는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이드로 흘러간다.



너도 동생이 있잖아. / 치옥이가 의아하게 물었다. / 의붓동생인걸. / 그럼 니네 친 엄마가 아니니? / 나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 응, 계모야. / 치옥이의 눈에 담박 눈물이 괴었다. / 그럴구나, 어쩐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 이걸 비밀인데 우리 엄마도 계모야.

치옥이는 비밀이라고 했지만 치옥이가 의붓자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동네에서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비밀을 서로 지켜 주기로 손가락을 걸고 맹세했다.

그럼 너의 엄마도 널 때리고, 내가 죽으라고 하니? / 응, 아무도 없을 때면.

치옥이는 바지를 내려 허벅지의 피멍을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나가서 양갈보가 되겠어. / 나는 얼마나 자주 정말 내가 의붓자식이었기를, 그래서 맘대로 나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랐는지 몰랐다. (58~59쪽)

최소사건9에서는 미군 병사가 고양이를 죽였다. 오빠는 그 고양이를 방죽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는 그 고양이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이룬다. 날이 밝자 부두로 나가서 더러운 쓰레기와 썩은 생선, 폐선의 밀창까지 뒤졌지만 고양이는 없다. 그리고 '나'는 여덟 번째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수채에 쭈그리고 앉아 구역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여자의 동물적인 삶에 대해 동정한다. 비통하고 처절한 어머니의 구역질을 보며 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머니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생명의 탄생은 결코 아름답거나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동물적인 행위이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

며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 10에서 '나'는 나무토막이 부서지는 둔탁하고 메마른 소리에 잠이 깬다. 가슴을 두근대며 베란다로 나가는 '나', 턱을 달달 떨어대며 검둥이를 보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호기심과 두려움, 공포로 얼룩져 급격하게 이드적 면모를 보인다. 국제결혼을 해주기로 약속했던 검둥이는 매기를 이층에서 던져죽이고, 제니는 고아원으로 보내진다.

최소사건 11에서는 할머니가 쓰러졌다. 할머니는 다시 아기가 됐다. '나'는 아무도 없을 때면 치욕이가 제니에게 하듯 할머니 방에 들어가 머리를 빗기고 물을 입에 떠 넣기도 하고 가끔 쉬를 했는지 속옷을 헤치고 기저귀 속에 살그머니 손끝을 대어보기도 한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정신에너지가 다시 슈퍼에고로 흘러갔음을 보여준다. 할머니가 병에 걸려 죽고, 양갈보였던 매기 언니가 죽고, 고양이가 일곱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낳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나'는 어머니의 여덟 번째 아이의 탄생을 본다. 이처럼 '나'는 새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며 여성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데에 두려움과 공포를 지닌다. 그것은 초조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드러나고, 이로 인하여 '나'는 비관적인 세계관을 지니게 된다.

할머니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여동생과 살게 되면서 결혼이 깨지는 상황에 처하였다. 비취반지는 보통 결혼 예물로 하는데 이것이 깨졌다는 것은 할머니의 결혼 생활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지를 고이 간직한 모습을 통해 할머니가 결혼 생활에 대한 동경과 미련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할머니에게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할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최소사건11에서 '나'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며 할머니의 유품인 손수건 뭉치를 땅에 묻는다. 이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행한 나름의 이별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여러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한다. 차츰 '나'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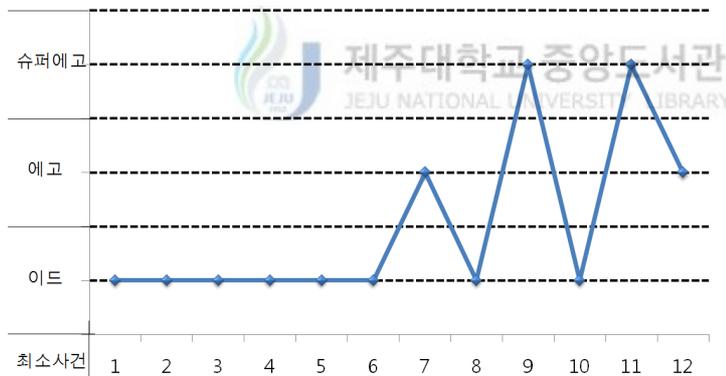
최소사건12에서 내가 숨어 들어간 '벽장 속'은 한 점의 빛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다.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초조를 경험하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는 단군신화에서 꿈이 깬 동굴 속에서 인내 끝에 여성으로 변신하는 과정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초조'는 첫 생리로서 출산이 가능한 성인 여성으로서의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여성으로서의 삶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나'는 초조를 겪으며 막막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나'는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할머니의 삶에 대한 연민을, 어머니의 출산을 보고서는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낀다. 이는 현실 속에서 여성의 삶이 고단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출산을 비애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딸인 '나'는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여성적 삶을 가능한 거부하고 싶은 것이다.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산고(産苦)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나는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숨바꼭질을 할 때처럼 몰래 벽장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 한낮이어도 벽장 속은 한 점의 빛도 들이지 않아 어두웠다. 나는 차라리 죽여줘라고 부르짖는 어머니의 비명과 언제부터인가 울리기 시

작한 종소리를 들으며 죽음과도 같은 낮잠에 빠져들어 갔다. /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쥐고 있는 후덥덥한 열기를,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 초조(初潮)였다. (72쪽)

이처럼 성장의 고비를 넘어서면서 '나'의 삶은 새로운 지평 위에 놓이게 된다. 치옥이의 부모는 치옥이를 미장원에 맡기고 중국인 거리를 떠나고, 중국인 남자는 '나'를 손짓하여 부르고는 빵과 등이 담긴 종이 꾸러미를 건넨다. 어머니가 난산 속에서 여덟 번째 아이를 낳을 때, '나'는 자신의 성장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벽장 속에서 초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육체적인 성장이 정신적 성숙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초조'와 어머니의 분만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선혈'은 여자와 여자를 이어주는 일종의 매듭으로 '신체화(somatization)'의 징후이다.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되는 이 방어기제는, 보이지 않는 듯 투명하지만 거미줄 같은 끈적이는 점성으로, 같은 여자로서의 모녀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독특한 시각이 되고 있다. 슈퍼에고에 있던 '나'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에고로 흘러간다.

〈그림 4〉 '나'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정신에너지는 12개의 최소사건 중 8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에 머물러 있고, 2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에고로 이동한다. 그리고 2개의 최소사건에서 슈퍼에고로 이동한다. 따라서 '나'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2) '치옥'의 행동과 성격

최소사건2에서 커서 미용사가 될 거라고 말하는 치옥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낸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치옥이의 정신에너지는 에고로 흘러간다.

그러나 최소사건6에서 매기 언니처럼 양갈보가 되겠다고 하는 치옥이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쾌락원리의 지배를 받아 이드로 흘러간다. 치옥이는 날마다 매 맞는 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

있을 것이고, 매기 언니의 자유롭고 화려한 삶의 모습이 부러웠을 것이다. 최소사건 8에서도 치옥이는 양갈보가 되겠다고 말하고, '나'가 거짓말로 우리 엄마도 계모라고 했을 때 치옥이는 '나'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그녀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

치옥이는 매기 언니의 방에서 마치 주인처럼 행동한다. 매기 언니의 물건들을 만진 뒤에 흔적이 안 남게 본디대로 해놓고, 술을 마시고는 들키지 않게 빈 부분만큼 물로 채울 줄 아는 영악한 아이이다. 매기 언니가 없을 때는 제니를 채우고 언니의 목걸이를 걸고 놀다가, 매기 언니가 오면 제니를 예쁘고 깨끗하게 씻겨줄 줄 안다. 매기 언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치옥이는 전쟁 후 이 땅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대표한다. '나'는 치옥이를 매개로 해서 매기 언니를 보게 되고 어른들의 세계를 엿본다. 즉 치옥이는 내가 세상을 보는 도구이다. 치옥이를 통하여 중국인 거리의 낯선 풍물들과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보게 되고, '나'는 섬뜩한 세계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치옥이 침대 머릿장에서 초록색의 액체가 반쯤 남겨진 표주박 모양의 병을 꺼냈다. 병의 초록색이 찰랑대는 부분에 손톱을 대어 금을 만든 뒤 뚜껑을 열어 그것을 따라 내게 밀었다. / 먹어 봐. 달고 화하단다. / 내가 한 모금에 훌쩍 마시자 치옥이는 다시 뚜껑을 가득 채워 꿀꺽 마셨다. 그리고 손톱을 대고 있던 금부터 손가락 두 마디만큼 초록색 술이 줄어들자 줄어든 만큼 냉수를 부어 뚜껑을 닫아 머릿장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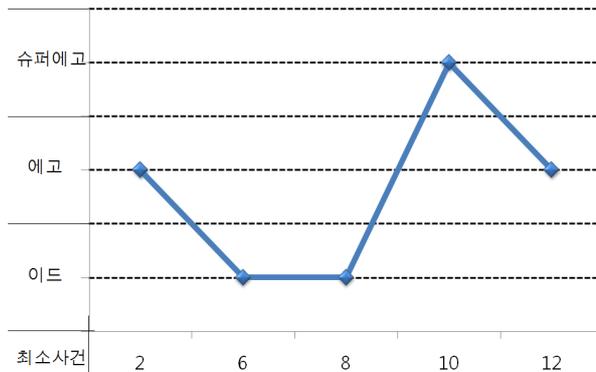
감쪽같잖니? 어머니? 맛있지? / 입안은 박하를 한 입 문 듯 상쾌하게 화끈거렸다.

이건 비밀이야. / 매기 언니의 방에서는 무엇이든 비밀이었다. 서랍장의 옷갈피짤에서 꺼낸 빌로드 상자 속에는 세 줄짜리 진주 목걸이, 여러 가지 빛깔로 야단스럽게 물들인 유리알 브로우치, 귀걸이 따위가 들어 있었다. 치옥이는 그 중 알이 굵은 유리 목걸이를 걸고 거울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난 커서 양갈보가 될 테야. 매기 언니가 목걸이도 구두도 옷도 다 준 댕어. (54쪽)

그러나 최소사건10에서는 매기가 죽었지만 변함없이 제니를 다정하게 동생처럼 돌보는 치옥이의 모습이 보인다. 치옥이의 빨강게 부은 눈은 매기 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드러낸다. 이 타적이며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치옥이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12에서 제분공장에 다니던 치옥이의 아버지가 피땀줄에 감겨 다리가 끊어진 후 치옥이의 부모는 치옥이를 삼거리의 미장원에 맡기고 중국인 거리를 떠난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가 미장원 유리창을 통해 본 치옥이는 강통에 파마 약을 풀고 있거나 바닥에 떨어진 머리칼을 쓸고 있었다. 치옥이의 정신에너지는 현실의 원리를 따르는 에고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치옥’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치옥이의 정신에너지는 대부분 이드와 에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옥’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3) ‘할머니’의 행동과 성격

최소사건1에서 할머니는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인해 금세 더러워지는 아버지의 와이셔츠를 빨고 또 빨다. 무척 깔끔한 성격이다. 최소사건3,4에서 할머니는 모두들 우리의 외할머니로 알 정도로 우리와 가족처럼 지낸다. 최소사건1, 3, 4에서 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현실의 원리를 따르는 에고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6에서 할머니는 여자의 옷은 방안에 줄을 만들어 널어야 한다며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양갈보들을 ‘천하의 망종들이라고 한다. 최소사건8에서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유난히 정갈하고 차가운 성품을 지녔고 그 이유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날 고양이가 새끼를 일곱 마리나 낳자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미역국을 갖다 주며 “나비가 쥐새끼를 낳았구나, 쥐새끼를 일곱 마리나 낳았구나.” 하고 노래의 후렴처럼 몇 번이고 불렀다. 그날 밤 고양이는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고 대가리만 남겨 피 칠한 입으로 야옹야옹 밤새 울었다. 이렇게 고양이가 제 새끼들을 잡아먹도록 저주를 퍼부은 할머니의 행위는 아기를 한 번 갖지도 못한 채 소박을 맞은 자신의 원한에서 비롯된 위악이라 볼 수 있다. 그런 할머니는 매기의 백인 혼혈아 딸 제니를 혐오의 눈으로 보며 ‘짐승의 새끼’라 한다. 이렇게 최소사건6, 8에서 보이는 할머니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다. 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이 부분에서 이드로 흘러간다.

최소사건11에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다가 모로 쓰러진 후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동생인 작은할머니와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과 살고 있는 시골에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온 아버지의 말을 통해 아직도 할머니가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통해 할머니의 과거가 서술된다. 할머니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동생과 살게 되면서 결혼이 깨지는 상황에 처한다. 비취반지는 보통 결혼 예물로 하는데 이것이 깨졌다는 것은 할머니의 결혼 생활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반지를 고이 간직한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가 아직도 결혼 생활에 대한 동경과 미련을 지녔음

을 알 수 있다. 그 겨울의 끝 무렵 우리는 할머니의 부음을 듣는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이드에 머물러 있다.

친척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동생인 작은할머니와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과 살고 있는 시골에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온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더듬더듬 말했다.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그 집에서 누가 달가워하겠어, 개밥에 도토리지. 그런데 부부라는 게 뭔지…… 글썽 의식이 하나도 없는 양반이 펄떡 펄떡 열불이 나는 가슴을 풀어헤치고 영감님 손을 끌어 당겨 거기에 엎더라니깐…….

그러게 내가 뭐랬어요, 역시 보내드리길 잘했지. 평생 서리서리 뭉쳐 둔 한인 걸요. (67쪽)

〈그림 6〉 ‘할머니’의 성격



‘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사건 1, 3, 4에서는 에고에 머물러 있다가 6, 8, 11에서는 정신에너지의 본고장인 이드로 흘러 들어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할머니’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3) 「우상의 눈물」

「우상의 눈물」¹⁰⁰⁾은 1980년 봄 『세계의 문학』에 발표된 전상국의 단편소설이다. 학교의 교실을 무대로 한 이 작품은 문제아를 길들이는 과정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전체주의적 질서의 폭력성을 탐구하였다. 낙제하여 2학년에 유급된 최기표가 같은 재수과의 우두머리가 되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다. 담임선생과 반장이 앞서서 ‘악’에 몰든 그를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한다. 결국 반장 임형우는 그의 무리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자신을 때린 사람을 발설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그를 돕는 운동을 벌인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100) 이송원 외 8인, 고등학교 문학, 좋은 책 신사고, 2014.

전상국, 「우상의 눈물」, 『20세기 한국소설 24』, 창비, 2013. (위의 교과서 속에는 작품의 일부만 실려 있어서 이 책을 텍스트로 삼음)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내세워진 수단으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임형우의 목적은 같은 반이라는 배를 타고 순항하여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1년의 항해를 마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학습의 질서를 벗어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그가 질서 밖으로 벗어난 학생을 길들여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은 사랑이었다. 구성원 전체를 일사분란하게 복속시키는 그 질서는 무서운 전체주의적 폭력이다. 전체주의적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본래의 정체를 숨기고 그럴듯한 이데올로기로 미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 '사랑'이 바로 그 이데올로기이다.

이 작품에는 두 개의 폭력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표의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담임과 반장의 폭력이다. 기표의 폭력은 어떤 계산이나 술책에 의한 것이 아닌 본능적인 폭력이다. 반면 담임과 반장 형우의 폭력은 진실과 호의를 가장한 위선적이며 지능적인 폭력이다. 계산과 술책에 의한 간교한 폭력, 즉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담임과 반장은 합법적인 권력 편에 있고, 최기표는 벌거벗은 폭력의 상징이다. 그런데 담임과 반장 임형우는 최기표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교묘한 술책으로 그를 굴복시킨다. 결국 최기표의 초라한 몰락을 통하여 합법적 권력이 더 무서운 폭력일 수 있음이 드러난다. 이 작품은 9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5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기표의 벌거벗은 폭력이 담임과 형우의 합법적인 폭력에 의해 굴복당하는 구조이다.

<기표의 폭력 시퀀스 1>

1. 임시반장이 된 나는 토요일 늦은 오후 기표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다. (폭행당하는 나)
2. 새 담임선생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우리를 묶으면서 군왕처럼 군림하려 한다.
(‘자율’을 강조하는 새 담임선생)

<기표의 폭력 시퀀스 2>

3. 담임선생은 나에게 반장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나는 임형우를 반장으로 추천한다.
(나의 반장 추천)
4. 최기표는 매스게임용 운동복을 칼로 자르고 집단 구타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악행을 계속 저지른다. (기표의 악행)

<담임과 형우의 폭력 시퀀스 1>

5. 기표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행한 커닝 사건으로 기표의 자존심을 건드린 형우는 폭행을 당하고 입원한다. (커닝 사건으로 폭행당한 형우)
6. 형우는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를 끝내 밝히지 않은 일로 영웅이 된다. (영웅이 된 형우)

<담임과 형우의 폭력 시퀀스 2>

7. 담임과 형우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 기표는 효자, 재수파는 의리의 사나이로 미화된다. (담임과 형우의 계획)
8. 신문 미담란에 우리 반 얘기가 크게 실리고, 기표는 점점 무기력한 아이로 변한다.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기표)

〈담임과 형우의 폭력 시퀀스 3〉

9. 기표는 그동안 자기를 위해 전개된 일련의 일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편지를 남기고 가출한다. (기표의 가출)

이 작품은 잔인하고 교활한 문제 학생 최기표, 성적 좋고 통솔력 있는 반장 임형우, 학생들을 장악하려는 담임교사, 이들 사이의 갈등을 '나(이유대)'가 관찰하는 내용으로 합법적인 권력과 별거벗은 폭력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새 학년이 시작된 고등학교 2학년 13반에 '자율'이란 말로 학생들을 묶으면서 군림하려는 담임이 있다. 학기 초에 '나(이유대)'는 임시반장을 맡게 되고 이것이 최기표에게 '메스껍게 보여' 린치를 당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량하지만 한쪽에는 이른바 '재수파'가 있다. 한 학년씩 유급을 당한 아이들인데 그들의 중심에는 최기표가 있다.

담임은 '나'에게 반장을 계속 맡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거절하고 형우를 추천한다. 형우가 반장이 되고, 그와 담임의 노력으로 학급은 일사분란하게 항해를 계속한다. 기표는 여전히 학급 학생들을 장악한다. 그러나 의욕에 찬 담임선생은 기표를 길들여 나가기 시작한다. 담임은 우선 기표를 소위 '재수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담임의 목인 아래 모범생들이 기표의 시험을 돕기로 한다. 커닝 쪽지가 그에게 전달된다. 그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형우는 그에게 린치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지만, 가해자인 기표를 끝내 숨겨 줌으로써 영웅이 된다. 그 일을 계기로 매월한 돈으로 기표의 생활비를 보태왔던 '재수파'들이 형우에게 용서를 빌게 된다.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재수파'들의 미담이 담임에 의해서 과장되고 미화되어 알려지게 되면서 기표는 효자로, 재수파들은 희생적이고 의리가 깊은 친구로 둔갑한다. 월요일 조회 때마다 사회 각계에서 보내 온 성금과 위문편지가 기표에게 전달된다. 급기야 기표의 이야기는 영화화될 단계에까지 이른다. 그럴수록 기표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하고,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가출해 버린 기표가 여동생에게 남긴 편지에는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쓰여 있었고, 담임은 영화사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자신의 계획을 기표가 무산시켰다며 신경질을 부린다.

이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행동 분석을 통하여 성격의 심리적 특성과 그 생성과정을 살펴볼게 될 주요 인물은 '나', '최기표', '임형우', '담임선생' 등이다.

(1) '나'의 행동과 성격

최소사건1에서 '나'는 최기표 일행에게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짐질하는 무서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문은 온 학교에 파다하게 번져나갔고 소문이 떠도는 동안 심한 공포에 휩싸인다. 이러한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 머물러 있다. '나'는 자존심이 무척 강해서 형우가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충동질할 때도 우월감이나 오만감으로 빙그레

웃기만 한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서 에고로 흘러간다.

학교 강당 뒤편 으스스한 곳에 끌려가 머리에 털 나고 처음인 그런 무서운 런치를 당했다. (중략) 그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 바지에서 혁대가 풀려 나간 다음 벗겨져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에 칼끝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이 왔다. 나는 그들에게 양쪽 겨드랑이를 잡힌 채 몸부림쳤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칼끝은 상당히 오랜 시간 허벅지에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살타는 냄새를 맡았다. 칼침이 아니라 그들은 담뱃불로 내 허벅지 다섯 군데나 지짐질을 했던 것이다. 소리 질러 봐, 죽여 버릴 거니, 한 놈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드디어 허물어져 내리듯 의식을 잃어 갔다. 그런 몽롱한 의식 속에서 기표가 씨부려 댄 한 마디 말소릴 놓치지 않았다. / ---메시껍게 놀지 마!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이 내게 런치를 가한 이유란 단지 그것이었다. 2학년 재수파들이 나를 첫 표적으로 삼은 것은 내가 그들 눈에 메스껍게 보였기 때문이다. (194~195쪽)

최소사건2에서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로 우리를 묶으면서도 실상 우리들 머리 위에 군왕처럼 군림하기를 원하는 담임의 저의를 알아차리고 날카롭게 묻는다. "선생님,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은 누구니까?" 결국 그 일로 '나'는 일주일간 임시 반장이 되었고, 그 일은 기표의 비위를 사납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나'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졌으면서도 충동적이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와 에고를 왕래한다.



어느 연극잡지에서 완숙한 연출가는 배우 스스로가 연출하도록 유도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은 것이 생각났다. 대단한 담임을 만났다는 기대로 아이들은 가슴을 부풀이며 앉아 있었다. 14개 반에서 사오 명씩 떨어져 나와 새로이 편성된 새 반의 분위기는 사뭇 숙연했다. 나는 문득 이런 숙연한 분위기가 우습게 생각되었다. 단 며칠 못 가 형편없이 허물어질 아이들이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앉아 담임선생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게 우습게 보였던 것이다. 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선생님,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은 누구니까?"

내가 불쑥 일어나서 말했다. 선장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우리를 묶으면서도 실상 우리들 머리 위에 군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그의 저의를 찔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내 느닷없는 질문에 부스럭부스럭 굳은 몸을 풀고 있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의 번호와 이름은?"

담임이 얼굴 가득 미소를 잡으며 여유 있게 나를 훑었다. 반격을 당한 나는 얼굴을 붉히며 엉거주춤 다시 일어나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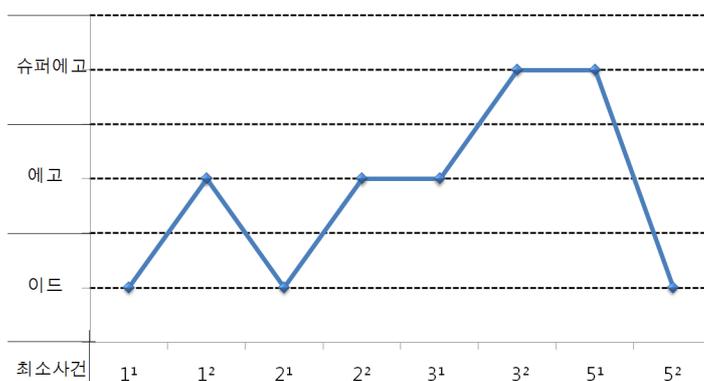
"35번 이유답니다" (197쪽)

최소사건3에서 가정방문을 나온 담임은 '나'에게 계속 반장을 맡아줄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중학교 3년 동안 반장을 하면서 남 앞에 나서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번거로운 일인가를 몸소 깨달은 '나'는 지난 1학년 시절을 회상하며 거절한다. 지난 1년간 '나'는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

는 일을 담임에게 알려면서도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기합리화’의 방어기제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나는 아이들을 위한다’는 자부심으로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임에게 알렸으나 결국은 담임에게 이용당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다. 그래서 담임의 반장 제의를 거절한다. 그리고 담임이 ‘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나’를 자신의 침자로 삼으려는 담임의 저의를 알고 치욕을 느낀다. 또한 담임이 기표를 부반장으로 임명하여 기표의 힘을 빼려 할 때, “선생님, 기표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표의 힘을 빼어 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와 같이 담임의 의도를 간파하여 따져 묻는다.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함은 물론 더 나아가 담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가 용감한 성격임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에서 ‘나’의 정신에너지는 예고에서 슈퍼에고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사건5에서 기표의 부정행위를 돕자고 반장이 제의했을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자는 거냐? 기표냐,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나?”고 묻는다. 판단이 빠른 ‘나’는 기표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그의 권위를 손상시키려는 반장의 속마음까지 읽어내는 것이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슈퍼에고에 머물러 반장이 순수한 목적으로 기표를 돕자고 하는 게 아님을 알아차리고 지적한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채점 기계로 호출되어 채점을 하는 와중에도 채수과들 속에 형우가 무릎을 꿇고 와들와들 떨고 있을 것을 상상한다. 우리가 기표들의 부정행위를 거들어준 것을 비롯하여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임은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체 시치미를 떼는 담임의 음흉스러움이 무서웠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이드로 흘러간다.

〈그림 7〉 ‘나’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정신에너지는 4개의 최소사건¹⁰¹⁾ 중 1.5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에 머물러 있고, 1.5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예고로, 1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슈퍼에고로 흘

101) 여기서 1¹, 1², 2¹, 2², 3¹, 3², 5¹, 5²는 최소사건1, 2, 3, 5를 나누어 표현한 것으로, 최소사건1, 2, 3, 5의 내부에서 ‘나’의 정신에너지의 역동적 이동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표현했다.

러가고 있다. 따라서 '나'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에고+슈퍼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2) '최기표'의 행동과 성격

별거벗은 폭력으로 비유되는 최기표는 불량학생의 전형으로, 갖은 비행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혹평을 별로 받지 않는 인물이다.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임과 형우의 주도면밀한 술책에 무서움을 느끼며 학교를 떠난다.

최소사건1에서 기표는 '나'가 메스껍게 논다는 이유로 '나'의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진다. 기표는 잔인하다. 음침하고 포악스러운 얼굴을 한 전형적인 범죄형이다. 이러한 공격 본능은 기표가 이드적 성향의 인물임을 표현한다.

최소사건4에서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춘계 교내체육대회를 위해 담임의 지시 하에 매스게임용 운동복을 마련한다. 담임선생은 돈이 없어 준비하지 못한 기표와 재수과의 운동복을 마련해준다. 학급의 일사불란한 결속을 위해 기표의 자존심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기표를 아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 안에 포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다. 그러나 기표는 그 운동복을 칼로 잘라버리고는 다른 아이의 것을 빼앗아 입는다. 기표는 철저하게 악하여 선천적인 포악성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의 표정은 항상 독기를 품고 있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위선을 모른다. 재수과는 목적이나 정기적인 모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기표를 중심으로 모여 우발적으로 악을 저지른다. 최기표는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폭력을 이용하여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은 자신의 실제 혹은 상상의 결점과 열등감을 실제나 상상의 우월감으로 채우려는 방어기제이다. 기표는 이렇게 난폭한 행동으로 자기 현실의 고통을 감추고 이겨 나간다. 기표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

기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학교 골목을 절뚝거리며 나오던 그 고통스럽고 긴 시간, 내가 생각한 것은 기표야말로 긴 시간, 내가 생각한 것은 기표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의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208쪽)

최소사건5에서 영어 시험 도중 원하지 않는 커닝페이퍼를 전달받았을 때 기표는 “어떤 새끼가 이걸 나한테 전해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감독선생에게 쪽지를 내민다. 이 커닝 사건은 기표를 돕자며 임형우가 주도한 것이었다. 제 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사방을 적의 깊게 노려보는 최기표의 입가에는 악한 자의 간특한 미소가 기어 다녔다. 여전히 기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6에서 최기표는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재수과와 함께 형우를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난 후 사흘 동안이나 결석한다. 기표가 학교에 나온 날 담임의 “최기표 군은 그 동안 피치 못한 가정 사정으로 결석했다. 앞으로 다시는 결석이 없을 것으로 안다.” 라는 말에 항상 뺨뺨하게 고개를 쳐들고 앉았던 기표는 고개를 숙인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뭔가 불안해진다. 악의 상징이던 기표가, 그토록 뻔뻔하던 기표의 머리가 숙여진다. 그 날 이후로 기표는 순한 양이 되어간다. 기

표의 정신에너지는 잠시 슈퍼에고로 이동한다. 기표는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읽고 있다. 기표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이드로 이동한다.

최소사건7에서 담임과 형우는 기표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미화하여 기표를 맹수가 아니라 도음을 바라는 가련한 친구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덧씌운다. 기표가 누리고 있던 절대 권력을 빼앗는 동시에 고립시키려는 책략이었다. 위압과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던 기표는 동정 받아 마땅한 별레로 전락한다. 매혈까지 하게 해서 돈을 착취하던 기표의 행동은 과장되고 미화되어 널리 알려진다. 최소사건8에 오면 기표와 우리 반 이야기가 신문 미담란에 크게 실리고, 영화화될 단계까지 이른다. 담임과 반장의 계획대로 이제 아무도 기표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 기표는 점점 위축된다. 왜소하게 짜부라진 채 미소를 얼굴에 담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수줍어하는 아이로 변해간다. 여기서 기표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유입된다.

기표는 최소사건9에서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가출한다. 이는 단순하고 본능적인 악보다도 그것을 짓밟고 이용하는 간교한 술책이 더 무섭다는 의미이며, 호의를 가장한 담임의 위선과 형우의 주도면밀한 위선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되게 미화시켜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주도면밀한 위선에 대한 두려움, 진실보다는 위선이 더 인정받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난다. 최기표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이드로 돌아온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기표’의 정신에너지는 6개의 최소사건¹⁰²⁾ 중 4.5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이드에 머물다가 1.5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따라서 ‘최기표’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3) ‘임형우’의 행동과 성격

임형우는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학업을 헌신적으로 잘 이끄는 모범생이지만 위선적인 면이 있

102) 여기서 6¹, 6²는 최소사건6을 나누어 표현한 것으로 최소사건6의 내부에서 기표의 정신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기표의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다. 최소사건3에는 형우의 성격이 직접적 제시 방법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는 무개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고 생각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결단력도 대단한 학생이다. 학교의 지시에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다가도 어떤 결점이 보일 때는 무섭게 반격을 가하는 용기도 갖추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200쪽)

이 부분의 서술을 보면 형우의 정신에너지는 예고로 흘러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최소사건5에서도 '나'의 눈에 비친 형우의 성격이 서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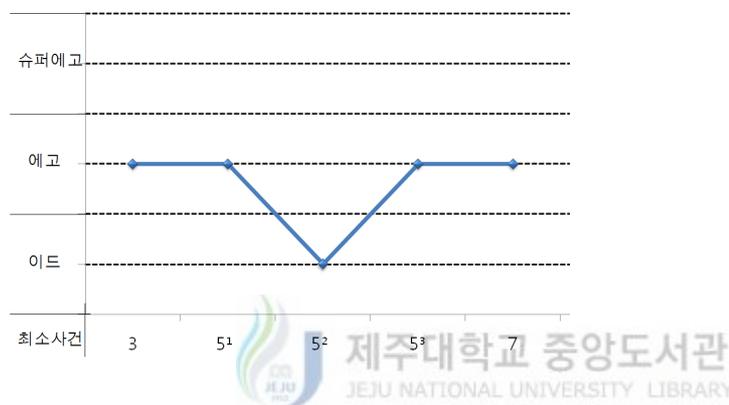
그처럼 근본이 포악한 기표마저도 형우의 얘기라면 귀를 기울일 정도로 형우는 모든 아이들의 인심을 살 줄 알았다. 형우의 성실성이, 남을 위해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의협심이, 그의 천성적으로 착해 보이는 외모가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다른 반 선생님들도 이 학년 십삼 반 반장 임 형우를 칭찬했다. 형우의 겸손함이 다른 선생들의 호감을 샀다. 형우는 특히 기표에게 잘해 주었다. 아우가 형을 대하듯 스스럼없이 사랑해주었다. 그렇다고 기표에게 특혜를 얻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유독 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기표에 대해 갖는 그런 공포 같은 것도 없어 보였다. (209쪽)

이러한 형우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슈퍼에고적 성격으로 보이지만 매우 위선적이다. 그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예고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형우는 기표의 낙제를 막아야 한다는 미명아래 성적이 좋은 몇몇 아이들과 함께 커닝을 모의한다. 이것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자기합리화'라는 방어기제의 일종이다. 훌륭한 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낙제생이 없어야 되는데 기표를 비롯한 재수과가 낙제하면 자신과 학급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때문이다. 물론 담임선생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오월 중간고사를 위해 아이들과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동안 '나'는 기표를 위해서 기표를 도와주자고 말하는 형우의 눈초리에 매달린 교활한 웃음을 본다. 이는 형우의 정신에너지가 자신의 본능을 억압하는 데 실패하여 이드로 흘러들어왔음을 의미한다. 결국 커닝 사건으로 자존심이 무척 상한 기표는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뒷산에서 재수과들과 함께 형우를 죽지 않을 만큼 때린다. 그러나 형우는 학생주임 앞에서 때린 학생들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싸운 것이라고 변명한다. 결국 그 일로 형우는 영웅이 된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도 끝내 그 상대를 입에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형우의 존재는 과대평가된다. 그러나 형우는 순수한 의도로 기표를 숨겨준 것이 아니다. 즉, 진정으로 기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 악을 이용하는 형우는 매우 위선적이다. 형우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예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7에서 형우는 담임과 협력해서 기표의 뒷조사를 하여 불우한 가정 형편을 알아낸다. 기표는 맹수가 아니라 도움을 바라는 가련한 친구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덧씌운다. 기표가 누리고 있던 절대 권력을 빼앗는 동시에 고립시키려는 책략이었다. 위압과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던 기표는 동정 받아 마땅한 벌레로 전락한다. 형우는 급우들에게 가난한 기표를 도와주자고 제안한

다. ‘나’한테 기표의 가정환경을 들려줄 때의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우의와 신뢰가 가득한 말로 기표를 미화한다. 형우는 기표네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이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둡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 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난다. 모두 형우의 위선적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표를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학생으로 낙인찍어 나가는 것이다. 형우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예고에 머물러있다. 결국 형우가 기표에게 베푼 호의와 동정은 실은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왔던 기표의 허상을 ‘빈곤’으로 길들이려는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림 9〉 ‘임형우’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임형우’의 정신에너지는 3개의 최소사건¹⁰³⁾ 중 2.6개의 최소사건에서 예고에 머물러 있고, 0.4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이드에 있다. 따라서 ‘임형우’의 지배적 성격은 〈예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4) ‘담임선생’의 행동과 성격

담임은 권위적이며 치밀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겉으로는 ‘자율’을 강조하지만 학생들 머리 위에 군왕처럼 군림하여 자기 뜻대로 학급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최소사건2에서부터 담임교사는 획일적인 ‘자율’을 강조하여 자신이 학급을 운영하기 편리하게 아이들을 조종한다. 무사안일 속의 1년을 지향하는 담임 김 선생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신뢰’로써 반을 하나로 결속하는 슬기를 보이라고 당부한다. 그러면서 ‘배의 순탄한 항해를 헛갈리게 하는 높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자기합리화의 방어기제를 써 가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예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소사건3에서 가정방문을 나온 담임은 ‘나’에게 계속 반장을 맡아줄 것을 당부하지만 ‘나’는

103) 여기서 5¹, 5², 5³은 최소사건5를 나누어 표현한 것으로 최소사건5의 내부에서 형우의 정신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형우의 성격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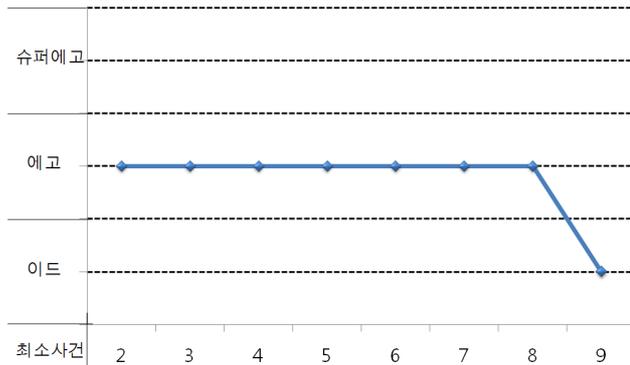
반장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 일을 요령 있게 풀어나가 재치 있게 마무리 할 줄 아는 담임은 흔쾌히 양보한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상당히 깊게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담임은 반장이 되고 싶어 하는 임형우의 마음을 눈치 채고는 그를 반장으로 내정한다. 담임은 '나'에게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려 애쓰고 결국 최기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를 자신의 첩자로 삼으려 한다. '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나'의 조언을 부탁하는 것이다.

최소사건4에서 담임은 협동심과 조화 속의 미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매스게임용 운동복을 학생들이 모두 있는 교실에서 채수파에게 전달한다. 두 사람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두 사람들의 운동복을 선심 쓰듯 주면서 그들의 가정형편을 들먹인다. '자율'이라는 말로 학습의 학생들을 타율적으로 만들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치면서 '우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기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담임의 정신에너지는 최소사건 2에 이어 3, 4에서도 계속 예고에 머무른다.

최소사건5, 6, 7에서 담임은 '나'가 기표에게 당한 폭력이나 기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형우가 주동한 부정행위 등 학습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떤다. 결석한 기표를 찾기 위해 뚝방 동네를 헤매는 모습을 비롯한 일련의 행동은 매우 이기적이며 위선적이다. 담임선생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한 명의 희생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표의 힘을 빼는 데에만 열중한다. 담임교사가 '기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끝까지 말썽을 부리는 망할 새끼'에 불과하다. 담임은 '최기표는 신화적 존재이다.'라는 학생들의 인식을 깨뜨리기에 무엇이 적합한가를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 담임교사가 최기표를 요주의 인물로 정하고 그를 억압했다라면 그것은 그의 신화적 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반항과 폭력의 이미지로 신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그가 평범한 존재이며, 아니 그보다도 못한 불쌍하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 된다. 결국 담임교사는 형우와 함께 동정심으로 진의를 은폐한 뒤 그 의도를 눈치 채지 못한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소사건8에서는 담임의 계획대로 신문의 미담란에 기표의 사진과 함께 담임과 반장의 사진이 실리고, 기표는 점점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간다. 드디어 기표의 이야기가 영화화될 단계에까지 이르지만, 최소사건9에서 기표는 가출한다. 담임선생은 가출한 기표를 찾아달라고 찾아온 기표 어머니를 내쫓듯 교무실에서 밀고 나간다. 그녀를 배웅하고 돌아온 담임은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라고 투덜거린다. "내일 천일영화사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잖나? 그런데 이 망할 새끼가....." 이렇게 욕설을 내뱉는 부분에서 담임의 위선이 폭로된다. 기표를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내려 했는데 그 일이 어긋나자 화가 치미는 것이다.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을 숨기지 못했다. 예고의 억제력이 이드의 추진력을 억압하지 못한 것이다. 담임선생의 행동이나 말 그 어디에서도 윤리적이거나 교육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다. 담임선생의 정신에너지는 급속하게 이드로 흘러간다.

〈그림 10〉 ‘담임선생’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담임선생’의 정신에너지는 소설의 전편에서 계속 에고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최소사건에서 이드로 유입된다. 따라서 ‘담임선생’의 지배적 성격은 〈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4) 「장마」

「장마」¹⁰⁴⁾는 1973년 『문학과 지성』 봄 호에 발표된 윤홍길의 중편소설이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서술자인 ‘나’의 시각을 통해 한 집안에 발생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을 형상화하고 있는 인물은 ‘나’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인데,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대립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 대립한다. 그들의 화해는 전통적이며 토속적인 무속신앙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외부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대립 상황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 정서에 바탕을 두고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 준다. 또한 작가는 나이 어린 소년을 서술자로 택하여 사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미숙했던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16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6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다.

〈전사 통지의 시퀀스〉

1. 장마가 시작되고 외할머니는 불길한 꿈으로 온종일 조바심을 낸다. (외할머니의 불길한 꿈)
2. 비 내리는 깊은 밤 개들이 짖어대고 외삼촌의 전사통지서를 받게 된다. (전사통지서)
3. 외할머니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거나 어머니의 통곡은 그칠 줄 모른다. (어머니의 통곡)

104) 신동훈 외 15인, 고등학교 국어Ⅱ, 두산동아, 2014.

윤홍길, 「장마」, 『20세기 한국소설 28』, 창비, 2013.(위의 교과서 속에는 작품의 일부분만 실려 있어서 이 책을 텍스트로 삼음)

〈갈등·불화의 시퀀스〉

4. 전사통지서를 받은 후 외할머니, 이모, 어머니의 반응 양식은 각기 다르다. (다른 반응)
5. 이성을 잃은 외할머니가 빨갱이에 대해 저주하고, 이로 인해 친할머니와의 불화가 시작된다. (외할머니의 저주로 시작된 불화)

〈밀고의 시퀀스〉

6. 초콜릿에 눈이 멀어 나는 삼촌이 집에 왔었다는 사실을 발설하고 만다. (밀고)
7. 깊은 밤 삼촌이 돌아오고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수하기로 결심하지만, 염탐자의 발견으로 삼촌은 다시 사라진다. (사라진 삼촌)
8. 아버지는 삼촌의 일로 1주일 동안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다. (고문에 시달린 아버지)

〈맹신의 시퀀스〉

9. 빨치산 대부분이 소탕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소문)
10. 할머니는 점쟁이의 예언을 근거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는다.
(점쟁이의 예언과 할머니의 맹신)
11. 외할머니의 외삼촌 자랑은 끝이 없다. (외삼촌은 외할머니의 자랑거리)
12. 나는 삼촌과는 다른 점이 많은 외삼촌에 대해 생각한다. (외삼촌에 대한 존경심)

〈기다림의 시퀀스〉

13. 점쟁이가 예언한 그날을 대비하여 할머니는 옷, 음식 등 모든 준비를 마친다.
(할머니의 기다림)
14. 삼촌이 돌아온다는 전날 밤, 가족들은 구렁이 울음소리에 잠을 못 이룬다.
(구렁이 울음소리)

〈화해의 시퀀스〉

15. 예언한 날 삼촌은 오지 않고, 구렁이가 아이들의 돌팔매에 쫓겨 집안으로 들어온다.
구렁이를 본 할머니는 졸도한다. (구렁이의 등장과 할머니의 기절)
16.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내고 두 할머니는 화해한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사망하고 장마가 걷힌다. (화해)

장마가 계속되던 6·25 전쟁 중의 어느 날, 우리 집에 국군인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다. 외삼촌의 전사통지를 받고 정신을 잃은 외할머니는 이튿날 빨갱이들은 다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이 일로 인하여 빨치산 삼촌을 아들로 둔 친할머니는 크게 분노한다. '나' 역시 꼬임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었다는 말을 발설했고,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가 지서에 끌려간 적이 있어 친할머니의 분노를 산 상태였다.

전쟁은 점점 심해지고 빨치산 대부분이 소탕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친할머니는 숨어 지내는

빨갱이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게 되고 급기야 용하다는 소경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친할머니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탈 없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 그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집은 장마 통에도 친할머니의 성화 때문에 대단히 바쁘다. 그러나 그 날이 되자 삼촌 대신 나타난 것은 커다란 구렁이였고, 충격을 받은 친할머니는 기절한다. 그 때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친할머니의 자식인 삼촌을 대하듯 정성껏 대접하여 무사히 보낸다. 구렁이 사건 이후 친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두 할머니는 화해를 하고, 일주일 후 결국 친할머니는 세상을 떠난다.

이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행동 분석을 통하여 성격의 심리적 특성과 그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될 주요 인물은 '나', '친할머니', '외할머니' 등이다.

(1) '나'의 행동과 성격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의 소년 시절을 회상하는 이 소설의 서술자이다. 최소사건2에서 우리 가족은 외삼촌의 전사통지서를 받는다. 하루 종일 불길한 꿈 때문에 조바심을 내던 외할머니는 외삼촌의 전사소식에 넋을 잃어 일껏 꺼낸 연둣빛 싱싱한 자살을 빈 깎지가 수북이 담긴 치마폭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뜨린다. '나'는 외삼촌의 전사 소식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중얼거리는 외할머니의 심리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외할머니에게 그 실수를 알려주고 싶어 조바심이 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파악할 수 있고, 어른들의 속마음을 모두 읽지는 못한다. '나'는 '신빙성 없는 화자'라 할 수 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4에서도 한창 전쟁 중인 상황을 보고 어른들이 산에 모여 불장난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순수하고 어리다. 봉홧불과 무수한 살상과의 관계를 '나'는 알지 못한다. 한편 외할머니는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외삼촌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의 삶을 주무르는 버릇이 있다. 다 컸다고 자부하던 열 살의 '나'로서는 무척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잘 참아낸다. 크나큰 고역이고, 모욕적인 장난이었지만 자식을 그리워하고 애달파하는 외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참는 것이다. 열 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의 눈에 비친 외할머니는 몹시 허전하고, 초라하고, 측은하며 불쌍한 모습이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예고에서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자존심은 예고적 성격이지만 자식을 잃은 외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할머니를 위하여 모욕을 참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타자 지향적인 슈퍼에고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최소사건6에서 '나'는 삼촌의 행방을 묻는 맥고자의 사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 애쓴다. 예고의 억제력이 이드의 추진력을 잘 제어하고 있다. 그러나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이드와 '저 아저씨는 삼촌의 친구가 아닐 것'이라는 예고의 합리적 판단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나'에게 초콜릿을 주는 이 아저씨는 '진짜로 삼촌의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자기합리화'의 방어기제를 써가며 전날 밤의 기억을 술술 이야기한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저씨가 초콜릿을 모두 밟아 없애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이드로 흘러간다.

최소사건7에서 '나'를 재우고 모의를 하는 어른들의 일에 대해 커다란 궁금증을 느끼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사건8에서는 '나'의 밀고로 인해 아버지가 잡혀간다. '나'에게 초콜릿을 준 사내의 것이었다. 맥고자의 그 사내는 '나'한테 그런 얘길 들었다는 걸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아버지를 끌고 가며 '나'에게 윙크를 한다. 치명적인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하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지만, 1주일 동안 고문을 받고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다시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11에서 '나'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을 느낀다. 체념을 익히면서 개학을 기다리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에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12에서는 어린애 같은 삼촌과는 달리 비범하고 교양 있는 외삼촌에 대한 '나'의 존경심이 표현된다. '나'는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다. 여기서도 '나'의 정신에너지는 에고에 머무른다.

그러나 소경 점쟁이가 예언한 그날이 다가오는 최소사건13에서 '나'는 삼촌이 돌아온다는 '아무 날 아무 시'를 견딜 수 없이 두려워한다. 밀고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느끼는 고통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속 깊은 아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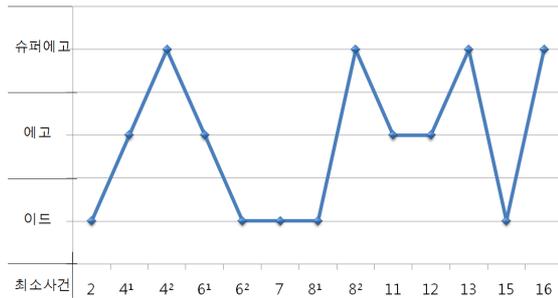
사내의 모습이 눈에 떨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은 나였다. 그의 출현이 나한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일껏 사그라지려던 죄책감에 대한 무서운 채찍질이면서 새로운 일깨움이었다. 과자 한 조각에 제 삼촌을 팔아먹는 사람백정이라고 소리소리 외치던 할머니의 저주가 당시 그대로의 형태로 또렷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던지는 목침 덩이에 맞아 코피를 흘리면서 나는 그날 저녁에 벌써 죽었어야 옳은 몸이었다. 사내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에 짓는 아버지의 우울한 표정을 읽는 일이 내게는 죽는 것 이상으로 괴로웠다.

(200쪽)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도덕적인 모습으로서 다시 슈퍼에고로 흘러가지만 최소사건15에서 나타난 구렁이에게 보이는 적의와 파괴욕은 '나'의 에고가 추진력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시 이드로 흘러 들어감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소사건16에서 친할머니는 임종의 자리에서 내 손을 잡고 '나'의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친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타인을 용서할 줄 아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나'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림 11〉 ‘나’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정신에너지는 10개의 최소사건¹⁰⁵⁾ 중 4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에 머물러 있고, 3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에고로 이동한다. 그리고 3개의 최소사건에서 슈퍼에고로 이동한다. 따라서 ‘나’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에고+슈퍼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2) ‘친할머니’의 행동과 성격

무속신앙에 철저히 의지하는 할머니는 아들(‘나’의 삼촌)이 인민군 빨치산으로 가 있는 처지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여, 강한 모성애로 집착을 보인다. 아들을 기다리는 본능적 욕망으로 목숨을 유지한다. 외할머니와 사이 좋게 지내던 친할머니는 최소사건5에서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고 이성을 잃은 외할머니의 저주의 말을 듣고는 심하게 격분한다. 길길이 뛰다가 거품을 물고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결국 ‘부모가 전쟁에 죄를 많이 지어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며 ‘팔자 소관’이라고까지 말하며 외할머니와 이모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내쫓으라고 명령하고 만다.

최소사건5의 앞부분에서 전쟁 중에 피난 내려온 외할머니와 이모에게 난리가 끝날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먼저 말하면서 슈퍼에고에 있던 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이 부분에서 급속하게 이드로 흘러간다. 이드의 추진력이 에고의 억제력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최소사건7에서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삼촌의 얼어터진 손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여 보내지 못한 아쉬움에 흐느낀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최소사건8에서 친할머니는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나’하고는 한방에서 밥 먹는 것조차 완강히 거부하고 어찌다 집안에서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뺨을 밟은 듯 질색했다. 최소사건7, 8에서 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이드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9에서는 대부분의 빨치산이 소탕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아도 자신의 아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아들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소경 점쟁이의 예언대로 ‘아무 날 아무 시’만 되면 자신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믿음으로 바뀐 것이다. 여전히 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모습은 ‘부정’의 방어기제가 작용한 결과로 자식

105) 여기서 4¹, 4², 6¹, 6², 8¹, 8²는 최소사건4와 6, 최소사건8의 내부에서 나의 정신에너지의 역동적 이동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은 할머니의 본능적 모습이다.

그러나 최소사건10에서 친할머니는 작은 아들을 창황 중에 떠난 보낸 후 밤잠도 못자고 밥도 한 술 못 넘길 정도로 안정을 못하면서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 간장을 말린다. 시체를 찾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영영 소리 내어 울면서 모든 천지신명에게 큰절을 하는 할머니는 어린 '나'의 눈에는 거의 미친 듯 보일 지경이었다. 이드에 머물러 있는 할머니의 소박한 신앙과 모성애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최소사건13에서 가족들 대부분은 삼촌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빨치산이 대부분 소탕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다. 어린 '나'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할머니는 한복을 마르고 호박전을 준비하고 고사리나물을 무치면서 아들이 온다는 날을 기다린다. 할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할머니의 사고체계는 비논리적이며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삼촌이 온다는 전날부터 할머니는 온 집안을 환하게 불을 밝히고 기다린다. 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무르고 있다.

최소사건15에 오면 밤새 켜두었던 장명등이 꺼져버린 것을 보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무란다. 노여움이 극에 달한 할머니는 광과 장롱의 열쇠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한다. 점쟁이가 예언한 그날 그 시간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조반상도 거부하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기다린다.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기다렸다가 모자점상을 받았다는 할머니는 추호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 앞에 나타난 큰 구렁이 한 마리를 보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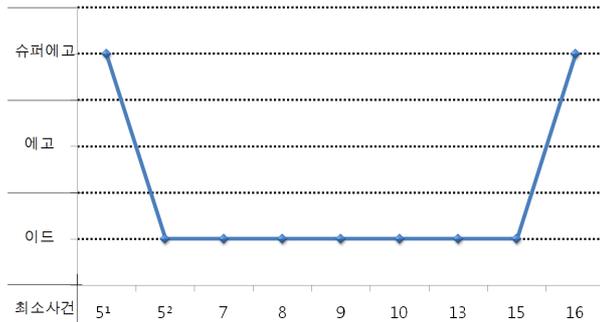
최소사건16에서 서너 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한 친할머니는 자신을 대신하여 구렁이를 전송해 준 외할머니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또 다시 정신을 잃는다. 일주일 후 임종의 자리에서 친할머니는 내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준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별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 "고맙소" /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꼭 메었다. /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험 일을 사분이 대신 맡었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렸으꼬" /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맘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218쪽)

생의 마지막에 먹지도 않고 잠도 안자면서, 놀라운 기력으로 삼촌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 하나로 긴 장마와 같은 전쟁을 버텨낸 한국의 어머니이다. 친할머니의 정신 에너지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고 '나'를 용서하는 부분에서 다시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그림 12〉 ‘친할머니’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친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8개의 최소사건¹⁰⁶⁾ 중 6.5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에 머물러 있고, 1.5개의 최소사건에서만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따라서 ‘친할머니’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3) ‘외할머니’의 행동과 성격

외할머니의 아들, 즉 ‘나’의 외삼촌은 국군 소위로 가 있다가 전사한다. 외할머니는 꿈의 예언적 기능을 철저히 믿는다. 최소사건1에서 외할머니는 줄곧 꿈 얘기만 늘어놓으며 어떤 불길한 기운이 있음을 거듭 예언한다. 최소사건2에서 비 내리는 깊은 밤 우리 가족은 외삼촌의 전사통지서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사건3에서 외할머니는 강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 외할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슬픔을 자제한다. ‘억압’의 방어기제를 써 가며 에고의 억제력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이드의 추진력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외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에고로 흘러간다.

그러나 최소사건4에서 외할머니는 자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을 외손자의 삶을 주무르는 것으로 표현한다.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전사한 불쌍한 자식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외손자의 자존심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외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이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할머니의 에고나 슈퍼에고가 본능적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는 합리적 심리과정에 장애가 발생하여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의 눈에 비친 외할머니는 시들 대로 시들어버린 먼산바라기 초라한 할멈의 모습이었다. 자식을 잃은 모성의 허전한 모습이다.

결국 이튿날 최소사건5에서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빨갱이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다. 그리고 친할머니와 말다툼 끝에 외할머니는 “나갈란다! (중략) 이런 빨갱이집……” 이라고 소리치며 증오심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한다. 이 말은 삼촌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치안대와 경찰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묵계였다. 외할

106) 여기서 5¹, 5²는 최소사건5의 내부에서 할머니의 정신에너지의 역동적 이동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의 추진력을 억압하지 못한다. 이 일로 인하여 빨갱이를 작은 아들로 둔 할머니와의 대립과 갈등이 시작된다.

"더 쏘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쏘아져서 바웃 새에 숨은 빨갱이 마자 다 썰어 가그라! 나뭇 틈 새기에 었던 빨갱이 솟덩이같이 싹싹 끄실러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옹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158~1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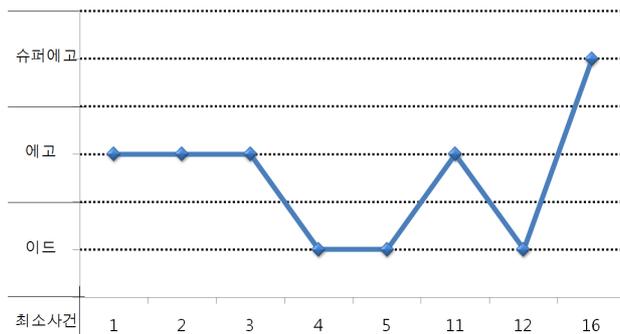
최소사건11에서 외할머니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외손자의 마음 가운데 더욱 인상 깊게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말수가 적은 외할머니이지만 일단 아들 이야기만 시작되면 끝을 모른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외할머니에게 외삼촌은 커다란 자랑거리이기 때문이다. 방어기제 중 동일시(identificati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외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에고로 유입되고 있다.

최소사건12에는 아들이 곱게 죽었기를 바라는 외할머니의 소박한 소망이 서술된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적 욕망이다. 이 부분에서 외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이드로 흐른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인 최소사건16에서 삼촌이 온다고 점쟁이가 예언한 날 아이들의 돌팔매에 쫓겨 구렁이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체정신이 아닌 그 북새통 속에서도 외할머니는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다. 놀라울만큼 침착한 태도로 혼란을 수습해 나가는 외할머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대문을 잠그고,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구렁이에게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며 달랜다.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현신(現身)으로 여겨 친할머니 입장을 생각하여 구렁이를 대접해 보내는 것이다. 외할머니에게는 좌익·우익, 국군이나 빨치산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내 새끼'를 아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친할머니를 대신하여 구렁이를 보는 것이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화해의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모성의 힘이다. 친할머니와 갈등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친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이타적이며, 성스럽기까지 하다. 이 부분에서 외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요구라도 하고 가소. 다아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려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 언 걸음 부데 편안히 가소" (215~216쪽)

〈그림 13〉 ‘외할머니’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할머니’의 정신에너지는 8개의 최소사건 중 3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에 머물러 있고, 4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에고로 이동한다. 그리고 1개의 최소사건에서 슈퍼에고로 이동한다. 따라서 ‘외할머니’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5) 『외딴방』

『외딴방』¹⁰⁷⁾은 작가의 체험이 담긴 자전적 성장소설로서 액자소설의 형태를 띤 메타 픽션¹⁰⁸⁾이다.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고 산업체 학교를 다니며 겪은 경험들이, 그 속에서 겪어야 했던 내적, 외적 갈등과 함께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외딴방에서 오빠들과 외사촌과 함께 살아가던 그 시절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도 맞물려 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죄책감을 무릅쓰고 노조를 탈퇴했던 경험과 자살한 희재 언니의 시신을 목격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안에는 1970년대라는 시대적 풍경과 노동자의 고통스런 삶이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 소설은 424쪽이나 되는 장편소설이고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글쓰기의 의미탐색을 시도하고 있어서 최소사건으로 나누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자는 수많은 최소사건 중에서 소설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최소사건과 시퀀스를 정리하여 보았다. 그 결과 35개의 최소사건으로 요약하고, 8개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었다.

107) 한철우 외 7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3.

신경숙, 『외딴방』, 문학동네, 1999. (위의 교과서 속에는 작품의 일부분만 실려 있어서 이 책을 텍스트로 삼음)

108) 메타픽션(Metafiction)은 픽션과 리얼리티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스로가 하나의 인공품을 의식적,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소설쓰기이다. 작가는 스스로의 글쓰기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는 자의식적 행위를 글 속에 드러낸다. 그것은 소설의 창작과 그 소설의 창작에 관한 진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텍스트에 대한 불신, 의혹, 상상, 환상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글쓰기의 의미 탐색 시퀀스 1〉

1.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은 글쓰기임을 자각함. (글쓰기의 의미)
2. 하계숙의 전화로 원인 모를 가슴의 통증을 느낌. (통증)
3. 제주도에서도 글쓰기에 대해 고민함. (글쓰기에 대한 고민)

〈상경·고난의 시퀀스〉

4. '열여섯의 나' 작가가 되기 위해 상경함. (상경)
5. 미래의 삶을 꿈꾸며 외딴방에서의 힘겨운 삶을 시작함. (힘겨운 삶)
6. 비참한 노동현장의 노사갈등 상황에서 꿈을 위해 노조를 탈퇴함. (노사갈등)

〈글쓰기의 의미 탐색 시퀀스 2〉

7. 희재 언니를 생각하며 찬송가책을 사고 서울로 돌아옴. (귀경)

〈꿈 키우기 시퀀스 1〉

8. '열일곱의 나' 학생이 됨. (학생이 됨)

〈꿈 이루기 시퀀스 1〉

9. 나의 사춘기 자전소설 발표함. (소설 발표)



〈꿈 키우기 시퀀스 2〉

10. 노동 현장은 비참하고 노동자의 삶은 궁핍함. (노동자의 삶)
11. 열일곱의 봄에 희재 언니와 처음 만남. (첫 만남)

〈꿈 이루기 시퀀스 2〉

12. 여성지의 인터뷰 요청에 시달림. (시달림)
13. 영등포여고 한경신 교사로부터 편지를 받고 갈등함. (편지)

〈꿈 키우기 시퀀스 3〉

14. 주간학생에 의해 도둑으로 몰리지만 최홍이 선생님의 영향으로 작가의 꿈을 키움. (모욕)

〈꿈 이루기 시퀀스 3〉

15. 글쓰기를 통하여 희재 언니와 만나려 노력함. (희재 언니)

〈꿈 키우기 시퀀스 4〉

16. 작가의 꿈을 키워 나감. (꿈 키우기)
17. 박정희 사망, 비상계엄령 (무서운 현실)

<고단한 삶 시퀀스>

18. 장남이라는 책임감을 천형처럼 짊어지고 있는 큰오빠는 실연을 당해 괴로워함. (울분)
19. 희재 언니는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 (고단한 삶)
20. 오월의 상처 (상처)

<글쓰기의 의미 탐색 시퀀스 3>

21. 은사님은 글쓰기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함. (은사님의 조언)
22. 한경신 선생의 편지를 다시 받음. (한경신 선생의 편지)

<상처 치유를 통한 성장 시퀀스 1>

23. 희재 언니의 죽음을 방조한 죄책감으로 관계 맺기에 장애가 생김. (관계 맺기의 장애)

<충격·두려움의 시퀀스 1>

24. 월급이 계속 체불되고 직장 폐쇄가 계속됨. (월급 체불)
25. 대학입시 준비에 매진함. (꿈을 향한 노력)
26. 큰오빠는 충무로 발령받아 떠나고 나는 혼자가 됨. (혼자가 됨)

<상처 치유를 통한 성장 시퀀스 2>

27. 이 글을 완성해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을 함. (각오와 다짐)

<충격·두려움의 시퀀스 2>

28. 희재 언니는 임신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할 형편이 못됨. (희재 언니의 사랑)
29. 희재 언니는 휴가를 간다며 나에게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부탁함. (그날 아침 이야기)
30. 희재 언니의 자살로 심한 충격을 받은 나는 죄책감에 시달림. (죄책감)
31. 입시를 치르고 문예창작과 대학생 됨. (대학생이 됨)

<상처 치유를 통한 성장 시퀀스 3>

32. 아버지가 구상하는 미래의 세집 속에는 여섯 남매가 들어있음.
(아버지가 구상하는 미래의 세집)
33. 희재 언니와의 화해에 성공한 나는 새로운 세상과 만남. (희재 언니와의 화해)
34. 제주도에서 여름을 보내고 추석도 보냄. (제주도에 내려감)
35. 글쓰기를 통해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함. (글쓰기를 통한 상처 치유)

과거는 화자인 '나'가 작가의 꿈을 꾸며 어려운 고난을 헤쳐 나가는 이야기이고, 현재는 '나'가 글쓰기의 의미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 또는 '글쓰기를 통한 자아의 정체성 찾기'이다. 장편소설이며 중심 사건이 벌어지는 과거 시점과 소설가가 된 현재의 시점이 교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서 전체를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표 2> 와 같이 작성하였다.

<표 2> 『외딴방』의 최소사건과 시퀀스

구분	과거 - 꿈 키우기		현재 - 정체성 찾기	
	외딴방에서의 삶(현재형으로 진행)		작가로서의 삶(과거형으로 진행)	
장	시퀀스	최소사건	시퀀스	최소사건
1 15쪽 ~ 108쪽	상경 · 고난 (16세)	4. '열여섯의 나' 상경 5. 외딴방에서의 힘겨운 삶 6. 노동 현장의 노사 갈등	글쓰기 의미 탐색	1. 글쓰기의 의미 탐색 2. 하계숙의 전화로 원인 모를 가슴의 통증을 느낌 3. 제주도에서도 글쓰기에 대해 고민함. 7. 찬송가 책을 사고 서울로 돌아옴.
2 111쪽 ~ 214쪽	꿈 키우기 (17세)	8. '열일곱의 나' 학생이 됨 10. 비참한 노동 현장, 노동자의 삶 11. 희재 언니와의 첫 만남 14. 주간학생들에게 모욕당함 16. 작가의 꿈 키우기 17. 박정희 사망, 비상계엄령	꿈 이루기	9. '나'의 사춘기 자전소설 발표 12. 여성지의 인터뷰 요청에 시달림 13. 영등포여고 한경신 교사의 편지 15. 글쓰기를 통하여 희재 언니와 만나려 함.
3 217쪽 ~ 315쪽	고단한 삶 (18세)	18. 큰오빠의 힘든 삶 19. 희재 언니의 고단한 삶 20. 오월의 상처	글쓰기 의미 탐색	21. 은사님의 조언 22. 한경신 선생의 편지
4 319쪽 ~ 424쪽	충격 · 두려움 (19세)	24. 월급 체불, 직장 폐쇄 25. 대학입시 준비에 매진함 26. 큰오빠 충무 발령 28. 희재 언니의 임신과 이별. 29. 그날 아침 이야기 30. 죄책감에 시달림. 31. 입시를 치르고 대학생 됨	상처 치유를 통한 성장	23. 관계 맺기의 장애 27. 글을 완성해야 한다는 다짐 32. 아버지가 구상하는 미래의 새집 33. 희재 언니와의 화해 → 세상과의 새로운 만남 34. 제주도에 내려감 35. 글쓰기를 통한 상처 치유

이 소설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선명한 인상을 남기는 이미지는 '쇠스랑을 빠뜨린 우물'과 '저녁 숲에서 백로들이 고요히 날개를 접고 자는 풍경'이다. 이 소설의 '외딴방'은 바로 이 두 이미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깊은 '우물'의 폐쇄성과 자기 충족성이 생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유년

기를 상징한다면 ‘백로들이 자는 저녁 숲’은 작가가 동경하는 미래의 아름다운 삶, 화자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평화로움을 표상한다. 그러나 ‘우물의 어둠’에서부터 빠져 나와 ‘백로의 숲’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딴방’이란 통과 의례적인 시련 지대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외딴방’은 ‘나’에게는 힘들었던 과거를 묻어 두고 싶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글쓰기를 가능케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외딴방’의 고독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작가가 될 수 있는 운명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글쓰기가 ‘우물 속의 쇠스랑을 건져 올리는 작업’이라는 사실과도 결부된다. 『외딴방』의 주인공 ‘나’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글쓰기의 의미를 탐색한다. 즉 과거의 진실을 통해서 보다 진실한 ‘나’, 보다 진실한 현재를 갖기 원하는 것이다. 처음에 ‘나’는 자신이 상처입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선택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어두웠던 상처들을 되새김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래서 희재 언니의 죽음과 같은 가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 기억과 화해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통스럽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글쓰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자기 존재의 확인인 동시에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이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행동 분석을 통하여 성격의 심리적 특성과 그 생성과정을 살펴보게 될 주요 인물은 ‘나’, ‘큰오빠’, ‘희재 언니’ 등이다.

(1) ‘나’의 행동과 성격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이 소설은 시작된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글쓰기라 생각하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에고로 유입된다. 최소사건2에서 ‘나’는 영등포여고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같이 공부했던 하계숙의 전화로 원인 모를 가슴의 통증을 느낀다. 가슴이 아파서 쓸 수 없었던 그 시절, 희재 언니의 모습이 ‘나’를 가로막아서 ‘나’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로 유입된다. 하계숙은 ‘왜 우리들 이야기는 소설로 쓰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계숙은 ‘나’가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얘기를 쓰지 않는 이유가 혹시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은 아닌지를 묻는다. 그동안 ‘나’는 어두웠던 과거를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고 살아왔다. 그런데 같은 기억을 공유한 하계숙이 등장하면서 과거를 떠올리고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시간과 맞서게 된다.

최소사건3에서 하계숙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위해 집을 떠나 제주도로 갔던 ‘나’는 계속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 글을 쓸수록 문학이 옳은 것과 희망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고통을 느낀다. 문학은 삶의 문제에 뿌리를 두게 되어 있고, 삶의 문제는 옳은 것과 희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과 불행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문학이 끼어들 수 없는 삶도 있다. 결국 글쓰기는 ‘뒤돌아보기’이며 ‘오늘 속에 흐르는 어제 캐내기’라 생각한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속에, 뒤쪽의 약한 자, 머뭇거리는 자들을 위해 정리되고 정의된 것을 형클어서 새롭게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의 정신에너지는 본능이나 에고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하고 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유입된다.

서른 가까운 어느 날, 나는 몹시 피로를 느꼈고, 그 피로가 그때의 피로임을, 그때 이미 나

는 서른 살이나 서른둘이 되어 있었음을, 단숨에 깨달았다. 그걸 알게 한 건 다름 아닌 내가 외경스러워했던 글쓰기였다.

글쓰기란, 그런 것인가, 글을 쓰고 있는 이상 어느 시간도 지난 시간이 아닌 것인가. 떠나온 길이 폭포라도 다시 지느러미를 찢기며 그 폭포를 거슬러 돌아오는 연어처럼, 아픈 시간 속을 현재형으로 역류해 흘러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 쓰는 자에겐 맡겨진 것인가. 연어는 돌아간다. 뱃구레에 찢린 상처를 간직하고서도 어떻게든 다시 목숨을 걸고 폭포를 거슬러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래 돌아간다. 지나온 길을 따라, 제 발짝을 더듬으며, 오로지 그 길로. (37쪽)

최소사건4에서 중학교를 막 졸업한 '열여섯의 나'는 모내기가 한창인 6월에 쇠스랑으로 밭바닥을 찍는다. 동경하는 세계가 있었던 '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그 삶은 독한 상처로 이루어진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느낀다. 그 독함을 끌어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순결한 한 가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바로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나'는 그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외사촌과 함께 서울로 올라간 후에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공단으로 취직을 해야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괴로운 훈련원 생활도 이겨낸다. 열여섯의 어린 '나'는 세상이 두렵지만 그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도전 의식도 가지고 있다. 처음 서울로 왔을 때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밥조차 먹을 수 없어 고생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이 원하던 일은 '글을 쓰는 일'이었고, 작가는 다르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며 자신을 다독인다. '나'는 목표 의식이 뚜렷하다. 언젠가, 기필코 보러 가리라고 다짐하는 '백로'는 '나'가 꿈꾸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 즉 작가가 되려는 '나'의 염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글을 쓰는 일은 진·선·미를 탐구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창조함으로써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타자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양심적 작업이므로 '나'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유입된다. 이렇게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서 예고로, 예고에서 슈퍼에고로 이동한다.

이미 나는 어둠 속, 그 아득한 밤하늘 아래, 숲을 아름답이 뒤덮으며 온화하게 자고 있는 백로들을 향해 마음의 기약을 하고 있다. 언젠가, 기필코 그 높은 나뭇가지의 흰 새를 보러 가리라, 별에 얼굴 향하고 자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온화함을 보러 가리라. (33쪽)

최소사건5에서 큰오빠와 외사촌과 '나'는 서른일곱 개의 방 중 하나에서 '외딴방 생활'을 시작한다. '나'는 무척 외롭다. 그렇게 외로운 날들 속에서도 내가 동경하는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외딴방에서의 힘겨운 삶을 꾸려나간다. '열여섯의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외사촌과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임금과 궁핍에 시달린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이드에서 예고로 유입된다.

풍속화 속의 고독의 날들 속에서 내가 자주 힘겹게 떠올린 건 도시로 나오던 그날 밤, 외사촌이 보여준 사진집 속의, 아득한 밤하늘 아래, 별을 향해 높고 아름답게 잠든 새들이었다. 나,

그들을 내 눈으로 보러 갈 날이 있을 것임을 힘겹게 나에게 기약하며 그 풍속화 속의 나날들을 살아내곤 했다. 훗날 살아가는 피로와 관계의 부재 속에 외로워졌을 때도 그날 밤 외사촌이 들고 있던 화보 속의 새들, 백로들, 숲속에, 밤이 온 숲속에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한 듯, 서로 올망졸망 기대어 숲을 아름다이 잠으로 뒤덮고 있던 백로들의 무리를, 내 눈으로 보러 가겠다는 마음 버리지 않았다. 나, 언젠가, 기차의 창틀에 내려놓은 팔을 흔들리며 눈앞을 가로막는 능선을 넘어서 가리라고, 슬픔과 고독의 날일수록 남몰래 나에게 기약하였다. (49쪽)

최소사건6에서는 노사 간의 갈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난다.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우리에게 잘 해 주었지만 외사촌과 '열일곱의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노조를 탈퇴한다. 노조지부장을 외면하는 일이 수치스러울 때면 겨울날 들판의 눈밭에서 벼이삭을 찾고 있던 배고픈 청둥오리 떼를 떠올리며 '나는 글 쓰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은 아무래도 괜찮다구, 지금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아무렇지도 않아'를 되뇌는다. '열일곱의 나'는 잔업거부를 못한다. 목표의식이 얼마나 뚜렷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수치스러움에 노조지부장을 외면하는 부분에서 예고에 있던 '나'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잠시 흘러간다. 그러나 글 쓰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되뇌는 부분에서는 다시 에고로 돌아온다.

최소사건7에서 찬송가책을 사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 시간이 1979년으로 흘러가 이 찬송가책을 회재 언니의 무릎 위에 놓아줄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 일이 덜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에고에 머무른다.

최소사건8에서 '열일곱의 나'는 1979년 드디어 학생이 된다. 영등포여고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이다. 오후 다섯 시에 컨베이어 앞을 떠나기 위해 나머지 시간을 병어리가 되어 피브이씨에 나사 박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나'는 산업체 특별학급을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근처를 얼씬거리지 않았다. '나'의 무의식은 될 수 있으면 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했는지도 모른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피하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잠시 이드로 유입된다.

최소사건9에서 '나'는 사춘기 자전소설 발표했다 그것은 오빠에게 큰 사랑거리가 된다. 최소사건10에서 노사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노동 현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 그리고 최소사건11에서 '열일곱의 봄'에 '나'는 회재 언니와 처음으로 마주친다.

나는 그녀가 좋았다. 그녀도 마찬가지로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글썽해진다. 우리는 그날 잠시 서로가 맘에 들어 행복했다. 서글픈 듯 마음이 평화로웠던 그 순간, 그녀는 어쩔는지 몰라도 나는 마음이 한없이 온화해졌다. (148쪽)

최소사건12에서는 이 소설의 1장을 발표한다. 여성지에서는 자꾸 인터뷰하자고 '나'를 힘들게 하고, 최소사건13에서는 영등포여고 한경신 교사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내용은 산업체 야간학생들에게 선배로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고민한다. '나'는 이드와 에고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면서 그 시절의 모습들이 다시 하나 둘 떠오른다.

최소사건14에서는 주간학생이 '나'를 도둑으로 본다. 이 일로 학교에 다닐 의욕을 상실한 '나'

의 정신에너지는 이드로 유입되어 1주일간 결석을 하게 되고, 담임인 최홍이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가정 방문을 나온다. 다음 날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반성문을 써오라 하였고, '열일 곱의 나'는 마음속의 이야기들로 대학노트를 삼분의 일이나 채운다. '나'의 반성문을 읽은 선생님은 '나'에게 소설을 써보라고 권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그때 최홍이 선생님이 건네준 책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틈이 생길 때마다 그 책을 읽고 옮겨 적는다. 그렇게 '나'는 소설과 친해진다. 그 때 '나'에게는 살아가기 위해서 꿈이 필요했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 싫어졌어, 내가 학교에 가서 하고 싶었던 건 주산을 놓는 것도 타자를 치는 것도 아니었어. 나는 책을 읽고 싶었고 무언가를 쓰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학교는 그런 것하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같아. (172쪽)

최소사건15에서 '나'는 글쓰기를 통하여 희재 언니와 만나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나'는 그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때에 대해 뭔가 써놓고자 하는 욕망만 컸다. 불안하고 창피하고 두렵고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념으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컸다. 이러한 '나'의 정신에너지는 에고로 유입된다. 최소사건16에서 '나'는 계속 작가의 꿈을 키워나간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내가 문학을 하려고 했던 건 문학이 뭔가를 변화시켜 주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어. 그냥 좋았어, 문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실에선 불가능한 것, 금지된 것들을 꿈꿀 수가 있었지. 대체 그 꿈은 어디에서 흘러온 것일까. 나는 내가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문학으로 인해 내가 꿈꿀 수 있다면 사회도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야? (206쪽)

최소사건18~20에서는 1980년이 되고 큰오빠와 희재 언니의 고단한 삶의 모습이 그려진다. 5·18광주민주항쟁, 과외금지령, 월급 체불, 직장 폐쇄, 유신 말기의 억압상과 민중의 빈곤,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YH사건, 12·12와 5·17에 이은 광주 학살, 삼청교육대 등 무서운 세상의 모습이 펼쳐진다. '나'는 열여덟이 된다. '나'의 꿈을 향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외사촌은 사진 찍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전화교환원이 되겠다고 말한다.

최소사건18에서 외사촌을 설득하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그러나 최소사건20에서 '나'는 추워서 끼입은 윤순임 언니의 작업복에서 만원이 든 봉투 들고 나온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급속하게 이드로 흘러간다. 집으로 찾아온 윤순임 언니에게 돈을 돌려주긴 했으나 다시 공장에 갈 용기가 없어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간다. 그러나 걱정할 큰오빠 생각에 새벽에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잊지 않고 있으면 할 수 있어. 꿈을 잊으면 그걸로 끝이야. 언제나 꿈 가까이로 가려는 마음을 거두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가고 또 가면 언젠가는 그 숲 속에 갈 수 있을 거야. 거기까지

못 가도 그 근처엔 가 있을 거라구. (258쪽)

최소사건23에서 '나'는 희재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관계 맺기에 장애가 생긴다. '외딴방'을 떠나와서도 희재 언니와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그 방과 비슷한 방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힌다. 갑자기 멎어지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주위가 산만해지고 잠이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한다. 때때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책을 읽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다리를 지날 때는 그 난간 밑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한다. 커튼 자락이나 빨랫줄 따위들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

최소사건24에서도 월급은 계속 체불되고 직장 폐쇄도 계속된다. 25번 최소사건에서 큰오빠의 설득으로 대학입시준비에 매진하는 '나'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예고로 유입된다. 최소사건26에서 큰오빠는 충무로 발령이 났다. 외사촌도 중학교를 졸업한 동생이 서울로 올라와 다른 집을 구해 떠나고 '나'는 이제 '외딴방'에 혼자 남았다.

최소사건28에서 희재 언니는 임신을 했지만 그 남자는 결혼할 형편이 못 된다. 최소사건29에서 희재 언니는 시골로 휴가 간다며 '나'에게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부탁한다. 며칠이 지나도 희재 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최소사건30에서 희재 언니의 그 남자가 냄새와 기다림 때문에 부순 방 안에는 시골집으로 휴가 간다던 희재 언니가 죽어 있었고, '나'는 그 '외딴방'에서 도망친다. '열아홉의 나'는 희재 언니의 자살로 심한 충격을 받는다. 그 사건에 내가 연루된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으므로 '나'는 도망친 것이다. 이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예고적 성향이라 볼 수 있다. 언니의 부탁으로 한 일이긴 하지만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열쇠를 채웠다는 죄책감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 부분에서 '나'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슈퍼예고로 흘러간다. 이후 오랫동안 다락방 천장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 희재 언니의 애인이라는 그 남자의 공포와 슬픔이 엇갈린 절망을 기억한다. 그 일로 '나'는 정신적 상처(Trauma)를 입게 되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나'는 밤에 학교 가는 일을 빼놓곤 바깥출입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옆에 다가오는 것도 싫어한다.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다. 온종일 혼자 집에 있다가 해가 저물면 오빠들 저녁을 지어 상보로 덮어놓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만 간다. '열아홉의 나'는 급격히 말을 잃어 하루에 한 마디도 안하는 날도 있다. '열아홉의 나'는 아무도 없는 빈집의 책상에 종일 앉아 있거나 방바닥에 엎드려 있다. 노곤해서 깜빡 낮잠이 들었다가도 소스라치며 눈을 뜬다. 구더기가 들끓는 희재 언니의 축 늘어진 몸을 짧은 꿈속에서도 본다. '나'의 예고는 이드의 불안감을 억제할 힘을 잃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개입해버린, 그녀의 죽음이 내게 남긴 상처는 나를 한없이 멍하게 했다. 아직 까지도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녀의 흔적들. 나는 그녀 이후에 관계 맺기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쉽게 친해지나 더 깊이 친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녀는 내 마음의 폐허였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그 방문을 내가 잠갔노라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그 관계는 나에게 뭘 선택할 여지도 없이 나도 이해 못할 역할을 내게 시킬 것만 같았다. 그때 생각했다. 내가 간

직한 비밀이 내가 죽은 후에 알려질 때를, 알려지는 건 괜찮는데 왜곡되는 것은 두려웠다. 비밀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발설하는 자의 삶보다 내 삶이 더 두껍거나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그러려면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 원망과 사무침과 그리움에 시달리느라 십년 동안 입을 다물었다. 십년 후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글 속에다 그 방문의 열쇠는 내가 채웠노라고 써보았다. 이제 그 위로 세월이 더 쌓여갔다.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궁글리다 보니 이제는 꿈결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꿈이었는데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꿈이었는데도 몰라……내 마음이 우기면 손이 비웃는다. 손이 기억했다. 열쇠통을 잠글 때의 감각이며 문이 잠기며 냐던 딸각 소리들을, 나는 손을 내려다본다. / 몸의 기억력은 마음의 기억보다 온화하고 차갑고 세밀하고 질기다. 마음보다 정직해서겠지. (402쪽)

최소사건 31에서 '나'는 대학입시를 치르고 최홍이 선생님이 알려준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한다. 최소사건35에서 드디어 '나'는 글쓰기를 통해 지난 날의 상처를 치유한다. 희재 언니는 맑은 우물 속에서 자신을 가없이 여기지 말라고, 마음을 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나'를 타이른다.

그녀가 우물 속 가장 외진 협곡 속에 잠겨있는 쇠스랑을 일으켜 세운다. 물길 속엔 또 얼마나 많은 물길이 있는지. 그녀 손에 쥐어진 쇠스랑이 질질 끌린다. 물보라. 우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회오리진다. 이제 내 가슴 속을 떠나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소용돌이나 퇴적물이나 정적 속은 아닐 것이다. 내 가슴에 소망스런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으니. (4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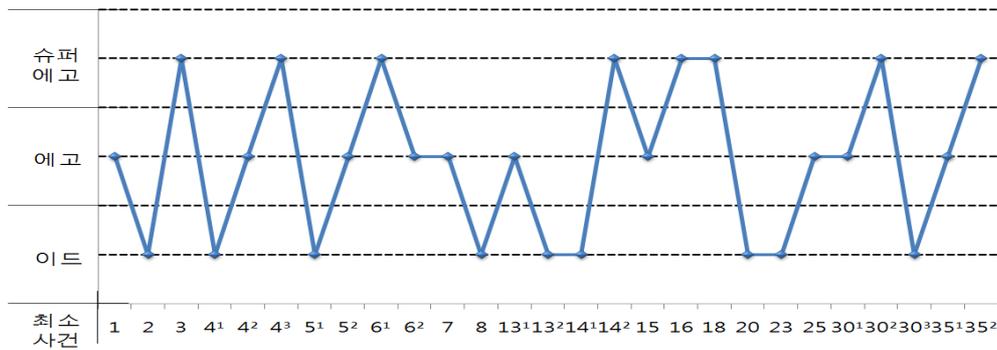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드디어 그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제주 바다에서 '나'는 밀물과 썰물은 희망과 절망, 삶과 죽음처럼 서로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모래펄에 남겨진 내 발자국의 자취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지금은 그녀들, 어디서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오랫동안 그녀들을 생각하면 삶이란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독을 느껴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녀들은 내 속에서 늘 현재로 작용했다. 그녀들은 내가 스무 살 이후로 만났던 삶의 누추함을 꺼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얼토당토않은 욕망의 자리에서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성찰이 되어주기도 했다. 모래펄에서 몸을 일으켜 내 발쪽에 내 발쪽을 대보며 모래펄을 걸어 나왔다. 오늘, 이 해변에 찍힌 나의 발자국은 외딴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가 도망치듯 빠져나와 다시 돌아가지 못했던 장소로. 오늘, 나에게 가장 뚜렷한 현재인 오늘, 여기에 찍힌 내 발자국을 따라가면 스물에서 더 이상 멈춰대지 않고 곧바로 열아홉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열다섯에서 열여섯으로 되돌아 나올 수도 있으리라. 이 길이 온전히 외딴방을 걸어 나올 수 있는 길이었다. (중략) 오랫동안 나에게 중요한 모든 운명의 모습은 희재 언니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밀물이었고 썰물이었다. 그녀는 내게 희망이었고 절망이었다. 그녀는 내게 삶이었고 죽음이었다. ……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중략) 새들의 자취를 따라가다 바라본 바다 끝, 그 위의 어린

에 같은 하늘, 나의 갇혀 있던 옛일들이 흩어지는 구름 속에 섞이는 걸 느꼈다. 그 자유로운 기억의 끝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새로운 체취를 풍기고 태어나고 있음을. (422~423쪽)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아직도 백로의 무리를 보러가지는 못했지만 그에 대응하거나 버금가는 어떤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에고에서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그림 14〉 '나'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정신에너지는 18개의 최소사건¹⁰⁹⁾ 중 6.1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에 머물다가 6.6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에고로 유입된다. 그리고 5.2개의 최소 사건에서는 슈퍼에고로 이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나'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에고+슈퍼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2) '큰오빠'의 행동과 성격

최소사건4에서 서술자의 눈에 비친 큰오빠는 가난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용모를 지녔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용문동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큰오빠는 자신은 먹지도 않으면서 외사촌과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 먹인다. 장남으로서의 삶의 무게는 그를 고단하게 만든다. 책임감이 강한 큰오빠의 정신에너지는 이미 슈퍼에고에 위치해 있다. 엄마의 행복의 조건은 자식들을 상급학교에 보내는 것이었고, 속 깊은 큰오빠는 최소사건5에서 '나'를 서울로 데려가 공부시키는 것으로 엄마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게 돕는다. 큰오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늘 양말을 짠다.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 역시 슈퍼에고적 성격이다.

큰오빠는 그때껏 방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밤차를 타고 와야 하는 이유다. 서울에서 우리가 잘 데라곤 여관밖에 없으니까. 방이 없어도 큰오빠의 피부는 희다. 손톱도 깨끗하고 흰 셔츠도 눈부시

109) 여기서 4¹, 4², 4³, 5¹, 5², 6¹, 6², 13¹, 13², 14¹, 14², 30¹, 30², 30³, 35¹, 35²는 최소사건4, 5, 6과 13, 14, 30, 35를 각각 나누어 표현한 것으로 각 최소사건의 내부에서 '나'의 정신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나'의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각 둘,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다. 반듯한 눈코입이 긴 얼굴의 흰 피부에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가 낮에는 동사무소 청소과에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대학 법학과에 다니는 청년이라는 걸 스스로 말하기 전에 짐작하기란 어렵다. 그는 세상의 힘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듯한 용모이므로. 깨끗한 그의 용모는 물질이 풍요로운 집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청년의 냄새가 물씬 흐른다. 그런 그가 동사무소 앞에서 밤기차를 타고 상경한 여동생과 외사촌 그리고 모친에게 따뜻한 콩나물국을 사 먹이고 있다. (34쪽)

최소사건6에서 셋째 오빠는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보라는 큰오빠의 말에 대들듯 눈을 똑바로 뜬다. 지나칠 정도로 단정하고 인사성이 밝고 귀한 느낌을 주는 큰오빠. 깨끗한 용모에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우애 있는 큰오빠는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큰오빠의 모습 역시 슈퍼에고적 성향이다.

우리 형제들 중 누구도 그때껏 큰오빠에게 그렇게 대들듯 눈을 똑바로 뜬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중략) 그가 싸움을 잘한다거나 아무 데서나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에겐 어리광을 피우거나 괜한 씬을 걸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석이 있다. 그는 단정한 것이 흠으로 느껴질 정도로 지나치게 단정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손했고, 인사성이 밝았으며, 언제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귀한 느낌을 주는 깨끗한 용모를 지니고 있어서 아버지나 엄마가 너희 큰형 좀 닮아봐라, 하는 말에 동생들인 우린 그저 주눅이 들 뿐 거기에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학교문제만이 아니라 아버지나 엄마를 대하는 공손함에서나 동생들을 대하는 우애에서나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온 사람이었다. (93~94쪽)

최소사건10에서도 큰오빠는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최소사건11에서 방위병인 큰오빠는 가발을 쓰고 새벽 6시부터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 다섯 시에 전철을 탄다. 낮 시간의 방위근무를 끝내고 저녁에도 학원에 나간다. 최소사건 4, 5, 6, 10, 그리고 11의 전반부까지 그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슈퍼에고에 머무른다.

새벽 다섯 시 전철 속의 그는 빈속. 새벽 전철 빈칸이 그의 빈 내장과 닮았다. 그는 수업을 마치고 새벽에 나간 길을 고스란히 되돌아와 가발을 벗어 다락문 안쪽에 걸고 양복을 벗어 비키니 옷장에 넣고 빈 방에 차려져 있는 상위의 배춧국에 밥을 말아 먹고 도시락을 들고 동사무소 방위 근무지로 간다. 그는 어느 날 환한 얼굴로 저녁 반 수업도 말아 하게 됐다고 한다. 이제 그는 순환선. 새벽에 가발 쓰고 양복 입고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밥을 먹고 방위복을 입고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 양복 입고 가발 쓰고 학원으로 간다. (1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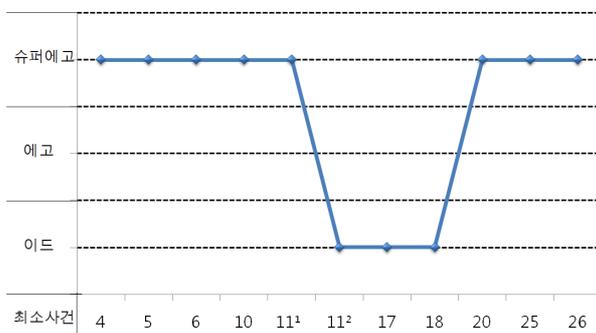
그런 큰오빠가 사랑을 한다. 어느 날 인형같이 생긴 여자를 외판방으로 데리고 온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므로 이 부분에서 큰오빠의 정신에너지는 서서히 이드로 흘러간다. 최소사건17에서 크리스마스 날 11시까지 온다던 큰오빠의 애인은 오지 않고, 약속을 어긴 여자 대신에 외사촌과 '나'를 데리고 영화관에 다녀온 큰오빠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한다.

성모 앞의 그는 외로워 보인다. 최소사건18에서 여자는 목걸이를 돌려주고 큰오빠를 떠나고 만다. 큰오빠는 아무에게나 목걸이를 주지도 않을뿐더러, 아무에게나 마음을 기약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후로 큰오빠는 깊은 잠을 자는 적도 없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큰오빠는 많은 충동이나 원망을 억압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참을성 많고 책임감 강하던 큰오빠도 말을 듣지 않는 셋째 오빠로 인하여 울분을 터뜨린다. 참고 참았던 울분이다. 그리고 떠난 여자로 인하여 큰오빠는 괴롭다. 사랑을 잃은 아픔으로 괴로워한다. 큰오빠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참고 참았던 큰 오빠의 울분이 터진다. 시퍼런 청춘인 그의 어깨엔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천형처럼 짊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 대신 동생들을 보살피야 하고, 방위병이면서도 돈을 벌어야 하고, 좁은 방에서 여동생들과 함께 불편한 잠을 자야 하는 장남의 울분이 셋째 오빠의 코에 코피를 터뜨린다. (247쪽)

최소사건20에서 큰오빠는 전화교환원이 되겠다며 몰래 학교를 빠지고 학원에 다니는 외사촌에게 학교에 안 다니려거든 보따리 싸고 내려가라고 다그친다. 그러나 공장만 아니라면 다 좋다는 외사촌에게 동사무소 자리를 소개한다. 몰래 부산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온 '나'를 안고 우는 오빠의 모습은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큰오빠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 25에서 큰오빠는 석 달치 임금을 못 받은 '나'에게 사표를 내고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한다. 자신은 제대하면 공무원직을 퇴직할 것이고, 그 퇴직금으로 이사도 갈 예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동생을 돌봐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최소사건26에서 큰오빠는 충무로 발령받아 내려가면서도 혼자 남을 '나'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한다. 이 부분 역시 동생을 아끼는 마음과 책임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큰오빠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슈퍼에고에 머무른다.

<그림 15> '큰오빠'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큰오빠'의 정신에너지는 10개의 최소사건(110) 중 2.5개의 최소사

110) 여기서 11¹, 11²는 최소사건11을 나누어 표현한 것으로 최소사건11의 내부에서 '큰오빠'의 정신

건에서 이드에 머물러 있고, 7.5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슈퍼에고로 이동한다. 따라서 ‘큰오빠’의 지배적 성격은 〈슈퍼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3) ‘희재 언니’의 행동과 성격

최소사건5에서 ‘나’의 회상에 떠오른 희재 언니는 푸른 작업복을 입은 채 희미한 웃음, 피로한 눈매, 창백한 그늘로 요약된다. 생활에 너무 지치고 힘든, 고단한 희재 언니의 모습을 ‘나’는 보아온 것이다. 희재 언니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서 에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11에서는 희재 언니는 무표정한 작은 얼굴, 무심한 작은 얼굴, 조용한 작은 얼굴, 햇볕같이 표정이 없는 무심한 얼굴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 집은 좋아……누가 죽어도 모를 거야”라고 ‘나’에게 말한다. 희재 언니는 벌써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부터 가방 공장을 다니던 그녀의 고단한 삶이 그녀를 그토록 힘들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늘 희미했었다. 모든 일상이 턱밑에, 귀밑에 숨어 있는 주근깨처럼 소리가 없었다. 활달했던 외사촌이 그녀를 부담스러워했던 건 그녀의 조용함 때문이었으리라. 그 조용함은 지나쳐서 순간순간 상대방을 긴장시키곤 했으니까. (186쪽)

최소사건11에서 희재 언니를 처음 만나던 날, 그녀는 ‘나’와 같은 학교의 교복을 빨아 넣고 햇볕을 쬐고 있었다. 미싱 바늘에 찢린 손등이 물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미싱사였다. 환풍기도 없는 작업실에서 옷감 먼지를 먹어가며 늘 잠이 부족한 상태로 일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동생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겠다고 한다면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희재 언니는 따스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최소사건14에서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학교에 가지 않는 ‘나’를 위해 따뜻한 국화빵을 사올 줄 안다. 최소사건16에서 ‘열다섯 살의 희재 언니’는 가방 만드는 공장에 다닌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4개월 동안 같이 지낸다. 그러나 그의 남동생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온다. 그와 계속 산다면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슈퍼에고에 머물러 있던 희재 언니의 정신에너지는 에고로 흐른다.

최소사건18에서 희재 언니는 전화교환원이 되는 꿈을 포기하고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에는 의상실에 취직한다. 이 이상 더 많이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그녀는 시골의 의붓아버지 밑의 남동생과 함께 살 방을 마련해야 한다. 그녀는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억압한다. 자신보다 동생을 생각하고 그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그녀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슈퍼에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20에서 희재 언니는 내가 5천원을 꾸 달라고 하자 묻지도 않고 내준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한 여동생을 데리고 방을 얻어 나가는 외사촌에게 청바지를 만들어 선물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남에게 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 그녀의 정신에너지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큰오빠’의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는 여전히 슈퍼에고에 머물르고 있다. 24번 최소사건에서 희재 언니는 이백만원만 모아서 남동생한테 주고 나서 결혼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그를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돌봐주는 마음은 그녀의 정신에너지가 계속 슈퍼에고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그녀는 너무 조용하고 또한 욕망도 없다. 그녀는 자신이 보살펴줘야 한다는 그 사람과 동생의 일을 제외하면 무엇을 하고 싶든지 무엇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녀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슈퍼에고에 머물러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의 곁에 살았지만 같은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도 아니었다. 한 번도 다툰 기억이 없다. 싸워야 할 일이 우리에게겐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욕망이 없었다. 그녀가 보살펴줘야 한다는 그 사람과 동생의 일을 제외하면 무엇을 해야겠다든지 무엇이 돼야겠다든지…… 무엇이 좋다든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나의 외사촌은 늘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다. 내가 언제나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듯이, 외사촌의 발랄함이나 나의 우울은 그곳에 살면서도 늘 그곳 사람들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한 데에서 솟아 나왔는지도 모른다. 외사촌과 나는 그곳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벌써 나의 외사촌은 떠났고 나도 떠날 것이다. 나의 외사촌과 나는 그곳을 떠나야 했기에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되고 싶은 게 뚜렷했고 소유할 수 없으나 갖고 싶은 게 많았다. 그래서 나와 나의 외사촌은 서로 다툰 일이 많았다. 그러나 희재 언니는 아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그 골목이다. 그곳의 전신주이고 구토물이고 여관이다. 그녀는 공장 굴뚝이며 어두운 시장이며 재봉틀이다. 서른일곱 개의 외딴방들이 그녀, 생의 장소다. (331~332쪽)



최소사건24에서 엄마는 큰오빠의 생일날 우리에게 먹이려고 시골에서 닭을 가져온다. 닭을 잡을 줄 모르는 우리는 그 닭을 옥상에 둔다. 희재 언니와 희재 언니의 그 사람은 그 닭과 함께 옥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그때만큼은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정신에너지는 잠시 이드로 흘러가고, 그러던 어느 날 최소사건26에서 희재 언니는 죽은 닭 앞에 앉아 있다. 그 사람은 떠났다. 희재 언니는 자신이 닭에게 약을 먹여 죽었다고 단호하고 싸늘하게 고백한다. 그녀의 정신에너지는 이 부분에서도 이드에 머물러 있다.

그녀의 얼굴이 다시 싸늘해지며 죽은 닭 이야기를 꺼낸다.

“내가 그랬어.” “내가 약을 먹였어.” 그녀는 태연하다. 그 순간의 그녀는 내가 알고 있는 그녀가 아니다. 단호하고 싸늘하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잖아.” (370쪽)

희재 언니는 아이를 가졌고, 따라서 그녀는 결혼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은 결혼할 상황이 못 되니 아이를 지우라고 한다. 이백만원만 모으면 남동생에게 주고 결혼하겠던 그녀는 백 몇 십만 원의 저축을 남겼다. 그리고 천둥이 치는 여름밤 나에게 울며 말한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니?” 결국 희재 언니는 ‘나’에게 시골로 휴가를 간다고 말하면서 하룻길에 방문 열쇠를 채워달라고 부탁하고는 그 방 안에서 자살한다. 그녀는 이드와 슈퍼에고의 갈등으

로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을 느꼈을 것이다. 도덕적 불안은 이드의 충동이 사회의 도덕적·이상적인 규준과 대립되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안이다.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을 것이고, 그녀의 정신에너지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으로 인하여 슈퍼에고가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배하여 자살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에고는 본능적 충동을 즉시 배설하는 대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때까지 연기하거나, 이드와 슈퍼에고의 통합에 쓰이는데 '희재 언니'의 에고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희재 언니'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희재 언니'의 정신에너지는 9개의 최소사건(111) 중 5.5개의 최소사건에서 슈퍼에고에 머물러 있다가 2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에고로 이동한다. 그리고 1.5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로 돌아간다. 따라서 '희재 언니'의 지배적 성격은 〈슈퍼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6) 『19세』

이순원의 소설 『19세』¹¹²⁾는 소년 '이정수'의 성장통을 그렸다. 한 소년의 열세 살에서 열아홉 살까지의 삶의 기억,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그 시절을 이야기한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1970년대 강릉과 대관령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빈약한 날개로 자유롭게 세상을 날고 싶었던 소년 시절, 작가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화자의 눈으로 그 시절을 돌아본다. 논자는 이 소설이 장편소설인 점을 고려하여 주제를 형상화하는

111) 여기서 24¹, 24²는 최소사건24를 나누어 표현한 것으로 최소사건24의 내부에서 '희재 언니'의 정신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희재 언니'의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112) 조현설 외 30인, 고등학교 국어 1, 해냄에듀, 2014.
이순원, 『19세』, 웅진문학임프린트 곶, 2013. (위의 교과서 속에는 작품의 일부분만 실려 있어서 이 책을 텍스트로 삼음)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14개의 장을 중심으로 핵심사건을 요약하고, 이것을 다시 5개의 시퀀스로 묶었다.

〈꿈의 시퀀스〉

1.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애쓰는 열 세 살의 나 (콘사이스)
2. 열네 살이 되자 신체의 급격한 변화로 고민하게 되고 승태에게 나뉘는 성교육을 받음.
(성교육)
3. 열다섯 살이 된 나는 승태 누나를 좋아하게 됨. (승태 누나)
4. 산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키움. (호기심)
5. 처음 올라가 본 대관령에서 규모 있는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함. (꿈)

〈가출의 시퀀스〉

6. 기업 농가를 이루어 돈을 벌고 싶은 '나'는 아버지를 설득해 상고로 진학함. (상고 진학)
7. 입학 후 왼손잡이여서 주산이 안 되고, 상고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달음. (좌절)
8. 여름방학 때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배우며 빨간 지붕에 대한 꿈을 키움.
(빨간 지붕)
9. 형에게 맞은 나는 책과 교복을 불태우고 가출함. (가출)

〈농사 성공의 시퀀스〉

10. 하루 빨리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은 나는 아버지와 두 가지 약속을 함.
(어린 농군)
11. 승태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농사를 지어 돈을 많이 벌고, 어른 흉내를 냄.
(농사 성공)

〈일탈, 어른 놀이의 시퀀스〉

12. 승태에게 자신이 어른임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고 죄의식을 느낌.
(어른 놀이)

〈깨달음의 시퀀스〉

13. 승태 누나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으나 서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로 함. (고백)
14. 열아홉이 되고 지난 행동이 어른 흉내에 불과했음을 알고 학교로 돌아감. (깨달음)

이 소설은 성경의 '탕자의 비유'라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구조를 지녔다. '나' 이정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가출한다. 대규모의 농사를 짓고 큰돈을 벌고 일탈이라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지만, 그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음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행동 분석을 통하여 성격의 심리적 특성과 그 생성과정을 살펴볼게 될 주요 인물은 ‘나’, ‘아버지’, ‘승태’ 등이다.

(1) ‘나(이정수)’의 행동과 성격

‘나’ 이정수에게는 서울대에 다니는 형이 있다. ‘나’는 시험만 보면 도 수석, 전국 수석을 하는 형에 대한 열등감이 강한 13세 소년이다. 그 어린 정수는 최소 사건1에서 4킬로그램이 넘는 책가방을 들고 아침저녁 20리, 하루 40리길 매일 세 개의 큰 고개를 넘어 세 시간씩 걸어 다닌다. 그러나 작다고, 혹은 촌에서 왔다고 선생님이나 급우들이 만만히 볼까봐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교육장상 부상으로 받은 커다란 영어사전을 가방에 넣고 다닐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다. 이상은 최소사건1의 전개 내용이다. 이런 모습에서 ‘나’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에서 에고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필 사건’ 역시 ‘나’의 에고적 성격을 뒷받침한다.

최소사건2에서 ‘나’는 열네 살이 되자 신체의 급격한 변화로 고민하게 되고 ‘나’보다 네 살이나 많은 같은 반 친구 승태에게 나름의 성교육을 받는다. 최소사건3에서는 열다섯 살이 되고 승태 아버지의 부탁으로 승태네 집에서 승태의 공부를 봐주면서 일주일간을 공부한다. 거기서 승태의 누나를 보고 짝사랑하게 된다. 최소사건2에서 승태에게 성교육을 받는 모습이나 최소사건3에서 승희 누나를 이성으로 그리워하는 모습에서는 에고에 머물러 있던 ‘나’의 정신에너지가 이드로 흘러감을 알 수 있다.

형만큼 뛰어نا지는 않지만 ‘나’도 공부를 조금 하면 전교 1등도 하는 학생이다. 그러나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아마 형을 공부로 이길 수는 없으니 다른 무언가로라도 이겨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것이 농사를 지어 돈을 벌고 어른이 되는 것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사건4~5에서 여름방학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꿈을 가지고 승태와 함께 산 너머에 처음 가본 ‘나’는 그 대관령에서 고랭지 농사를 짓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하게 된다. 즉 형과는 다른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나’의 정신에너지는 에고로 흘러간다.

최소사건6에서 중3이 되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상고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3년이면 졸업을 하고 은행원이 된 후에 돈을 모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관령에서 큰 기업 농가를 이루고 싶다는 꿈을 가진 ‘나’는 온 가족이 반대했지만, 아버지를 설득하고 할머니까지 동원하여 상고에 진학한다. 그러나 최소사건7에서 막상 진학한 상고는 주산 부기 등이 주요과목이었고, 왼손잡이인 ‘나’에게 주산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입학 후 한 달 만에 상고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달았다. 최소사건8에서 크게 낙심한 ‘나’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더욱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고 싶어 한다. 그리고 빨간 지붕을 한 별장과 같은 집에서 승희 누나와 함께 사는 꿈을 꾸게 된다. 최소사건6, 7, 8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나’의 정신에너지가 계속 에고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준다.

최소사건9의 전반부에서 겨울방학이 되기 얼마 전 휴가 나온 형에게 정신없이 맞은 날 책과

교복을 불태우고 급기야 가출하는 성급한 '나'의 모습은 정신에너지가 급속하게 이드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억제력이 추진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본능적 충동이 곧장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동네를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는 다시 정신에너지가 에고로 흘러 들어오고 다시 슈퍼에고로 흘러감을 알 수 있다.

동네를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야 결국 그런 식으로 내 손으로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고 만 책과 책가방, 교복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아니,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정말 꼭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까 싶은 게 자식으로서 그런 험한 꼴까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뵈고 말았다는 생각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기에 석유를 끼얹고 성냥을 그어 어대던 순간의 비장감 같은 것도 이미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다음이었다.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도 학교를 다니는 자식이 스스로 불을 지르고 만 책과 교복을 바라보며, 또 거기에 붙은 불을 끄고 나서도 어쩌다 집안에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나 싶어 망연자실하고 있을 것이었다.

(162쪽)

가출한 지 열흘 만에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고 열일곱 살이 되던 해 '나'는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낸다. 최소사건10은 어린 농군의 이야기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어 하던 '나'가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될 수 있는 길은 농사였다. 열일곱이 될 때까지 '나'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으므로, 드디어 '나'는 아버지와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총 7,000평의 농사를 시작한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에고에 있다.

최소사건11에서 '나'는 급할 때는 승태의 도움을 받아가며 배추농사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좋은 배추 모종을 만들기 위해 어깨가 짓물러 피와 고름이 터지면서도 물지게를 지고 밭을 오르내렸다. 이러한 모습은 '나' 스스로 어른이 되기 위한 혹독한 의식을 치러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정수'가 어른이 되고자 그토록 집착하며 갈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자신을 왜소한 존재로 비교하게 만들었던 형과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한 자아로서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신체적인 성숙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 어른으로서의 성숙인 것이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계속 에고에 머물러 있다. '나'는 돼지아빠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 해 배추농사에는 성공한다. 봄에 강릉에서 가져온 책은 3분의 1도 못 읽었으면서도 '나'는 어른 흉내를 내며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닐 뿐만 아니라 다방과 술집을 드나들고 담배도 피웠다. 이렇게 일탈을 일삼는 모습들은 '나'의 에고와 이드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최소사건12에서 열일곱의 '나'는 농사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고마움의 표시로 돼지아빠에게 술을 산다. 돼지아빠와 같이 갔던 그 술집에서 '나'는 어른들의 세계를 본다. 며칠 후 부끄러움에 급히 빠져나온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학교에 있는 승태를 데리고 술집에 간다. 군대에 가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승태에게 이제까지 자신이 아이들의 세계가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서 놀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술집에서 어른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으로 '나'는 어른의 선을 넘어버린다. 이러한 '나'의 정신적 에너지는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다.

지난번엔 돼지 아빠 앞이라 그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만 승태하고 가면 돼지 아빠가 내 앞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승태 앞에 시범을 보이듯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보니 굳이 학교를 찾아가 승태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한 것도 그때 대관령에서 내 마음대로 그러지 못한 어떤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 있어서였던 것 같았다. (247쪽)

그러나 그 어른의 선을 넘은 뒤끝은 열 배의 두려움과 열 배의 어둠보다 더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술집을 나와 경포대로 달리면서 커다란 죄의식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나'의 정신에너지는 슈퍼에고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일곱 살의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마 그 뒤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여자가 상을 치우고, 벽장문을 열어 요를 내려 깔고, 자신의 속치마의 어깨끈을 풀 때까지만 해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의 어른 세계에 대한 적당한 두려움과 적당한 설렘, 적당한 흥분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참으로, 아니, 참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말로도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뒤끝은 열 배의 두려움과 열 배의 어둠보다도 더 허망하고 허망하던 어른의 선이었다. 지난 겨울, 부모님 앞에서 책과 책가방, 교복을 볼 싸지를 때보다 더 크고 깊은 죄의식이 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스며들며 슬픔의 강을 이루었던 것이다. 내 살에 닿아있는 여자의 몸조차 벌레의 그것처럼 보였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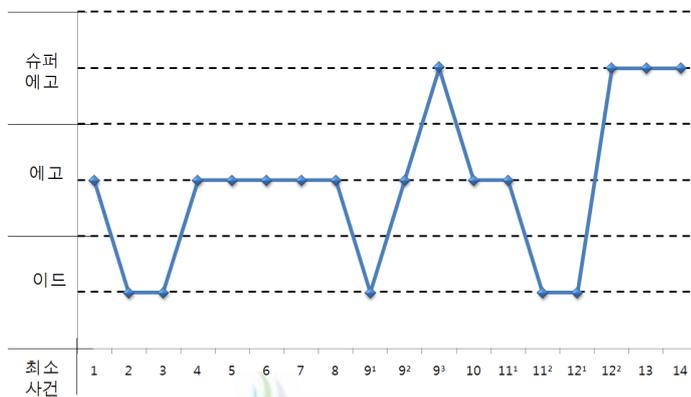
다른 방에 승태가 있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집을 나와 오토바이를 몰고 경포대로 달렸다. 그러면서 지난 늦봄 피고름이 흐르는 어깨로 물지개를 저 나르면서도 흘리지 않던 눈물을 그곳 바다에 와서 흘렸다. 그런 아들에게 실망할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송하고, 내 마음의 첫사랑과도 같은 승태 누나에게도 미안했다. / 그것은 함부로 허망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 나는 참 나빴다. / 열일곱 살의 나쁜 아이였다. (255~256쪽)

이후로 최소사건13에서 '나'는 어른 세계에 대한 허망한 죄의식에서 열심히 책을 읽는다. '나'의 정신에너지는 여전히 슈퍼에고에 머물러 있다. '나'는 열여덟이 되고 더불어 '나'의 농사도 안정됐다. 드디어 승희 누나에게 그동안 품어왔던 '나'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누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따뜻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최소사건14에 와서 '나'는 수확을 마치고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본 후 오토바이를 판다. 지난 2년 동안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울해진다. '나'는 어떤 일에도 다 때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깨달음이었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자신이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하고 있는 어떤 것을 자신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회나 소외감이 조금씩 가슴에 스며들었던 것이다. 드디어 '나'는 나이에 맞는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나온 성찰이 어른의 관문에 들어서기 위해 필요하다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 시기의 성급한 일탈 역시 자신의 성장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어릴 때 성급하게 꿈꾸어왔던 어

큰들의 세계에서 다시 차곡차곡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밟아나가지 않으면 안 될 아이들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도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왔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은 정도에 이른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271~275쪽)

〈그림 17〉 ‘나’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정신에너지는 14개의 최소사건¹¹³⁾ 중 3.3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에 머물러 있고, 2.8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슈퍼예고 있다. 그리고 7.9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예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나’의 지배적 성격은 〈예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2) ‘아버지’의 행동과 성격

최소사건3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사람은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의 정신에너지가 이미 슈퍼예고로 흘러갔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늘 그렇게 살 것도 아닌데 편한 걸 알면 피가 나게 된다. 편한 걸 알게 되면 지 사는 데가 싫어지고 며칠 살아본 편한 곳만 자꾸 생각하게 돼. 니 거기 가서 공부 잘 했더니 애비도 좋긴 하다면, 불편하게 사는 사람은 불편한 게 무엇인지도 알고 또 참고 커야 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니 뭣이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냐?” (56쪽)

“이 다음 느들이 공부한 다음에야 농사일 않겠지만, 그런데도 내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113) 여기서 9¹, 9², 9³과 11¹, 11², 12¹, 12²는 각각 최소사건9, 11, 12를 나누어 표현한 것으로 최소사건 9, 11, 12의 내부에서 ‘나’의 정신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나’의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둘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방학 때 느한테 힘들게 농사일 시키는 것도 우선 일손이 달려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야 어떻게 크든 사람이 지 살고 있는 근본을 모르면 안 되겠기에 그러는 거고.” (56쪽)

아버지는 조선시대의 선비와 같은 꼴꼴함을 가진 사람이다. 승태 아버지가 승태 공부를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집에 자전거를 사 가지고 왔을 때도 당당하고 꼴꼴하게, 그러나 승태 아버지가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모습은 아버지의 슈퍼에고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최소사건6에서 상고 진학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때리고 달래서 ‘나’의 생각을 달리하게 하고 싶지만, 이미 마음에서 떠난 공부가 돌아올 것 같지가 않다는 점과 나중에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상고 진학을 허락한다. 「장마」의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처럼 본능적인 자식 사랑이 아닌 이성과 합리적인 가치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이 부분 역시 아버지의 슈퍼에고적 성격을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때리고 달래서 니 생각을 달리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강고를 간다 해도 이미 니 마음에서 떠난 공부가 돌아올 것 같지가 않다. 이제까지는 그런대로 했다만, 지금 에미 애비가 니 장래를 위한다고 억지로 니 뜻을 꺾으면 그나마 하던 공부도 아예 손을 놓고 영똥한 생각이나 할까 봐 걱정이고, 지금이라도 애비가 널 믿으면 바로잡아보겠지만 널 믿지 못하니 니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놔둔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믿게 할 거예요. 상고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거구요.”

“두 번째는 아직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제부터 니가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길로 가든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든 다음 언젠가는 니가 꼭 가야 할 길로 제대로 갈 거라는 걸 믿는다는 얘기다.” (123~124쪽)

최소사건10에서 아버지는 삶과 배움, 시기에 대해, 그리고 아들 정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반드시 책을 읽도록 했다. 좋은 부모의 모델과 같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슈퍼에고적 성격으로 읽힌다.

“어쩌면 이게 니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니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를 손에서 놓는다고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예. 명님(명님)할께요.” “니두 이다음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니가 갈 길을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게야.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쳐지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190~1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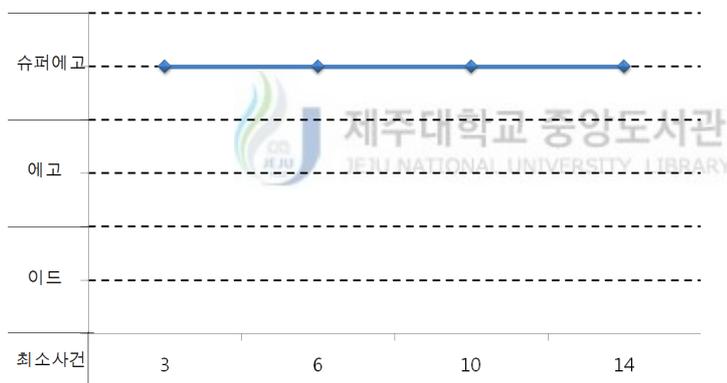
그리고 자식을 믿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 시대의 부모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최소사건 14에서 늦기는 했지만 제자리로 돌아온 아들을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아버지의 모습 역시 슈퍼 에고적 성격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전형으로 보인다.

“그동안 니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 거야 농사랄 것도 없이 노름이고 장난인 거지, 너는 그걸로 무얼 벌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 다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그건 앞으로 니가 하기 나름인 게지.”

“해도지도 내놓고요. 석중이 아저씨가 얻든 다른 사람이 얻든 받주인한테도 미리 말해놓고 내려왔어요. 내년엔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니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 (273쪽)

〈그림 18〉 ‘아버지’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정신에너지는 소설의 전편에서 계속 슈퍼에고적 성격을 유지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지배적 성격은 〈슈퍼에고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3) ‘승태’의 행동과 성격

승태는 같은 반 친구이지만, ‘나’보다 네 살이나 많다. 최소사건2에서 승태는 ‘나’에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와 성적인 호기심에 대한 불안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승태와 ‘나’는 가까워진다. 나이가 네 살이나 많은 승태는 ‘나’보다 성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서 ‘나’는 그를 성교육 선생ником으로 삼는다. 승태는 순하고 어리숙하다. 승태가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외국 잡지를 보거나 하는 모습은 그의 정신적 에너지가 이드로 흘러감을 보여준다.

최소사건3에서 승태는 공부에 욕심을 낸다. 승태의 정신에너지는 예고로 유입된다. 최소사건5에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녀본 승태는 산 너머 대관령에 가보고 싶다는 '나'의 부탁을 들어준다. 여름방학이 되자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승태는 의리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관령을 넘어갈 때 '나'가 멀미로 고생하게 되면서 연신 승태에게 짜증을 부리지만 승태는 '나'에게 봉지를 대주고 등을 문질러 주며 온갖 짜증을 다 받아준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의 정신에너지가 예고를 거쳐 슈퍼예고로 흘러들어 감을 알 수 있다.

“자전거 걱정은 하지 말라니까. 이럴 때 소주 먹으면 좋다는데.”

“소주는 새끼야, 약을 먹어야지.”

“약이 없으니 하는 얘기지.”

“그럼 소주는 있나? 이 멀대야.”

“욕하지 말고. 창문 쪽으로 바람 좀 쐬고.”

“니가 한 번 게워봐라. 욕이 저절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나는 연신 승태에게 짜증을 부렸다. (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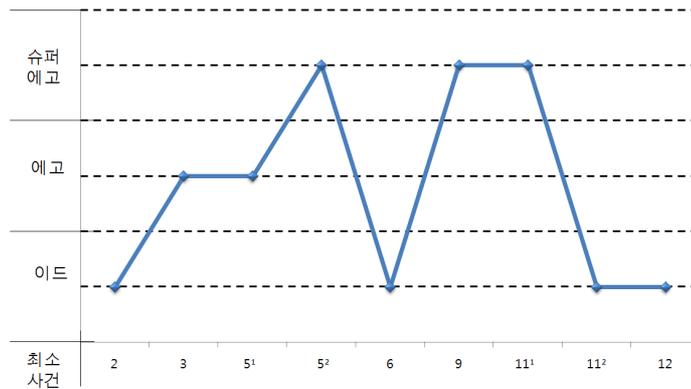
최소사건6에서 승태는 성산 차부 아주머니가 우리를 속인 일에 억울함을 느껴 오텩 술을 건어차고 도망친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한 가갯집 은혜에게 쓴 편지는 주소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반송된다. 이런 모습들은 슈퍼예고에 머물러 있던 승태의 정신에너지가 이드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소사건9에서 내가 가출해서 승태를 찾아갔을 때 기어이 제 주머니를 뒤져 내 손에 500원짜리 두 장을 쥐여 주고 버스에 오른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 역시 의리 있는 모습이다. 최소사건11에서는 '나'가 일꾼들이 필요해 애타는 상황에서 승태는 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다 해결해준다. 그러나 그런 그의 정신에너지는 다시 다방의 오양에게로 향하는 호기심으로 이어져 이드로 흘러간다. 최소사건12에서 그리고 학교 수업시간을 빼먹고 출석부를 들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으로 가는 승태의 모습도 그의 정신에너지가 여전히 이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승태는 나이만 많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친구이다. 승태의 정신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이드에 머물러 있고, '나'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은 예고, 의리가 있는 모습은 슈퍼예고적 성향으로 보인다.

승태를 찾아가 그 얘기를 했다. 땅은 이미 빌려 놓고 너희들이 만들어준 포트를 차곡차곡 세울 온상 자리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포트에 흙을 채워 줄 일꾼들이 없어 올해 농사를 지어보기도 전에 망하게 생겼다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일 모레 학교 끝나자마자 애들 끌고 올라갈 거니까.” (200쪽)

〈그림 19〉 ‘승태’의 성격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승태’의 정신에너지는 7개의 최소사건¹¹⁴⁾ 중 3.5개의 최소사건에서 이드에 머물러 있고, 1.5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에고에 있다. 그리고 2개의 최소사건에서는 슈퍼에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승태’의 지배적 성격은 〈이드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114) 여기서 5¹, 5², 11¹, 11²는 최소사건5과 11을 각각 나누어 표현한 것으로 최소사건5과 11의 내부에서 ‘승태’의 정신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승태’의 성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했다.

IV. 성격유형의 탐색과 제안

이제, 이 장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6편의 성장소설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주요 작중인물의 성격 특성을 유형별로 정리할 차례이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장소설에 내재된 인물들의 성격과 성향의 빈도를 고찰함으로써 작품 선정과 수록상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성격유형 분류

프로이트가 제시한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세 가지 성격 구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성격유형은 총 일곱 가지이다. 인물의 성격을 유형화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는 단일성격유형이며 둘째는 복합성격유형이다.

단일성격유형에는 이드적 유형, 에고적 유형, 슈퍼에고적 유형이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섞여 있는 복합형에는 이드+에고적 유형, 이드+슈퍼에고적 유형, 에고+슈퍼에고적 유형, 이드+에고+슈퍼에고적 유형의 네 가지가 있다.

그러나 III장 2절의 분석 과정을 통하여 현행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중인물들에 내재된 성격유형은 다섯 가지로 드러난다. 즉, 이드적 유형, 에고적 유형, 슈퍼에고적 유형, 이드+에고적 유형, 이드+에고+슈퍼에고적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성격유형을 차례대로 탐색해 보기로 하자.

1) 이드적 유형

이드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어떤 가치 관념이나 윤리 의식 또는 도덕성 따위와도 무관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 이른 바 동물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퍼스널리티를 보여준다. 「봄·봄」의 '장인', 「장마」의 '친할머니', 「중국인 거리」의 '나', 「우상의 눈물」의 '최기표', 『19세』의 '승태'가 이드적 성격유형에 해당한다.

「봄·봄」의 '장인'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며, 혼인을 미끼로 '나'를 부려먹는 교활한 인물이다. 게다가 욕을 잘하고 허세가 대단하다. 그의 에고는 이드의 추진력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단지 본능적인 욕구만이 작용할 따름이다.

「장마」의 '친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목숨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강한 모성애로 인하여 이성을 잃고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드의 추진력이 에고의 억제력의 통제를 벗어난다. '부정'의 방어기제가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인 거리」의 '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아이들과 함께 석탄을 훔치기도 하고,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친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기도 한다.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써가며 어머니를 계모라고 말하는 '나'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는 도덕도 논리적인 사고도 작용하지 않

는다.

「우상의 눈물」의 ‘최기표’는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잔인하고 포악하다. 빈곤이라는 자신의 현실적 고통을 ‘보상’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이겨보려 한다. 그러나 담임과 형우의 주도면밀한 위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출하고 만다.

『19세』의 ‘승태’는 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단순하며 순진하다. 이드의 추진력을 예고가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들은 오직 쾌락의 원칙에 따른 본능의 충족을 위해 쫓기고 있는 것이다. 이드는 예고에 의해 억제되고 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인물들의 예고는 이드를 굴복시킬 만큼 발달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이드가 행동이나 원망 충족을 통해 배설되는 길을 택한다. 이드는 외부보다는 신체 내부 과정에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드는 어떠한 긴장도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충동적으로 나타난다. 성급하고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오직 쾌락만을 추구한다. 이드의 에너지는 항상 유동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배설되기도 하고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2) 예고적 유형

예고는 정신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위로부터 슈퍼예고의 명령과 아래로부터 이드의 충동, 그리고 외계로부터 오는 현실의 요구를 중재하고 조종하는 일종의 통제탑 역할을 한다. 이렇게 현실 원리의 지배를 받는 예고적 성격은 환경과 이드 사이의 중개자로서, 이드의 욕구 충족 에너지를 억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와 개인이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욕망을 선택하기에 현실적이고 타산적이다. 이 성격유형은 주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행동을 보인다. 「우상의 눈물」의 ‘임형우’와 ‘담임선생’, 『19세』의 ‘나’가 대표적인 예고적 성격이다.

「우상의 눈물」의 ‘임형우’는 학급을 헌신적으로 잘 이끌지만, 위선적이다.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 악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자기합리화’의 방어기제를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학생으로 낙인찍어 그를 길들이려 한다.

같은 작품의 ‘담임선생’은 자기 뜻대로 학급을 이끌기 위해 군왕처럼 군림하며 아이들을 조종한다. 권위적이고 치밀한 성격으로 ‘자기합리화’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 동정심으로 진의를 은폐한 뒤 그 의도를 눈치 채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지만, 기표의 가출로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담임의 행동이나 말에서 교육적이거나 윤리적인 면은 찾아볼 수가 없다.

『19세』의 ‘나’는 자존심이 강하고, 형에 대한 열등감이 강한 아이로서 경제적인 능력을 지닌 어른이 되고자 한다. 완전하게 독립한 자아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다.

이상의 인물들은 자신의 본능을 억압하면서 자아상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우상의 눈물」의 ‘임형우’와 ‘담임선생’은 예고적 성격이긴 하나 『19세』의 ‘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우상의 눈물」의 ‘임형우’와 ‘담임선생’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 성격이 표출되는데 이 역시 본능을 숨기

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본능 즉 이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현실 원칙에서는 예고가 이를 용납하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 억압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존재로 보일 수도 있다.

예고는 퍼스널리티의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드와 슈퍼예고를 다스리고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총체적 인격과 장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작용한다. 예고가 집행기능을 슬기롭게 해내는 경우에는 조화와 적응 성공이 뒤따른다. 그러나 만약 예고가 이드나 슈퍼예고 또는 외계에 대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부조화와 부적응이 뒤따르게 된다.

3) 슈퍼예고적 유형

『외딴방』의 ‘큰오빠’와 ‘희재 언니’, 『19세』의 ‘아버지’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외딴방』의 ‘큰오빠’는 육남매의 장남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다.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외딴방의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낮에는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 다니며 집안의 기대와 동생들의 삶까지 떠안고 있다. 군대기간 후로는 낮에는 동사무소에서 방위 근무를 하고 밤에는 양복을 입고, 가발까지 써 가며 학원 강의를 한다. 책임감이 강하고 굳은 의지를 지닌 인물이지만 ‘나’의 눈에는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엄격한 보호로 ‘나’의 정신적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한 그의 모습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많은 충동이나 원망을 억압한 것으로 파악된다. ‘억압’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방어기제이다.

같은 작품의 ‘희재 언니’는 아직까지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인물이다. 서른일곱 개의 방들 중 다른 한 칸에 살았던 그녀는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큰오빠는 ‘나’에게 희재 언니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하여 따른다. 희재 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꿈마저 억압하는 그녀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열중한다. 그런 그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이드와 슈퍼예고의 갈등으로 인하여 매우 심한 도덕적 불안을 느낀다. 결혼을 할 수 없기에 뱃속의 아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그녀의 정신에너지는 점점 커지는 수치심으로 슈퍼예고가 지나치게 팽배하여 결국 문을 잠근 채 자살하고 만다. 그녀의 예고는 이드와 슈퍼예고를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희재 언니는 유신과 신군부 시절을 거치는 암울한 시기에 노동 현장으로 몰렸던 많은 소녀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의 ‘아버지’는 공부를 할 만큼 했으나 종가의 종손이므로 부모의 명에 의해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다. 기품이 있고 지식이 있는 아버지는 농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자식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판단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다리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전형으로 보인다. 쾌락이나 현실원리보다는 도덕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슈퍼예고는 이타적이고 사회적 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양심과 도덕을 중시한다. 정신에너지가

슈퍼에고의 영역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의 태도는 매우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다. 에고의 억제력은 에고가 만족스러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본능의 요구를 연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슈퍼에고의 일부인 양심의 금지 작용은 이드의 어떠한 요구이든지 모조리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본능의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슈퍼에고가 이드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드에 농락당하는 경우도 있다. 즉 슈퍼에고가 이드와 동맹을 맺고 에고와 현실 세계에 대해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양심이 너무 강한 사람의 슈퍼에고는 에고에 대해 공격적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에고는 큰 상처를 받고 일종의 절망을 느끼게 된다. 결국 자신의 신체를 해치기도 하고 더러는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이때 자학이나 자해 행위는 이드의 공격 충동을 만족시키는 결과가 됨을 알 수 있다. 『외딴방』의 ‘희재 언니’가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슈퍼에고 역시 이드와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실을 왜곡한다. 에고의 현실적 사고를 왜곡하는 것이다. 에고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싫어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가지고 보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2차적 사고와 현실 진단 및 현실 원칙에 입각한 사고나 판단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4) 이드+에고적 유형

「봄·봄」의 ‘나’와 ‘점순’, 「장마」의 ‘외할머니’, 「중국인 거리」의 ‘치옥’과 ‘할머니’가 이 유형에 속한다.

「봄·봄」의 ‘나’는 ‘점순’이와 성례시켜준다는 ‘장인’의 말만 믿고 변변한 대가 없이 머슴 일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음흉하고 교활한 장인은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점순이의 키가 덜 자랐다는 이유로 변변히 혼례를 미루고 있다. 점순이는 둘째딸이고 셋째 딸은 지금 여섯 살. 적어도 열 살은 돼야 데릴사위를 들일 수 있으므로 장인은 나를 그 때까지는 부러먹을 속셈이다. 그러나 이런 속셈을 모르는 순진한 ‘나’는 점순이의 키가 빨리 클 수 있게 물을 대신 길어도 주고, 서낭당에 돌 올려놓고 치성도 드렸지만 헛수고였다. 숙맥인 ‘나’에게 당찬 점순이는 충동질을 하고, ‘나’는 구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중재를 요청하지만 구장도 소작인 입장이므로 장인의 편을 들며 ‘나’를 회유한다. 올 가을에는 반드시 성례시켜준다는 장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돌아온 ‘나’에게 다음 날 아침 점순이는 다시 충동질을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결국 장인과 대판 몸싸움을 벌이며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린다. 이러한 ‘나’와 장인의 싸움에서 내 편을 들 줄 알았던 점순이는 장인의 편을 들어 내 귀를 잡아당긴다. 머리가 터지도록 얻어맞은 ‘나’는 약을 발라주며 올 가을엔 성례시켜준다는 장인의 말에 감동하여 또 다시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간다. 순박하고 우직한 ‘나’는 에고의 억제력으로 이드의 추진력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간혹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가 아프다고 일을 하지 않는 ‘수동공격적 행동’이나 ‘자기 합리화’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동일 작품의 ‘점순’이는 적극적이고 야무지며 활달한 소녀이다. 눈치가 빠르고 영악하다. 나이는 ‘나’보다 열 살이나 어리지만 어리숙한 ‘나’에게 당차게 쏘아붙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성례를 요구하라고 충동질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요구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하는 ‘나’와 ‘장인’의

몸싸움에서는 '장인'의 편을 들어 순진한 '나'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나'와의 성례를 원하지만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방법을 잘 아는 '점순'이는 이드와 에고의 양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장마」의 '외할머니'는 꿈의 예언적 기능을 철저히 믿으며,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억압'의 방어기제를 써 가며 억제하지만 결국 자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그녀의 에고나 슈퍼에고는 본능적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결국 증오심을 억누르지 못한 '외할머니'의 에고는 이드의 추진력을 억압하지 못하여 '친할머니'와 대립하게 된다. '외할머니'는 에고와 이드의 양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 거리」의 '치옥'은 의붓자식이며 '나'의 급우이다. 양갈보가 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치옥'은 쾌락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원리의 지배를 받아 미용사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치옥'의 계모는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로 '치옥'을 자주 때리고 나가 죽으라고까지도 말한다. 결국 '치옥'이 마음 붙일 곳은 이층에 세 들어 사는 매기 언니와 그녀의 딸 제니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약속했던 검둥이가 매기 언니를 죽이고 제니는 고아원으로 보내진다. '치옥'의 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후 그녀의 가족은 중국인거리를 떠나고 '치옥'은 미장원에서 일을 한다. 그녀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드의 추진력은 에고의 현실적 욕구와 동등하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같은 작품의 '할머니'는 아이를 낳아본 적 없이 소박을 맞은 자신의 과거로 인해 유난히 정갈하고 차가운 성품을 지니게 된다. 그러한 그녀의 원한은 고양이가 자신의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도록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깨어진 결혼 생활에 대한 동경과 남편에 대한 미련은 끝내 버리지 못한다. 그녀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드적 성향을 보이지만 동네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우리의 외할머니로 알 정도로 현실 원리를 따라 행동하기도 하여 에고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드와 에고의 양면적 성향을 주로 보이는 인물은 본능적 욕구 충족을 이루려는 추진력이 현실적 욕구와 동등하게 작용하면서 건전한 에고로 이행하는 면을 보인다. 이드의 본능적 욕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기 시작하는 유전적 요소이다. 이것은 현실의 경험과 훈련 학습을 통해 점차로 제거되기 시작한다. 이드에서 본능적인 요소가 사라지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 사고, 기억 등 에고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프로이트는 정신에너지가 에고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본능적 에너지가 다 제거된 것은 아니고 자신에게 새로운 욕구가 나오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시키지 못할 경우, 에고나 슈퍼에고 수준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본능적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다. 성장하면서 본능의 주관적 요소와 현실의 객관적 요소를 동일시시키는 즉, 에고의 이차적 과정을 이루는 경험이 얼마만큼 있었느냐에 따라 이드의 본능적 행동의 횟수가 좌우된다.

5) 이드+에고+슈퍼에고적 유형

「장마」의 '나'와 「우상의 눈물」의 '나', 『외딴방』의 '나'가 이 유형에 속한다. 「장마」의 '나'는 초콜릿에 눈이 멀어 삼촌을 밀고하고, 맥고자의 사내에게 치명적인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

한다. 삼촌이 온다는 날 나타난 구렁이에게는 적의와 파괴욕으로 돌맹이를 집어 든다. 이런 ‘나’의 모습은 이드의 공격 본능이나 쾌락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맥고자의 사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외삼촌에 대한 존경심이 드러나는 부분에서 ‘나’는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하여 현실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더 나아가 자식을 그리워하고 애달파하는 외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여 모욕을 참아내고, 자신으로 인해 고문을 받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밀고한 일을 죽도록 후회한다. 더불어 친할머니의 임종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부분에서는 ‘나’의 퍼스널리티가 도덕적 원리의 지배를 받아 균형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상의 눈물」의 ‘나’는 합리적이며 날카로운 판단력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충동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담임이 기표를 부반장으로 임명하려 할 때, “선생님, 기표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표의 힘을 빼어 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와 같이 담임의 의도를 간파한다. 또한 기표의 부정행위를 돕자고 반장이 제의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하자는 거냐? 기표냐,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나?”고 물으면서, 기표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그의 권위를 손상시키려는 반장의 속셈을 들춰내기도 한다. 이렇게 판단력이 뛰어나고 용기도 가지고 있어 예고와 슈퍼예고의 성향을 보이지만, 폭행에 대한 소문이 떠도는 동안 공포에 휩싸이는 모습은 이드적 성향을 표현하기도 한다.

『외딴방』의 ‘나’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오빠와 동생 사이에 끼여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다. 16세에 상경하여 공장에 다니면서 오빠들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산업체 특별반에서 어렵게 공부한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인물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희재 언니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작가가 된 이후로는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자의식에 시달린다.

이 유형의 인물은 이드의 본능에 따른 쾌락원리와 예고의 현실원리를 따르면서도 사회·도덕적 규제도 인식한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에너지는 이드와, 예고와 슈퍼예고로 적당하게 골고루 이동한다. 이는 좌절감과 불안감도 능숙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안정적인 성격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닦칠 수 있는 외부적 요소로부터 좌절감과 불안감을 능숙한 솜씨로 제거하는 학습을 익혀야 한다. 「우상의 눈물」의 ‘나’는 기표 일행에게 담뱃불로 지짐질을 당했어도 그 불안감과 좌절감을 능숙하게 이겨 나간다. 『외딴방』의 ‘나’ 역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녀야 하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리고 비참한 노동 현실과 노사 갈등 속에서도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산업체 특별학교에서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희재 언니의 자살로 인한 상처를 글쓰기를 통해서 극복하려 노력한다. 이는 ‘나’의 이드, 예고와 슈퍼예고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드의 충동은 주로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이다. 예고는 이드와 슈퍼예고를 모두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타협점을 찾으려 하며 현실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이드와 외계와의 매개 역할을 하여 현실에 맞추어 이드의 활동을 이성적으로 지배한다. 이드가 선천적이고 무의식적인 데 비해 예고는 후천적이고 주로 의식적이다. 슈퍼예고는 사회의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것으로 도덕원칙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양심을 말하며, 슈퍼예고는 어려서 아이가 부모의 도덕적 표준에 동일

시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유형의 인물은 이러한 세 가지의 성격 요소가 균형이 잡혀 적절하게 안정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탐구해온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교과서에 실린 성장소설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 특성과 지배적인 성격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 과 같다.

<표 3> 작중인물의 성격유형과 행동 특성

성격유형	작중인물	행동 특성
이드적 유형	「봄·봄」의 장인	음흉함, 교활함, 이기적, 체면치레 좋아함, 인색함, 욕심 많음, 자기중심적, 욕쟁이, 못된 손버릇, 허세가 많음.
	「중국인 거리」의 나	두려움, 호기심, 욕망, 당참, 슬픔, 동정, 연민, 비관적, 공포, 절망감, 막막함, 비애.
	「우상의 눈물」의 최기표	잔인, 음침, 포악, 공격 본능, 교활, 위압, 반항, 폭력, 두려움.
	「장마」의 친할머니	분노, 모성에, 집착, 격분, 비논리적, 비이성적, 무속신앙에 대한 강한 믿음, 기다림, 감사, 용서.
	『19세』의 승태	순함, 어리숙함,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 억울함, 의리
예고적 유형	「우상의 눈물」의 임형우	진중함, 교만, 결단력, 용기, 인기, 성실성, 의협심, 착해 보이는 외모, 겸손함, 위선적, 교활함.
	「우상의 눈물」의 담임선생	권위적, 치밀함, 학생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함, 획일적, 이기적, 위선적.
	『19세』의 나	자존심,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 동경, 꿈, 충동, 죄책감, 참음, 일탈, 두려움, 설렘, 허망함, 죄의식, 깨달음.
슈퍼예고적 유형	『외딴 방』의 큰오빠	책임감, 굳은 의지, 단정함, 따뜻함, 성실, 부지런함, 바른 인성, 공손함, 예의바름, 우애 깊음, 이타적.
	『외딴 방』의 희재 언니	피로, 죽음, 무욕, 조용함, 보살핌, 이타적, 죄책감, 부끄러움.
	『19세』의 아버지	기품, 자존심, 근본 강조, 적절한 가치 판단, 깨끗함, 자식에 대한 믿음, 독서의 중요성 강조, 기다림, 용서
이드+예고적 유형	「봄·봄」의 나	순진함, 우직함, '점순'과의 성례를 원함, 폭력, 바보스러움, 자존심, 어수룩함.
	「봄·봄」의 점순	당참, 아무짐, '나'와의 성례를 원함, 충동질, 부끄러움, 눈치 빠름, 영악함.
	「중국인 거리」의 치옥	비밀, 단호함, 슬픔, 영악함
	「중국인 거리」의 할머니	동경, 깨진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 정갈, 냉정, 위약, 저주
	「장마」의 외할머니	꿈의 예언적 기능을 믿음, 슬픔을 자제함, 이성을 잃음, 그리움, 모성에, 무속신앙에 대한 강한 믿음, 저주, 자부심, 집착
이드+예고+슈퍼예고적 유형	「우상의 눈물」의 나	공포심, 합리적, 자존심, 판단력, 용기
	『외딴 방』의 나	노력, 감수성, 내성적, 두려움, 도전 의식, 그리움, 작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의식, 외로움, 꿈, 슬픔, 고독, 충격, 피로, 우울, 죄책감
	「장마」의 나	외할머니를 위하여 참음, 초콜릿의 유혹에 넘어감, 호기심, 치명적인 배신감, 분노, 이성적, 논리적, 두려움, 죄책감, 적의, 파괴욕, 용서

분석 결과 이드적 성격유형은 5명, 예고적 성격유형은 3명, 슈퍼예고적 성격유형은 3명, 이드+예고적 성격유형은 5명, 이드+예고+슈퍼예고적 성격유형은 3명으로 나타났다. 프로이트의 성격발달이론을 통해서 교과서 속 성장소설 인물을 성격유형별로 탐색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작중인물의 성격유형 분석 결과

성격의 유형	인원수	「봄·봄」	「중국어 거리」	「우상의 눈물」	「장마」	『외딴방』	『19세』
이드	5	장인	나	최기표	친할머니		승태
예고	3			임형우 담임선생			나
슈퍼예고	3					큰오빠 희재 언니	아버지
이드+예고	5	나 점순	치옥 할머니		외할머니		
이드+슈퍼예고	0						
예고+슈퍼예고	0						
이드+예고+슈퍼예고	3			나	나	나	
계	19명	3	3	4	3	3	3

2. 문학교육적 제안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의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일선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는 교과서 중에는 성장소설을 수록하지 않은 텍스트가 대부분이다. 2013년 8월, 검정이 통과된 국어 I 과 국어 II를 비롯한 문학 11종 등 총 33권 중에서 7권의 교과서에만 성장소설이 실려 있고, 나머지 26권에는 한 편도 실려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장소설이 수록되지 않은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성장소설이 주는 특수한 문학교육적 효용성과 그 체득 기회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문학교육의 원론 차원에서도 성장소설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야만 할 심리학적 근거와 필요성은 다대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소설 속의 작중인물들이 학습 독자들과 비슷한 발달단계에 있거나 같은 또래의 청소년층의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학습독자들은 성장소설을 읽고 감정이입을 통하여 소설 속 주인공들과 유사한 성장과정이나 심리적 발달단계를 공유하는 체험을 한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학습자들은 성장소설을 빌려 바람

직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건강한 인성발달을 촉진시키는 심리적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위의 <표 4>가 증명하듯이, 작중인물들의 성격유형 분석 결과 '이드'와 '에고' 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만하다. 즉, '이드적 유형'이 5명, '에고적 유형'이 3명, '이드+에고적 유형'이 5명이다. 이는 전체 분석 대상 인물 19명의 68%에 해당하는 13명의 인물들이 '이드적 유형'과 '에고적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들이 다양한 성격유형의 인물들을 형상화한 성장소설을 균형 있게 수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생의 가장 민감한 정서적 시기를 살고 있는 청소년 독자들은 성장소설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이나 동일시라는 심미적 체험과정을 통하여 성격 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의 인물들의 성격이 다양하고 조화로운 유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두세 가지 성격에 치우친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예를 들면 「봄·봄」, 「중국인 거리」, 『외판방』에는 두 가지 성격유형만 보이고, 「장마」, 「우상의 눈물」, 『19세』에는 세 가지 유형이 보일 뿐이다. 다양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학습독자들에게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인간상을 길러주는 것이 소설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때,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성장소설은 그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교과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심사를 할 때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인물 성격 분석을 통하여 텍스트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나 작가 중심으로 수록하는 경향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논자는 문학교육 차원에서 성장소설의 검정과 수록작품 선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 문학적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고등학교 학습독자들이 개연성과 또래의식을 느끼고, 감정이입이 수월한 성장소설을 국어와 문학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중·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들이 학창 시절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의 문학적 취향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문학적 교양을 쌓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은 단순히 교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 독자의 심미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더구나 청소년 독자들은 성장소설의 인물들이 그들과 비슷한 또래로 설정되어 흥미를 갖고 작중인물의 행동과 성격, 그리고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가치의 내면화에 쉽게 이르는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성장소설은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목을 체득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에도 수월하게 접근시킬 수 있다. 이처럼, 성장소설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정체성 형성에 의미 있는 학습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연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교과서에 성장소설을 수록할 때에는 다양한 인간상을 풍부하고 조화롭게 함유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한 성장소설들은 청소년 학습자들에게 바람직한 성격과 인간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성 교육적 강점을 지닌다. 이를테면, 청소년 독자들은 소설 속의 다양한 인물들이 갈등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인

간상을 체득해가는 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성격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들은 다양한 성격유형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런 현상은 작중인물의 성격에 대한 정밀 분석이나 선행 연구 없이 문학적 완성도나 작가 중심으로만 텍스트를 선정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텍스트의 문학적 완성도 못지않게 작중인물의 성격유형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조화로운 인물 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록작품 선정과 검정에 앞서 대상 작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인물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문학적 성과와 더불어 인물 성격유형의 다양성을 겸비한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내재한다. 청소년 독자들은 다양하고 조화로운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미래의 보다 바람직한 세계와 다양한 인간상을 꿈꿀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터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선정과 검정에 앞서 인물들의 성격적 특성과 유형성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학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가치는 곧 작품의 문학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상을 함의한 작품을 선정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V. 결론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작중인물의 성격유형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성장소설의 개념과 장르적 의미를 알아보고 그 문학교육적 함의를 살펴 보았다. III장 1절에서는 분석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을 연구하였다. 그가 제시한 인물의 성격 형성구조와 역동성, 성격의 발달 단계와 각종 방어기제를 탐구하였다.

III장 2절에서는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하여 2014학년도 신입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총 46권의 교과서에서 6편의 성장소설을 찾아내어 텍스트로 삼고, 이야기의 주제소를 최소사건과 시퀀스로 정리하여 행동 속에 내재된 인물들의 지배적인 성향을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분석 텍스트로 선정된 6편의 소설 속에서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주요 작중인물은 모두 19명이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방법과 구조주의 방법을 원용하여 그들의 행동 변이와 행동 특성을 분석한 뒤, 그 결과로써 드러난 성격 요소 중에서 지배적인 성향을 추출하여 각 인물들의 성격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의 생성과정과 행동 특성을 유기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 표상 방식과 설명의 방식을 절충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작중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작품 속의 중요한 사건이나 행동과 연계시켜 과정별로 추적함으로써 그 변화의 추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작중인물의 성격 요인은 모든 행동과 사건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 속에서 지배적인 성향을 추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IV장 1절에서는 앞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중인물의 성격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본능에 충실하여 쾌락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이드적 유형'이 5명, 현실을 인식하고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는 '에고적 유형'이 3명,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슈퍼에고적 유형'이 3명,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려는 속성과 그것을 현실의 올바른 판단과 연결시켜 역동적 단계를 밟아가는 '이드+에고적 유형'이 5명,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가 균형을 잘 이룬 '이드+에고+슈퍼에고적 유형'이 3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의 선정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내재해 있음을 반증한다.

첫째, 현재 일선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는 교과서 중에 성장소설을 수록하지 않은 텍스트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들에게 감정이입이 수월한 또래집단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성격 형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한다.

둘째, 성격유형 분석 결과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 텍스트의 인물들이 주로 '이드'와 '에고'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바람직한 성격과 인성 형성에 도움을 주려는 문학교육적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의 인물들의 성격이 다양하고 조화로운 유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두세 가지 성격에 치우친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풍부하고도 다양한 성격과 인성 경험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성격 체험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문학교육적 차원에서 성장소설의 검정과 수록작품 선정 시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문학적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고등학교 학습독자들이 개연성과 또래의식을 느끼고, 감정이입이 수월한 성장소설을 국어와 문학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둘째,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에 성장소설을 수록할 때에는 다양한 성격의 인간상을 풍부하고 조화롭게 함유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록작품 선정과 검정에 앞서 대상 작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인물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할 문학작품은 그 작품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청소년들에게 인물과 구조, 주제 등을 다양성과 심오성, 균형성 등의 메커니즘 속에서 풍부하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 속 다른 소설의 등장인물 성격유형에 대한 연구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문명진 외 8인, *고등학교 국어 I*, 창비, 2014.
신동훈 외 15인, *고등학교 국어 II*, 두산동아, 2014.
이삼형 외 6인, *고등학교 국어 I*, 지학사, 2014.
이승원 외 8인, *고등학교 문학*, 좋은 책 신사고, 2014.
조현설 외 30인, *고등학교 국어 I*, 해냄에듀, 2014.
한철우 외 10인, *고등학교 국어 II*, 비상교육, 2014.
한철우 외 7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4.

- 김유정, 「봄·봄」, 『20세기 한국소설 05』, 창비, 2013.
신경숙, 『외딴방』, 문학동네, 1999.
오정희, 「중국인 거리」, 『20세기 한국소설 33』, 창비, 2013.
윤홍길, 「장마」, 『20세기 한국소설 28』, 창비, 2013.
이순원, 『19세』, 웅진문학임프린트 곶, 2013.
전상국, 「우상의 눈물」, 『20세기 한국소설 24』, 창비, 2013.

2. 단행본

- 김열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노안영·강영신 공저, 『성격 심리학』, 학지사, 2004.
미하일 바흐친, 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박아청, 『성격 심리학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8.
박영목·한철우·윤희원 공저,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5.
오한진, 『독일 교양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9.
윤가현 외, 『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09.
이명섭 편,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을유문화사, 1989.
이보영 외,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이재창 외, 『성격심리학』, 태영출판사, 2009.
임규혁·임웅, 『교육심리학』, 학지사, 2007.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4.
찰스 E. 메이 엮음, 최상규 옮김, 『단편 소설의 이론』, 정음사, 1983.
겔빈 S. 홀 지음,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R. 윌렉·A. 워렌,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95.

3. 논문

- 고성혜, 「문학교육으로서의 성장소설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권경미, 「박완서의 성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김병익, 「성장소설의 문화적 의미」, 『세계의 문학』, 1981.
- 김영선, 「성장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법」, 『동국어문학』 제12집, 2002.
- 김윤식, 「유년시절을 그린 두 개의 소설」, 『사상계』, 1970.
- _____, 「교양소설의 본질」, 『한국현대소설 비판』, 일지사, 1981.
- 김제환, 「Freud의 성격 형성론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6집, 서울교육대학교, 1983.
- 박정운, 「오정희 소설의 상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박훈하, 「1950년대 소설 담론의 주체 형식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서봉연,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 『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서중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현대소설 인물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안성수, 「현대소설의 교수방법과 표상형식-(그림지도법)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백록논총』 제1집, 1999.
- _____, 「욕망과 갈등의 통합적 연구 방법」, 『백록어문』 제27집, 2014.
- 유지민, 「성장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이연주, 「동화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유형 연구 -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이재선, 「황순원과 통과제의의 소설」,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2.
- 임연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화의 인물 분석」,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조미연, 「초등학교 동화 교재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조항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재 성장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최은영, 「성장소설의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최인자, 「한국 현대소설 담론 생산 방법 연구 - 반담론과 문학교육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시학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s' Personality types of Bildungsroman

Kang Min Chae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 Soo

Bildungsroman is a narrative genre which depicts the cause,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immature and incomplete beings' entering into the stage of maturity. Adolescents have a high interest in 'development', for they make much efforts to explore their existence and establish self-identity. Therefore, bildungsroman offers a decisive motivation in developing teenagers' personalities and forming their identities. Adolescent readers endeavor to develop desirable personalities through empathy in the process of reading bildungsroman. So, it is significantly essential to create characters with diversity and individuality.

The researcher examined behavior characteristics of 19 characters based on 6 bildungsroman from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literature textbooks.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19 characters are represented on a graph, using Sigmund Freud's personality theory as a tool. In the process, characters' personalities are classified into 3 single personality types and 4 complex personality types.

As a result, the research showed that of total 19 characters, there are 5 characters of 'id' personality type, 3 of 'ego' personality type, 5 of 'id+ego' personality type, and 3 of 'id+ego+super ego' personality type.

This result means that only 5 personality types among 7 personality types contained from Sigmund Freud's personality theory have been detected. In particular, the characters especially from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literature textbooks mainly 'id' and 'ego' types. There are 5 characters of 'id' personality type, 3 of 'ego' personality type, and 'id+ego' personality type. The fact that 68% of characters, that is 13 characters of total 19 characters, are classified into 'id'

personality type and 'ego' personality type shows limitation that bildungsroman cannot contain various human character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literature textbooks.

In addition, since only 7 Korean language textbooks among 33 Korean language textbooks have bildungsroman, the fact that any bildungsroman cannot be found in the rest of 26 textbooks requires our reflective introspection. In the future, bildungsroman to which high school students feel free to have access should be included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literature textbooks in a political dimension of literary education. Further, in-depth analysis and study on work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literature textbooks has to be preceded, and the efforts not only to enhance the literary completeness of works and select works with various human characters need to be require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